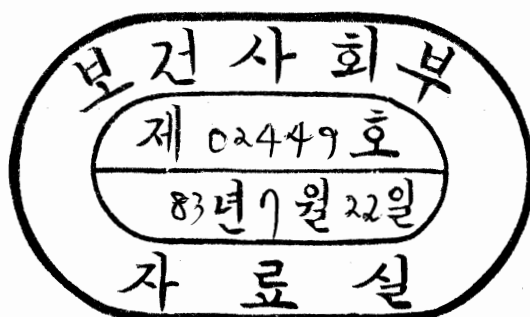


국민의식동향 조사연구보고

1972. 1.



가 29
309
보 13-1

국 민 교 육 현 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
하고, 밖으로 인류공영에 이바지 할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혁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력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 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
을 복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
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
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공무원의 신조

1. 우리 공무원은 민족중흥에 앞장선 영광스러운
길잡이임을 자부한다.
1. 우리 공무원은 창의와 근면, 친절과 공정으로
국민의 신임을 얻는다.
1. 우리 공무원은 청렴결백하여 겨레의 공복으로
국가에 봉사한다.

머 리 말

오늘날 우리는 급격한 사회변동과 국제정세의 변천을 겪으면서 1,2차 경제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민족의 자립과 번영과 통일을 기약하는 “사명의 70년대”를 맞이 하였습니다.

해방과 더불어 서구사조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민주주의적 새로운 사회체제에의 개편과 6.25동란, 4.19의거, 5.16혁명 등 많은 변화 속에서 우리의 전통적 기성 가치관은 혼미해 지고 새 질서에 적응하는 능력이 미흡하여 여러가지 사회적 혼란을 약기시키고 물지각한 일부 사람들의 퇴폐풍조는 마침내 국민의식을 해이하게 하고 또 경제개발계획 추진의 저해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할 때 우리는 근면, 검소, 저축에 사는 생산적인 사고방식과 급변하는 현정세에 대응할 수 있는 가치관의 정립없이 는 불신, 불안, 부정 등의 추방과 국민총화에의 길은 요원하게 될 것이며 우리 국민의 의식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현실을 직시할 수 있고 또 국민의 소망에 부응하는 시책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효율적인 사회개발에 필요한 각종 조사 연구사업의 하나도 1968년에 실시한 “한국인의 가치관” 조사에 이어 사회도회의 양양과 국민의 가치관 정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국민의식동향”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 책자에 소개합니다.

이 분야에 관심이 깊은 여러분과 정신개발에 다소나마 참고가
되기 바라며 이 조사연구에 협찬한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
입니다.

1971. 12.

보건사회부 차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위원장 홍 중 판

차 례

서 론	1
제 1 장 가치의식조사연구의 태도	3
제 2 장 조사연구의 개요	15
제 1 절 조사연구의 목적	15
제 2 절 조사연구의 필요성	15
제 3 절 조사연구의 방법	17
제 4 절 사회조사의 실시	18
제 5 절 조사연구 사항	20
제 3 장 조사연구 결과의 고안	27
제 1 절 조사연구 대상자의 분석	27
제 2 절 의식동향의 실제	36
1 항 사회현상과 착안점	36
2 항 문화적인 생활	40
3 항 종교생활과 가정의례	64
4 항 금전사용과 태도	74
5 항 자녀교육의 목적	85
6 항 이상적인 직업	99
7 항 사회신뢰와 발전전망	111
8 항 생활에 대한 만족과 전망	122
제 3 절 요약 건의	136
부록 1) 국민의식동향조사표	139
2) 참고문헌	141

- 1) 早稲 16
- 2) 早稲 16
- 3) 早稲 16
- 4) 早稲 16
- 5) 早稲 16
- 6) 早稲 16
- 7) 早稲 16
- 8) 早稲 16
- 9) 早稲 16
- 10) 早稲 16
- 11) 早稲 16
- 12) 早稲 16
- 13) 早稲 16
- 14) 早稲 16
- 15) 早稲 16
- 16) 早稲 16
- 17) 早稲 16
- 18) 早稲 16
- 19) 早稲 16
- 20) 早稲 16
- 21) 早稲 16
- 22) 早稲 16
- 23) 早稲 16
- 24) 早稲 16
- 25) 早稲 16
- 26) 早稲 16
- 27) 早稲 16
- 28) 早稲 16
- 29) 早稲 16
- 30) 早稲 16
- 31) 早稲 16
- 32) 早稲 16
- 33) 早稲 16
- 34) 早稲 16
- 35) 早稲 16
- 36) 早稲 16
- 37) 早稲 16
- 38) 早稲 16
- 39) 早稲 16
- 40) 早稲 16
- 41) 早稲 16
- 42) 早稲 16
- 43) 早稲 16
- 44) 早稲 16
- 45) 早稲 16
- 46) 早稲 16
- 47) 早稲 16
- 48) 早稲 16
- 49) 早稲 16
- 50) 早稲 16
- 51) 早稲 16
- 52) 早稲 16
- 53) 早稲 16
- 54) 早稲 16
- 55) 早稲 16
- 56) 早稲 16
- 57) 早稲 16
- 58) 早稲 16
- 59) 早稲 16
- 60) 早稲 16
- 61) 早稲 16
- 62) 早稲 16
- 63) 早稲 16
- 64) 早稲 16
- 65) 早稲 16
- 66) 早稲 16
- 67) 早稲 16
- 68) 早稲 16
- 69) 早稲 16
- 70) 早稲 16
- 71) 早稲 16
- 72) 早稲 16
- 73) 早稲 16
- 74) 早稲 16
- 75) 早稲 16
- 76) 早稲 16
- 77) 早稲 16
- 78) 早稲 16
- 79) 早稲 16
- 80) 早稲 16
- 81) 早稲 16
- 82) 早稲 16
- 83) 早稲 16
- 84) 早稲 16
- 85) 早稲 16
- 86) 早稲 16
- 87) 早稲 16
- 88) 早稲 16
- 89) 早稲 16
- 90) 早稲 16
- 91) 早稲 16
- 92) 早稲 16
- 93) 早稲 16
- 94) 早稲 16
- 95) 早稲 16
- 96) 早稲 16
- 97) 早稲 16
- 98) 早稲 16
- 99) 早稲 16
- 100) 早稲 16

통 계 표 차 례

표 1	성별, 혼인관계별, 지역별	분포	29
표 2	연령계층별, 지역별	분포	30
표 3	학력별, 성별, 지역별	분포	31
표 4	종교별, 성별, 지역별	분포	32
표 5	생활정도별, 성별, 지역별	분포	33
표 6	직업별, 성별, 지역별	분포	35
표 7	<라디오> 보유상황	지역별 분포	43
표 8	T.V 보유상황	지역별 분포	43
표 9	<라디오> <프로>별 청취운선	순위 분포	45
표 10	신문구독상황	지역별 분포	50
표 11	신문 각면별 애독순위별	분포	51
표 12	잡지 구독상황	분포	55
표 13	영화감상 빈도의	분포	58
표 14	오락 기호순위별	분포	60
표 15	주말 및 여가활동	분포	61
표 16	여행 및 등산시의 동반자별	분포	64
표 17	종교인의 종교집회 참석빈도의	분포	68
표 18	가정의례준칙의 보급율의	분포	70
표 19	가정의례준칙의 실천도	분포	72
표 20	제례 실시방법별	분포	74
표 21	저축의 목적별 운선순위의	분포	80

표 22	물품구입태도(장노별)	분포	83
표 23	물품구입태도(방법별)	분포	84
표 24	지역별 자녀교육 목적별	분포	90
표 25	자녀교육의 목적별	분포	92
표 26	교육정도별 자녀교육 목적별	분포	93
표 27	직업별 자녀교육 목적별	분포	96
표 28	이상적 직업에 관한 의견	분포	104
표 29	교육정도별 직업관	분포	106
표 30	이상적 직업의 직업별 의견	분포	108
표 31	사회실패관과 발전전망관	분포	114
표 32	교육정도별 사회실패관	분포	116
표 33	직업별 사회실패관	분포	119
표 34	현재생활의 만족도	분포	126
표 35	현재생활과 작년과의 비교	분포	128
표 36	앞날의 생활전망	분포	130
표 37	교육정도별 미래생활의 전망	분포	131
표 38	직업별 미래생활의 전망	분포	133

서론

인간의 “행복”이라든가 “선”의 문제, 사회의 “이상상”의 문제, 혹은 사회안에서 어떤 개인의 행위를 방향지으면서 그들의 인생에 “의의”를 부여할 수 있는 내면적인 요인군의 문제는 대개 인간과 사회를 취급하는 학문 및 실천에 있어서 근원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을 통일적인 분석의 틀안에 넣어서 착실한 경험과학의 방법에 의하여 될 수 있는한 추구하고 해명해 가기 위한 핵심될 요인으로서 “가치의식”의 개념이 있다. 그것은 첫째로 개개의 행위의 “동기”와 “목적”에 관한 미시적인 접근방법과 “문화의 에토스(ethos)”와 “이데올로기(Ideology)”에 관한 거시적인 접근방법을 통합하여 둘째로 사람들의 행위와 인생에 있어서의 능동적인 측면(욕망 기타)의 연루와 규제적인 측면(도덕 기타)의 연구와를 포괄하며 세째로 “진·선·미” “행복”등등에 관한 “철학적”인 고찰과, 경험제과학의 성과같은 것을 매개로 하기 위한 교량적개념(bridging Concept)”으로 성립되는 것이다.

이번 조사연구는 이러한 취지에서 조사대상자들의 내면적인 사고경향과 외면적인 행동의 일부를 고찰하는데 그쳤다.

그것은 조사비용의 제한이나 여러가지 제약으로 부득기 그 일단만을 조사하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급격한 사회변동과 국제정세의 변천등 갈피를 잡기 어려울 정도로 소용돌이 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사회는 일제의 식민지치하에서 해방되자 건잡을 수 없는 서구사조가 밀려 들어오고 민주주의적 사회체제로의 재정비.

6.25동란, 4.19 학생 의거, 5.16 군사혁명 등을 겪으면서 기성 가치관은 혼미해 지고 전통적 사회구조는 크게 변혁되었다.

이와같이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사회질서에 적응하기 위하여 내적인 분열과 갈등을 자아내는 한편 공업화와 더불어 근대화 과정에서 여러가지 저항과 충돌로 많은 문제를 약기시켰다.

그 예로 우리사회를 휩쓰는 배금주의적 황금만능의 사조는 고귀한 인간의 가치관마저 전도케 하여 인간을 한낱 금전의 노예로 타락시키고 불노소득과 일확천금을 노리는 허황된 사행심과 치부욕은 근면과 성실을 바탕으로한 건전한 사회기풍을 흔들어 놓았으며, 여기에 가세한 사치, 낭비의 풍조는 자기의 “분수”를 넘는 생활을 조장시키고 있다.

오늘날 복잡다난한 국내외정세속에서 허영과 의식이 아닌 내실과 저력을 갖춘 근대화작업을 온 국민이 합심협력해서 밀고 나가야 한다.

정부에서는 근면, 검소, 저축에 사는 생산적인 자세와 정신의 확립없이 는 알차고 희망적인 근대화를 성취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불신, 불안, 부정등 소위 “삼불” 추방도 어려울 것이며, “서정애신” 또한 공념불이 될 것임으로 사회정화와 정신적 근대화를 고취시키고 가치관의 정립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경제개발과는 달리 이러한 정신개발이나 가치관의 정립은 너무도 긴 시간에 걸쳐 이루어 지는 것이고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하여 꾸준히 인내성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대화와 참여를 통한 조정이 요조되고 아울러 국민총화에 입각한 거국적인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제 I 장 가치의식 조사연구의 태도

제 1 장 가 치 의 식 조 사 연 구 의 태 도

그동안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들의 가치의식의 경향이나 사고방식 행동양태등에 관한 조사연구 결과가 공포된바 많다.

특히 68년 8월부터 6개월 동안 전국 11개조사구에서 16개 특성별로 42개 질문으로 총 8,426인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가치관”을 조사한 바 있고 이번에는 제한된 부분적인 조사만을 실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국민의 일제생활의 저변에 흐르는 의식성향과 공동이익에 관련된 윤리적 책임감에 관하여 광범위한 전국적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국민의식속에서 조국 근대화와 민주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가려내고 실질적으로 사회도의의시책의 수립은 물론, 국민의 정신적 지향을 국가발전에 부응하게 하는 정책을 강구하기 위한 조사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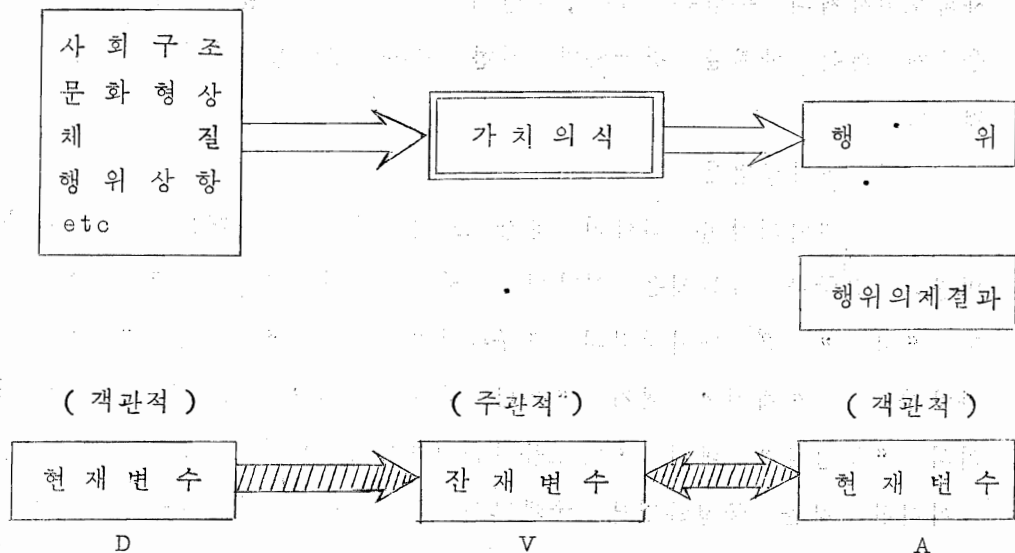
가. 조사방법론

가치의식을 과학의 대상으로서 취급하는 태도자체에 대한 비판과 위구가 없는것은 아니다. 즉 ① 가치현상의 “복잡” 내지 “미묘” ② 가치의식의 “주관성” 내지 “불가촉성” ③ 각 가치주체의 “개성” 내지 “유니크(unique)” ④ 각각의 구국가치의 “무한성” 내지 “비교불가능성”등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것을 긍정하면서 구체적인 방법론— 분석기술—의 적극적인 확립과 이에 기인하는 실질적 성과를 쌓아 가고, 설득시키는 수밖에 없다.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 타인의 가치의식을 알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타인의 체내의 <바이러스>나 요단백처럼 “현미경”이나 “시약”에 의하여 검출할 수는 없으므로 분석과 총합에 의한 추리에 따라서 “검출”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추리에 의한다 하더라도 역시 추리의 근거가 될 객관적인 데타(Data)가 있어야 한다. 다행히 가치의식이란 주관적 과정은 이중적인 의미로서 객관적인 사상과 관련하고 있다. 첫째로 그것은 사회구조와 문화형상과 체질과 행위상항등등의 객관적 요인으로 파악될 수 있고 그런 뜻에서 이들의 요인을 많은 적던 반영하고 있다. 둘째로 그것은 <언어적 비언어적>행위속에 따라서 또 행위의 제결과속에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원측적으로 “관찰”이 가능한 것이 있다. (다음 도 참조)



주; $\Rightarrow$ 현실의 인과관계, 규정관계

$\Rightarrow$ 주론의 방향

D, V, A는 약호

따라서 객관적 <데타(Data)>에 의한 가치의식의 추론의 방향은 ① $D \rightarrow V$ 거나 ② $A \rightarrow V$ 거나 이 어떤것의 방법을 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추론의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는 <데타>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첫째, 행위의 방향으로서 관찰할 수 있는 여러가지 인간행위를 분석하여 그 “동기”나 “목적”을 검출하는 것이 본래의 방향일 것이다.

둘째는 가장 단도직입적인 방법으로서의 대상자신이 여러가지의 기회에 표명된 가치판단의 기록을 분석하여 종합함으로써 그의 가치의식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의식적으로 의도한 바를 감추거나 무의식적으로 합리화하기도 하는데 불구하고 대화나 서신, 일기같은데에 나타나는 가치판단은 보다 확실한 <데타>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셋째로 우리들은 기존의 가치판단의 기록을 수집할 뿐만 아니라 각양각색의 사상에 대한 가치판단을 적극적으로 유발시킬 수도 있다. 이것이 소위 “여론조사”와 “태도측정”의 방법이다.

그리고 넷째로 가치의식이 행위를 방향지울때의 부산물 내지 중간산물로서의 여러가지 비의도적인 반응을 분석하는 방법도 있다. 이와같은 <데타>로서는 꿈(夢)과 착각, 투사와 지각의 이와같은 것이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어느것이나 각기 한계내에서 대담하고 신중하게 활용된다면 사람들의 가치의식을 이해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주어진 <데타>로부터 “잔재변수”로서의 가치의식을 추론하는 체계의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설로서 확립하기는 어렵다. 어느때 어느경우이던 연구담당자의 이른바 “상

상력"에 의한 "비약"을 피하기는 매우 어렵다.

가치 의식 연구의 여러가지 <메-타>를 Bayet, A와 Kluckhohn, C
이 시도한 바의 분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 [직접적 메-타 (가치 판단의 언어적인 표현)
간접적 메-타 (일체의 의식적인 행위와 그 결과)
- 2 [노출된 메-타 (현실적인 양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위의 기록)
유출된 메-타 (연구를 위한 인위적으로 유발된 메-타)
- 3 [수량적인 메-타
질적인 메-타

그러나 좀더 깊이 살펴보면 최초의 두개로 분류한 것을 종합한다면
첫째의 메-타군..... 노출된 간접적 메-타 (행동의 기록, 습관,
풍속의 기록 등)

둘째의 메-타군..... 유출된 간접적 메-타 (프로젝트브, 테스트에의 반응 같은 것)

셋째의 메-타군..... 노출된 직접적 메-타 (성문율, 도덕교육
의 텍스트 같은 것)

네째의 메-타군..... 유출된 직접적 메-타 (여론조사에서 나
타난 의견 같은 것)

을 들 수 있다.

각기 <메-타>군을 구체적으로 열거한다면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첫째의 <데-타>군..... 가격통계, 봉급통계, 직업통계, 이민통계, 소비통계, 시장통계, 가계지출조사, 선거통계, 범죄와 비행의 통계, 호적통계, 노동통계, <매스콤>통계, 종교통계, 그밖에 화제의 분석 및 습속과 제도의 분석등을 들 수 있다.

둘째의 <데-타>군..... 실험과 <테스트> <앙케이트>와 <인터뷰>를 이용하여 필요한 <데-타>를 어느정도까지 인위적으로 “유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Cattell, R. and Baggailey, A의 논문에서 볼 수 있는 ① 정보의 양. ② 관심의 초점이된 <센텐스>, 수량에 관한 정보. ③ 술어의 분류. ④ 방향짓는 연상반응. ⑤ 단어에의 연상등등이 있다.

세째의 <데-타>군.....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성문율로서 법률을 비롯하여 관습, 도덕교육, 종교적계율을 들 수 있다. (1)

네째의 <데-타>군..... 모든 형식의 “태도조사”에 대한 회답을 들 수 있다. 질문항목의 종류에 대응하는 것으로 (가치판단의 인위적인 유도이다. 예를 들면 찬부, 선택, 가치평정, 노호, 취미, 한계상황의 가정, 가능성의 가정, 가치판단의 기준등을 말한다..

종합적인 <데-타> 내지<데-타>광맥, 가치판단의 직접적인 표명과 행위의 기록을 함께 포함하는 것 같은 분석의 각도에 따라 직접적<데-타>를 동시에 유출하는 것으로서 자서전, 회상록, 생활기록, 일기 혹은 사신, 유언같은 것을 말한다.”

나. 조사의 설계

가치의식의 조사의 설계에 있어서 수량적<데-타>와 “질적인<데-타>의 장점과 그 한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1. 수량적<데-타>의 장점과 한계

수량적<데-타>가 가지는 포괄성, 대표성, 객관성, 신뢰성, 정

탈성등의 장점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수량적<데-타>와 “질적”인 <데-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전자는 “확실하지만 재미가 적다”는데 대하여 후자는, “재미 있지만 믿을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재미”보다 “확실”한데 착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되는 “재미..있다”는 것은 단순히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재미가 아닌점에 문제가 있다. “확실하지만 재미 없다”는 인상은 실은 수량적<데-타>가 갖는 다음과 같은 결점의 솔직한 표현이다.

- (1) “의미적”인 이해가능성의 희박
 - (2) 총합적·다차원적인 파악의 곤란
 - (3) 그 기원과 변혁 가능성에 관한 동적인 파악의 곤란
- 따라서 수량적인 <데-타>는 삼중의 의미에서 추상적이다.

2. “질적”인 <데-타>의 장점과 한계.

질적인 <데-타>는 전자와는 달리 모든 차원의 <다이나믹>(Dynamic)한 관계를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표현하여 생생한 구체성과 이해가능성을 지닐 수 있다. 그 반면에 질적인 <데-타>는 “포괄성”을 결여하며, “대표성”의 보증도 없으므로 보편적법칙을 도출할 수 없다는 것과 분석의 절차와 착안점을 표준화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확한 관찰과 자의적인 추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데-타>의 해석에 있어서의 신뢰성, 객관성, 정밀성은 어느정도 희생될 수 밖에 없다.

3. 양자를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첫째, 양자는 상류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오히려 취급하는 방법 내지 분석하는 방침의 함수관계로 볼 수 있다. 각

기 다른 입장에서 두가지의 <타입(Type)>의 <데-타>의 이점을 어느정도 어떻게 통합하느냐 즉 “확실하고 또 재미 있게”, 분석하려면 여하히 처리하느냐 하는것이 문제이다.

우선 질적인 <데-타>를 가능한 한 표준화하고 수량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Lazarfeld, P.F. 와 Levinson, D. 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제안하고 있다.

(1) 사례기록 질적인 <데-타>을 분류해야할 기준이될 연속체(차원)을 정의한다.

(2) 각사례기록에 포함되는 지표(indicators)속에서 이 연속체에 관련되는 항목을 결정한다.

(3) 각지표에 연속체상의 그 위치에 따라서 수치와 부호(+, -)를 부여한다.

(4) 연속체상의 각 사례의 위치를 나타내는 최종적 지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각 사례기록에 대하여 각각의 지표의 <스고아>를 총합한다 주; Lundberg, Gi Social Research: A study in methods of gathering data, 1929, rev.ed. 1942. 복무직, 안전 삼랑역 “사회조사”)

둘째번 시도로서 질적인 <데-타>는 질적인 <데-타>로서, 양적인 <데-타>는 양적인 <데-타>로서의 각기 고유한 이점이나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려가면서 결합시키는, 바꾸어 말하면 다단식의 분석이 필요하다.

만일 이러한 두가지 결합방법을 한번 더 결합시킨다면 조사는 한층더 확실하고 또 풍당한 것이 될것이다. 이런 경우 조사의 과정은 다음 삼단계를 포함하게 될것이다.

I. 수량적 <데-타>에 있어서의 통계적관계 혹은 상관관계의 추출 → 경험적인 공변관계의 확인.

II. “질적”인 <데-타>를 사용하여 경험적인 공변관계의 내적인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내적인 동거관계를 이해시킬 것 → 실전적인 가설의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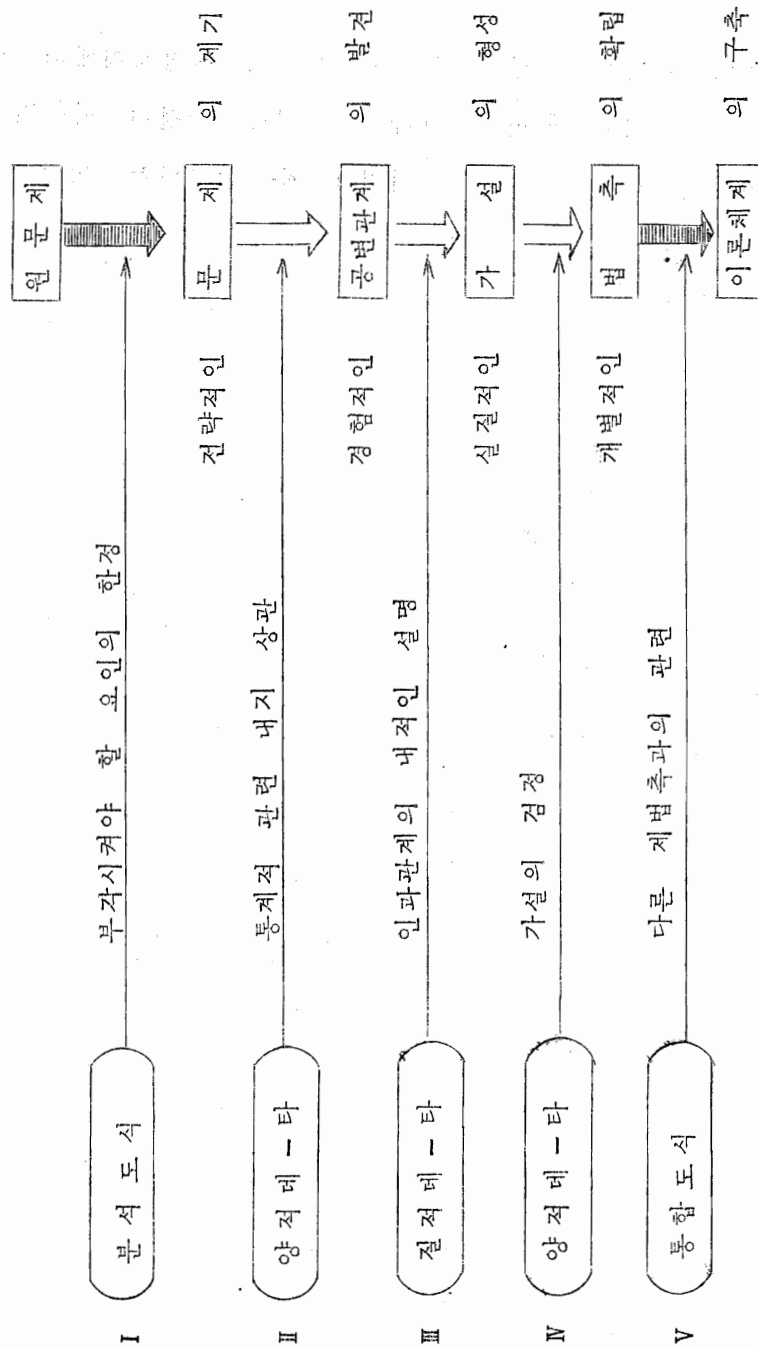
III. 새로운 수량적 <데-타>에 의한 가설의 검증 → 법칙의 정립.

다음에 가치의식연구의 다섯개 국면을 생각할 수 있다. 즉 우리들은 가치의식조사에 있어서의 세밀하게 검토하려 했으나 여러가지 제약으로 그 개요를 살펴 보았다. 그러나 최초의 단계인 “경험적 공변관계의 확인”이 유효하게 진행되게 하려면 전술한 바와 같이 처음부터 “분석도식”의 도움을 빌려서 부각시킬 제요인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문제” 그것이 “과학적”으로 설정되어 있어야만 된다. 한편 최후의 단계인 “가설의 검증—법칙의 정립”이 이루어진 뒤에도 이 법칙을 다른 제법칙과 관련시켜 종합적인 이론체계를 사도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이 국면에서 다시 한번(통합을 위하여) 이론도식이 요청된다.

따라서 가치의식연구의 전과정은 다음과 같은 도로서 표시될 수 있다.

가치의식연구의 5개 국면

(문제, 도식, 가설, 데이터, 법측등의 상호관계)



이러한 방법은 기존의 특정한 학설과 사상체계에의 권위주의에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식이나 가설의 이론적 사상사적
및 사회적 배경에 충분히 배려할 수 없었다는 명백한 결함을 지
니고 있다.

제 II 장 조사연구의 개요

제 2 장 조사연구의 개요

제 1 절 조사연구의 목적

1. 국민의 일상생활의 저변에 잠재된 의식구조와 가치성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국민의 가치관의 기초 정립에 자하고 사회도의 양양의 장기적인 시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2. 경제개발과 병행되어야 할 사회개발의 제지표중 정신적 측면의 지표를 설정하기 위한 접근방법을 시도하는 것이다.

3. 현대적인 국민생활을 표준화할 수 있는 <모델>의 구축을 시도하고 표준적인 생활의 생활화를 권장하기 위한 기초작업의 자료를 얻고자 한다.

이와같이 국민의식속에서 민족중흥과 조국 근대화와 민주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가려 내어 국민의 정신적 자세와 지향을 국가발전에 기여 보비하게 하는 제방책을 검색하고 강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제 2 절 조사연구의 필요성

격변하는 국제정세의 와중에서 우리는 능동적으로, 그리고 자주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현실에 놓여 있다.

특히 모든 발전의 원동력은 인간의 정신에 좌우되는 것이므로 무엇보다 정신적인 근대화가 선결문제이다.

물질적 성장에 따르는 가치관의 전도와 인간성의 상실등에 대처하는 적극적인 시책의 추진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경제개발에 따른 생산우위의 사회로 발전하면서 전통적 질서를 변혁시켜 놓았다.

이러한 전통사회의 현대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부면에 연쇄반응을 일으켰던 것이다.

지정학적으로 부단한 외세의 침략과 관원들의 횡포로 인한 생활의 불안, 타자 의존적 비자주적인 사대사상 비합리적인 체념적 사고, 비협동적인 이기주의, 비능률적인 무사 안일주의, 등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태, 일제 식민지 정책에 의한 잔재 그리고 해방후의 서구적사조의 잘 못된 이식과 수용등으로 우리들의 사회체제와 의식구조 사이에는 커다란 승리가 생기고 수많은 시행착오와 사회적 혼란을 거듭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에 6.25동란과 같은 민족의 비극과 4.19등을 겪으면 허다한 진통을 면치 못하였던 것이다.

5.16과 더불어 부정 부패등 구악을 일소하는 사회적 혁신을 시도하여 국민도회의 재건과 사회정의의 실현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아직은 새로운 사회질서나 근대적 가치체제가 확립되지 못한채 악순환을 되풀이 하므로서 여러가지 퇴연적 경향이 팽배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오늘날 이러한 물가치적 이념이나 전근대적 가치관 불건전한 사회풍조를 재빨리 해소하고 정신면의 근대화와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할 중대시기에 처해 있다. 이에 대응하는 민족적 주체意識의 확립 국민총화에 바탕을 둔 사회의 정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회의 개발과 맑고 맑은 미래 발전지향적인 인간상을 구현하고 번영된 조국 건설을 성취할 수 있도록 계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 유의할 것은 경제개발과는 달리 정신개발이나 가치관의

정립은 너무나 긴 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꾸준히 인내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계획적이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려면 현재 우리 국민들 개개인의 의식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한다. 현실을, 그리고 방향을 알지 못하고서야 어찌 국가발전에 부응하고 또 기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우리의 나아갈 바를 제시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의도하에 가구를 형성하고 가계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가구주 내지 가구주를 대신할 수 있는 가구원들의 의식구조를 조사하게 된 것이다.

제 3 절 조사연구 방법

머리말에서 논급한 바와 같이 가치의식을 연구하는 방법이 극히 어렵고 또 관찰할 수 있는 <데-타>로 부터 직접 관찰할 수 없는 분야에 이르기까지 추론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네개의 기본적인 문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 기술로서 이와해,장단점과 구체적인 <테크닉>같은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사람들의 행위의 주관적인 의도를 해명해 봐야 하고, 둘째 무의식의 욕구나 혹은 동기를 분석 비판해야 하고, 셋째 기존의 가치판단<데-타>를 활용해야 하고, 넷째 가치판단의 인위적인 유발과 도출을 시도하여 끝으로 종합적인 방법에 의해 판단되도록 <어프로치>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연구에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채 사실만을 집약하여 기존의 관련자료를 비교하였을 뿐이므로 피상적인 관찰에 불과하다는 평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다른 기회에 내면적인 의도를 구명하고 비판하여 추론하고자 한다.

제 4 절 사회조사의 실시

가. 조사설계 및 예비조사

국민의 의식성향에 있어서도 사회도의 양양과 관계가 깊은 부분의 문화적 종교적 생활을 토대로한 경제생활과 직업생활의 발전 전망등을 집약하여 7월초에 조사계획을 승인받음과 동시에 조사표 작성을 위한 여러가지 기초작업을 완료하여 7월 22일까지 예비조사표를 작성하였다. 본조사를 담당할 조사요원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필하고 7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서울시내 일부지역과 지방 중소도시 및 농촌에 대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상 문제가 된점을 협의하여 조정 재검토하였다.

그후 8월 7일 예비조사표를 정리하여 본조사를 위한 인쇄요청과 아울러 경제기획원에 사회조사신고도 필하였던 것이다.

이번 조사 연구에는 오랫동안 각계각층에서 가치의식 조사 보고한 관련자료의 수집과 당위원회가 1968년도에 실시하였던 “한국인의 가치관” 조사와 긴밀한 관련을 지워 상당한 기간 검토되었던 것이다.

[관련자료중 특기할 사항]

- ① 경향신문사 과학부에서 조사보고한 “한국의 젊은이”
- ② 서울대학교 학생지도 연구소에서 조사한 “신입생들의 가치관”
- ③ 서울대학교 이기춘교수가 조사한 “생활조사”
- ④ 숙명여자대학교 보건소장 김주성교수의 조사 “여대생의 건강실태”
- ⑤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문제연구소장 조은숙교수의 “한국대학생의 일반적인 문제 양상”

- ⑥ 서울문리대 및 이대 사회학과에서 고영복교수 지도로 실시한 “시민여론조사” 등

나. 조사방법

(1) 표본규모

총 1,920 가구에 1,920인

제 1 집단 서울 부산 1,200

제 2 집단 광주 원주 김천 400

제 3 집단 김해 금능 광산 320

(2) 표본추출방법

- ① 32개 도시의 주요사회 및 경제지표지수에 관하여

단일 지수화하기 위하여 공식 $I = \frac{100(i-i_0)}{i_{100}-i_0}$ 를 적용계산하여 작성하고 다시 32개별 단일지수의 총화를 구하여 이를 서열화하고 이의 누적총합지수를 작성, 이를다시 4등분 집단화하여 각집단화하여 1개시를 표본으로하여 적용하였다.

- ② 농촌지역은 32개도시중 선정된 조사대상도시의 인근 지역의 군을 주의 선정하여 군당 1개면을 주의선정하여 면내 수개 자연부락을 전수조사대상가구로 하였다.

- ③ 조사는 선출된 조사원이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토록 하였다.

다. 본조사

본조사는 1971년 8월 16일부터 본조사에 착수하여 9월 4일까지 현

지에서 조사를 완료하였다.

8월 16 ~ 18	원주
16 ~ 28	서울
17 ~ 23	부산 김해
19 ~ 23	김천 금능
29 ~ 9월 4일	광주 광산

라. 집계분석

본조사 결과 1,920개 표본중 1,836개표본 (회수율 : 95.6%)을 수집계에 의하여 9월 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총 51개 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다시 연관표를 작성하여 분석 보고하였다.

집계에 있어 예산 및 시간의 제약으로 광범위한 분석 평가를 하지 못하였는바 이후 일부분을 재평가하여 자료를 보완하기로 하였다.

제 5 절 조사연구 사항

가구를 구성하는 가구원중 가계 운영에 주된 역할을 담당한 가구주나 혹은 가구주의 부재시에 대신할 수 있는 가구원들의 의식 구조속에서 현실적으로 심각하게 자주 부딪치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한하여 조사원의 질문에 응하게 하였다.

질문조사에 있어서 조사원의 태도나 선입감같은 것에 유의하여 가급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였으며 자유로운 대화를 통하여 질문사항에 접근시켜 피조사자로 하여금 솔직히 생각한 그대로를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여 그반응을 보이게 하였다. 그러나 일률적일 수는 없었기 때문에 때와 장소에 따라 그리고

응답시의 피조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불가피한 것이 있었다고 감안하고 처리하였다.

1. 기본속성

피조사대상자가 주로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여 비교적 단순한 계층이지만 이들을 ① 성별에서 남녀별로 ② 혼인관계에서 미혼, 유배우, 이혼, 배열, 기타로 분류했으며 ③ 연령별에 있어서는 10세분위별로 20세이하, 21세에서 30세, 31세에서 40세, 41세에서 50세, 51세에서 60세, 61세에서 70세, 71세이상등 7단계로 구분했다. ④ 교육정도별로는 대졸이상, 고졸, 중졸, 국졸, 불취학의 5개 단위로 집약했고 ⑤ 종교에 대해서도 유교, 불교, 천도교, 기독교, 천주교, 무종교, 기타의 7개로만 구분했다. ⑥ 생활청도에 있어서는 피조사자의 거주지역내의 생활환경이나 동지역주민의 생활상태등을 감안한 주관적인 판단아래 상, 중, 하로 구분하여 그 반응을 나타내게 하고, 질문사항 10항에서 지난달에 수입된 돈의 사용을 감안키로 하였다. ⑦ 직업별에 있어서는 경제기획원 분류표준직업별 분류의 대분류를 감안하여 농·어업, 상업, 교육자 공무원 회사원, 공업, 그리고 의사 변호사 언론인등의 자유업, 금융업, 노동자, 무직 기타로 분류하였다.

조사연구 담당자가 피조사자의 가치판단을 추론하는데 필요한 방향으로 조정하여 종합적인 고찰에 치중하였다.

2. 질문사항

이번 조사연구과제를 크게 여덟가지측면에 대한 반응을 보았다.

첫째는 문화적인 생활에 있어 문화적시설중 현대생활의 특증인 <매스콤·니케이션>에 관련하는 TV, 라디오의 보유현황과 관심있게

주로 청취하는 <프로그램>에 관하여 반응을 보았으며 신문 잡지 등의 구독여부와 애독을 통한 관심도에 의한 사회적생활의 가치기준을 유도해 보았으며 여가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 영화구경의 빈도, 개인의 취미 오락생활의 취향을 파악하는 한편 주말 여가활동의 적극적인 측면을 파악하고 즐기는 태도의 반응을 보았다.

둘째로 종교생활에 있어서 종교의 유무와 회집에의 참여도 및 전통적인 습속과 의례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1969년에 제정 실시중에 있는 “가정의례준칙”에 대한 관심도와 실제생활을 통한 준행, “제기”를 들어 그들의 전통적인 관습생활의 반응을 보았다.

세째 수입되는 금전의 사용과 저축성을 고찰하고자 가계중심의 금전사용관을 살펴보고 저축성과 저축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반응을 보아 사회연대의식의 발로나 현대적 생활에 있어 공통되는 위험에 대비하는 의향을 타진해 보았으며 아울러 물품구입을 통한 소비자적 행동과 그들의 주체적조건과 소비의 객체인 재화<써어비스>의 공급조건 혹은 사회적 환경의 영향 생활수준같은 것에 대한 반응도 <탐취>해 보았다.

네째로는 최근 교육의 중시에서 오는 학교교육의 양적 팽창과 증대와 아울러 고학역화하고 학교는 미래의 사회적 안정과 사회적 지위의 확보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여자들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교육비를 증대시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그들이 어떤목적으로 또 무엇을 회구하면서 양육시키고 교육에 임하고 있는지? 여자들이 어떠한 형의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가를 물었다.

물론 피조사자에게 여러가지의 대답이 있을것을 예상하고 다음과

같은 네가지 형의 인간상을 미리 한정하였다. 즉 “① 지혜롭고 창의력 있는 사람 ② 재산과 돈이 많은 사람 ③ 명예와 지위가 높은 사람 ④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으로 유도하였다.

다섯째는 전향과 관련하여 각종직업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분업조직에 세분화, 전문화하고 다양화하는 한편 우리사회에 팽배한 권금사상이나 경제윤리의 퇴폐에 반하여 체면과 명예를 내세우고 실리를 얻는데 민감하지 못한 층도 있다 그러나 사회가 점차 근대화됨에 따라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이 합리화되는 까닭에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물질적인 실리보다도 체면이나 명예를 중요시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피조사자가 직업을 선택할 경우의 이상적인 직업이 무엇인가 물어보았다.

여섯째로 대중사회의 형성과 더불어 미래의 생활안정 사회적 지위의 확보등에 개인의 능력이 결정적인 요소이므로 모든 사람이 능력이 있고 계속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회는 모든 일이 공정하게 처리되고 있는 사회이며 사회성원들은 그 사회를 믿고 삶에 희망을 걸 수 있는 사회인 것이다. 또한 그 사회는 모든 면에서 안정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사회를 믿고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물었다.

일곱째 우리는 제1차 제2차 경제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경제발전 및 성장과정에서 불가피한 빈부의 차이나 지역간의 격차 소득의 불균형이 심하다는 견해가 있으므로 피조사자들의 근래의 생활에 대한 만족 여부와 어느정도 향상되었으며 또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 (faint text) ...

... (faint text) ...

... (faint text) ...

... (faint text) ...

... (faint text) ...

... (faint text) ...

... (faint text) ...

... (faint text) ...

제Ⅲ장 조사연구 결과의 고안

제 Ⅲ 장 조 사 연 구 결 과 의 고 안

제 1 절 조사대상자의 분석

이번 조사 연구 대상자인 가구주 또는 가구주 부재시에 가구주를 대신할 수 있는 가구원으로서 질문에 응한 사람들의 기본 속성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지역별 분포

서울 부산등 대도시에는 1,116 인, 광주·원주·김천등 중소도시에는 400 인, 김해·금릉·광산등 농촌지역에 320 인으로 총 1,836 인으로 분포돼 있다.

2) 성별

남자 1,464 인으로 79.7 %를 점하고, 여자는 372 인에 불과하여 대개의 가구주가 남성임을 입증하고 있다.

3) 혼인관계별

조사대상자의 83.7 %인 1,537 인이 유배우자이고 사별이 143 인 미혼 121 인, 기타 22 인 이혼이 13 인으로 나타나 있다. (표 ; 1 참조)

4) 연령계층별 구성

31 세 ~ 40 세 층이 31.3 %, 41 세 ~ 50 세 층이 30.8 %로 장년기에 속하는 계층이 1,141 인으로 전체의 62 %로 가장 많고 51 세 ~ 60 세 층이 15.6 %, 21 세 ~ 30 세 층이 12.6 %의 순위로 나타나 있다. 61 세 이상의 노년층은 152 인으로 8.3 %이며 20 세 미만의 소년가구는 25 인으로 2.5 %를 점하고 있다.

도시의 경우는 31 세 ~ 50 세 까지의 층이 농촌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반면에 농촌은 도시보다 노년층이 가구주로서의 역할을 사실상

담당하고 있어 오늘날 도시주민의 핵가족화의 경향임에 반해 농촌주민의 노령화와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상존과 같은 관련이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 참조)

5) 학력별 구성

학력에 있어서는 고졸이상인 대도시에서는 66%를 점하고 중소도시에 있어서는 41%, 농촌지역은 18.8%에 불과하며 국졸과 불취학이 66.5%로서 대도시주민 고졸이상의 학력자와 상당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고졸이상이 농촌에서는 전무한 사실로 나타나고 있어 크게 주목할 일이다. (표 3 참조)

6) 종교별 구성

응답자중 종교를 가졌다는 사람이 913인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약반수에 달하고 있다.

종교인중에 불교가 59.3%를 점하고 있으며, 기독교가 23.8%, 천주교 9.4%, 유교가 5.7%, 천도교 1.9%의 순으로 분포돼 있다. 농촌의 경우 불교는 77%로 현저하게 많아 교대로 부처의 민간신앙의 주된 위치를 시현하고 있다. (표 4 참조)

7) 생활정도별 구성

생활정도는 응답자가 자기 거주지역내수의 상황에서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상, 중, 하의 3구분으로 지적하게 하였든바 (표 5)와 같이 중류정도가 된다는 반응이 61.1%로 압도적 다수이고 하류에 속한다는 반응이 31.4%이다.

도시나 농촌을 막론하고 중류정도로 자기가 그 지역에서는 생활하고 있다는 반응이 과반수이상의 많은 것은 생활에 대한 안정과 만족도에 크게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성별 혼인관계별 지역별 남녀별 구분

혼인 관계별	총 수	성 별		대 도 시			중 소 도 시			농 촌 지 역															
		남	여	제 수	남	여	부 산	제 수	남	여	원 주	김 천	제 수	남	여	광 산									
총 수	1,836 (100)	1,464 (80)	372 (20)	100	592	156	226	102	400	100	173	27	91	9	57	43	320	100	147	13	76	4	62	18	
미 혼	121 (6.6)	81 (5.5)	40 (2.8)	97	8.7	40	22	23	12	3.0	2	3	2	—	2	3	12	3.8	7	—	2	—	—	3	—
유 배 우	1,537 (83.7)	1,345 (91.9)	192 (11.6)	924	82.8	540	89	230	65	343	85.8	168	4	86	1	54	30	270	84.3	137	1	71	—	59	2
유 혼	13 (0.7)	1 (0.1)	12 (0.7)	8	0.7	4	1	3	5	1.2	—	2	—	1	—	2	—	—	—	—	—	—	—	—	—
사 별	143 (7.8)	25 (1.7)	118 (7.1)	67	6.0	9	35	—	38	9.5	3	17	2	7	1	8	38	11.9	3	12	3	4	—	16	—
기 타	22 (1.2)	12 (0.8)	10 (0.6)	20	1.8	3	6	8	2	0.5	—	1	1	—	—	—	—	—	—	—	—	—	—	—	—

연령계층별 지역별 남녀별 분포

연령 계층별	총 수	성별		대				도				시				중				소				도				시				농				촌																																																																																																																																																																																																																																																																																																																																																																																																																																																																																																																		
		남	여	제		서		울		부		산		수	%	제	광		주		원		주		김		김	해	제		광		주		원		도		시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하루하루의 삶

학 려 별	남 녀 별		대 도 시				중 소 도 시				농 촌														
	총 수	남	세		부 산		세	광 주		원 주		김 천	제		김 해	금 능		광 산							
			수	%	남	여		남	여	남	여		수	%		남	여								
총 수	1,836 (100.0)	464	372	1,116	100.0	156	266	102	400	100.0	173	27	91	9	57	43	320	100.0	147	13	76	4	62	13	
대 출	447 (24.3)	403	42	366	32.8	237	33	89	7	65	16.3	48	2	8	—	7	—	16	5.0	8	—	4	1	3	—
고 출	515 (28.1)	425	90	370	33.2	203	52	86	29	99	24.8	58	2	22	—	10	7	46	14.4	20	—	19	—	7	—
중 출	315 (17.2)	252	65	187	16.8	86	21	56	24	83	20.8	29	6	24	1	13	10	45	14.1	27	1	6	—	10	1
국 출	392 (21.4)	288	104	151	13.5	61	37	26	27	127	31.8	37	9	30	5	25	21	114	35.6	49	2	29	—	31	3
블 취 학	167 (9.0)	96	71	42	3.7	5	13	9	15	26	6.5	1	8	7	3	2	4	99	30.9	43	10	18	3	11	14

종교별 남녀별 지역별 분포

종교별	종수	남녀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총										
		남	여	제수	서울		부산	제주	광주		원주	김천		제수	김해		군여	평산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총수	1,336	1,464	372	1,116	—	592	156	226	102	400	—	173	27	91	9	47	43	320	—	147	13	76	4	62	18
(종교인)	(913)	(704)	(209)	(579)	1000	—	—	—	—	(72)	1000	—	—	—	—	—	—	(62)	1000	—	—	—	—	—	—
유교	52 (5.7)	45	7	28	—	15	2	10	1	11	—	4	—	—	—	4	3	13	—	1	—	11	1	—	—
불교	543 (59.3)	413	130	333	—	149	38	103	43	85	—	28	4	21	1	14	17	125	—	26	11	33	3	29	13
천도교	14 (1.9)	8	6	5	—	2	—	2	1	9	—	—	4	—	4	1	—	—	—	—	—	—	—	—	—
기독교	218 (23.8)	174	44	168	—	96	28	29	10	36	—	17	4	8	—	5	2	19	—	15	—	1	—	3	—
천주교	86 (4.7)	64	22	50	—	30	8	7	5	31	—	3	2	8	3	11	4	5	—	—	—	5	—	—	—
무종교인	908	750	158	530	—	297	77	114	42	221	—	121	13	50	4	18	15	157	—	95	2	25	—	30	5
기타	15	10	5	7	—	3	3	1	—	7	—	—	—	4	1	1	1	1	—	—	—	1	—	—	—

생활정도별 지역별 남녀별 분포

	총수	남녀별		대 도 시				중 소 도 시				농 촌													
		남	여	제 수	%	서울	부 산		원 주	김 천	제 수	%	김 해	금 능	광 산										
							남	여																	
																남	여								
총 수	1,836 (100.0)	1,464 (100)	372 (100)	1,116 (100)	100	592	266	102	400	100	173	27	91	9	57	43	320	100	147	13	76	4	62	18	
상	137 (7.5)	117 (8.0)	20 (5.4)	83	7.4	44	5	26	8	35	8.8	23	1	-	6	5	19	5.9	10	-	1	-	7	1	
중	1,122 (61.1)	930 (63.5)	192 (51.6)	709	63.5	399	90	155	65	222	55.5	117	6	51	2	34	12	191	59.7	85	6	44	2	44	9
하	577 (31.4)	417 (28.5)	160 (43.0)	324	29.1	149	61	85	29	143	35.7	33	20	40	7	17	26	110	34.4	51	7	31	2	11	8

8) 직업별 분포

직업별에 있어 농·어업·상업·교육자·공무원·회사원, 공업·자유업(의사·변호사·언론인등)·금융업, 노동자, 등의 7개 직업으로 분류하고 무직, 기타등 9개항을 제시하여 지적하게 하였다. 그 결과 7개항의 유직자는 1,393인으로 75.9%이며 무직자는 264인으로 14.4% 기타 179인으로 9.8%로 나타나고 있는데 농업은 농촌지역이 61.6%일 뿐, 도시에 있어서 극소수를 점하고 있다.

그밖에 도시에서는 교육자나 공무원 또는 회사원등 사무직 직업 종사자가 압도적으로 다수이며 상업이 그 다음의 순이다. (표 6 참조)

기타 참고사항으로 조사표본가구의 1,836가구에서 부양하고 있는 인구는 5,797인이 있으며 주택의 소유상태는 자가소유가 대도시에서 64.8%, 중소도시에서 52.5%, 농촌지역에서 86.3%였고, 전기 배전여부별로는 대도시 99.7%, 중소도시 97.8%, 농촌지역 평균이 50.6%였으나 농촌중 김해만은 86.3%의 배전율을 실현하고 있다.

직업별 : 남녀별, 지역별 분포

직업별	총수	성별		대도시			중소도시			시			농촌		
		남	여	수	%	남	여	수	%	남	여	수	%	남	여
총수	1,836 (100.0)	1,464	372	1,116	100.592	156	266	102	400	100	173	27	91	9	57
농업	235 (12.8)	212	22	10	0.9	5	3	2	27	6.7	3	—	8	—	12
상업	442 (24.1)	366	77	290	6.0	161	24	72	33	124	31.0	67	7	21	2
교육자	450 (24.5)	403	47	335	50.0	209	19	90	17	90	22.5	48	1	17	—
원·사무원	107 (5.8)	88	19	79	7.1	42	3	22	12	28	7.0	8	—	13	1
공인	48 (2.6)	40	8	40	3.6	19	5	13	3	6	1.5	6	—	—	—
자영업자 (영업원·농사)	10 (0.5)	10	—	10	0.9	9	—	1	—	—	—	—	—	—	—
군용	101 (5.5)	88	13	34	3.0	17	3	13	1	37	9.2	5	2	19	1
노동자	264 (14.4)	122	142	189	6.9	51	79	36	23	43	10.8	12	13	5	3
무직	179 (9.8)	135	44	129	1.6	79	23	16	11	45	11.3	24	4	8	2
기타															

제 2 절 의식동향의 실제

I 항 사회현상과 착안점

의식동향을 연구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에 있어서 "방법적용형" 이던 "문제추구형" 이던 간에 자연과학으로 부터 구별되는 "인간의 과학" 이므로 인간적 사회의 이론과 사회적인 인간의 이론의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실제의 다른 측면으로 부터의 접근방법으로서 일단 구별되어야 한다.

인간적 사회의 이론의 원문제는 첫째 현실사회의 조직과 그 발전의 법칙이며 둘째는 사회의 이상상 급 실현의 방법일 것이다.

사회적인 인간의 이론에 있어서도 첫째, 인간은(사회속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며 무엇을 <선>으로 하며 무엇에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있는가. 그들의 행동은 어떠한 <동기> 내지 <욕구>에 지배되고 있는가. 결국 사람들의 행동을 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힘은 무엇일까. 즉 사람들의 동기와 욕구, 목적과 삶의 보람 그자체를 규정하고 있는 요인은 무엇일까..... 하는데 첫째로 문제의 계열이 있다.

둘째의 계열로서는 우리들에게 <참다운> <선>이란 무엇인가? <참다운>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떻게 하여 실현되는 것일까. 우리들은 무엇에 <삶의 보람>을 느끼고 무엇을 <인생의 목적>으로 할 것인가? 요는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 갈 것인가? 하는 문제의 계열이다.

실제로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제외해 놓고 서야 <참된> 행복의 이론이 있을 수 없고 사람들의 현실적인 행복과의 관련없이 <선의 이론>은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극히

형식적인, 그리고 내용이 공허한 것으로 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조사 연구에 있어서는 첫째의 문제계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으면서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관의 해체와 더불어 이질적인 서구문화의 도입으로 한계와 갈등을 겪고 있다.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사회질서가 어떤것인지? 근대화는 무엇이며 현대화는 또 무엇인지? 일부 국민들은 현대적 제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외형적 도입과 자체주의 경제제도의 잘 못된 이해 자유주의적 문화의 그릇된 인식과 서구적 생활양식의 모방등으로 우리 사회는 온갖 부조리와 현대사회적 병리현상은 커다란 사회문제로 화하여 마침내 국민도의의 재건. 제 2 경제의 실천: 사회정화대책의 강화와 국민교육현장의 재정.가정의례 준칙의 보급등 여러가지 국민운동으로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보다 명랑하고 밝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민족적 주체의식의 확립과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여 미래 발전지향적인 인간상의 구현과 사회정의의 실현에 기여하는데 이조사 연구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러가지 제약으로 국민의 가치의식의 일부분만을 고찰한데 큰 아쉬움을 금치 못한다.

산업화와 더불어 생기는 사회의 변동문제에서 두드러진 사례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1) 산업조직 즉 기업의 거대화로서 경제적 조직이외에 정부 지역단체 학교 병원등의 비경제적 조직에 이르기 거대화한다.

(2) 기업의 거대화에 따라 분업체제, 직무와 권한의 분화등에서

시작하여 전사회적으로는 숙련도에 의한 노동자의 다양화. <화이트 칼라>의 계층분화 전문직업자의 증대와 분화 가족 기능의 축소 같은 사실을 들 수 있다.

(3) 농촌 공동체를 원형으로한 인격적인 결합. 세대는 도시화와 상업주의화에 의하여 비인격적 비정서적 일면적 익명적인 약한 결합. 세대로 이행하며 개인은 공동체적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고립화한다.

(4) 역할배분 및 소유배분의 기준이 개인의 속성에 의하지 않고 업적에 치중하게 된다. 구인측에서는 혁신적 창조적인 능력을 요구하게 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에서는 밀도가 높은 공헌에 대하여 그것에 적합한 결여를 요구하게 된다.

(5) 사회관계의 비인격화와 역할배분의 업적주의화는 인간의 배치 그것을 유동화한다. 고등교육과 승진의 기회가 많아지고 사회는 개방적인데 반해 경쟁과 그것에 따른 사회적 긴장도 격렬해 지므로 사회적 이동이 증대한다.

(6) 업적주의화와 경쟁의 격화는 소득의 격차를 초래하지만 한편에서는 고등교육의 보급과 중간 계층을 증대시켜 그 결과로서 그것이 압력단체로 작용하여 소득의 평준화를 지향하게 한다.

(7) 민주화라고 해서 의사 결정권력에의 대중의 참가를 들 수 있다. 이 의사 결정참가의 실현에는 참가의 의사와 능력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교육의 보급과 소득의 평준화와 개인의식의 확립 같은것이 불가결의 요인이다.

(8) 고도의 산업사회에서는 무엇인가 목적적 행위를 달성하기 위해 강력한 사회적 자원의 동원력을 행사해야 한다. 거기에서는 개인은 무력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실현하려면 거대한 인적·물적·금력을 동원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공동체적 세대에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여기에서 산업화는 권력행사의 거대화를 필요로 하는 사회구조를 도출한다고 한다.

(9) 권력과 대항권력의 <바란스>인데 거대조직과 거대권력의 시대에는 새로운 「힘의 <바란스>」의 <매카니즘>이 요구된다.

노동조합·업자단체·소비자단체·지역조직같은 것은 정부와 대기업의 거대권력에 대하여 어느정도의 대항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대항권력의 행사없이는 고도산업사회의 내부적<바란스>를 보지하기 어렵게 된다.

(10) 관료제화의 문제로서 민주화를 지향하는 힘과 권력행사의 필요라는 두개의 상반된 요구를 양립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행정 내지 관리에 있어서 관료제화를 들 수 있다. 관료제는 지배의 한 형태이지 권력의 극소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규율에 의한 지배」일 뿐이지 지배와 종속의 관계를 자의적인 권력행사로 부터 정당성을 승인받아 제도화된 권력행사로 전화시키는 것이므로 관료제하의 권력은 이른바 비인격적인 권력이며 기능화된 권력이다.

이상과 같이 산업사회에 있어서의 사회구조의 특질을 열거했으며 선진국과 후진국과의 차이나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소간의 다른 유형을 나타내기도 한다. 다만 이러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주축으로 기안하여 우리사회를 관찰해 보았을 뿐이다.

2항 문화적인 생활

가. 일반적인 개황

경제의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등 사회발전추세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부문을 포함하는 제3차산업의 성장율은 근래에 매년 평균 15%이상의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전력, 교통, 통신, 주택 보건의료등 시설이 확장되어 산업발전에는 물론 국민생활에 더욱 많은 편익과 안전을 가져왔다.

교통에 있어 고속도로의 건설확대, 주요도로의 포장, 철도수송의 단골, 주요항만의 준설과 해운수송력의 강화 그리고 수도권의 전철화등으로 교통난을 완화하였으며 통신에 있어서는 시내 전화공급율 74.2% (70년현재)를 확보하여 전화보급율은 인구 1,000인당 19대로 신장되고 지방통신망으로 1,842개 우체국, 면단위 통신 1,374회선 도서무선 79회선 농어촌 전화 139,076회선으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방송시설에 있어 <라디오>는 3,186천대로 인구 1,000인당 100대 T.V는 380.6천대로 인구 1,000인당 12대로 보급되고 있다.

보건 의료시설에 있어서는 병원병상수 16,500개로 인구 10,000인당 5.24, 의사수는 14,270인 약사 14,758인 간호원 11,835인으로 선진국수준에 미달하며 주택에 있어서는 그 5.5%의 부족율을 시현하고 있다.

현대사회가 도시화하고 대중화함에 따라 국민들의 의사소통이나 정보교환 문화전달의 영역을 전담하다시피 하는 <매스.콤>이 인간의 정신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현대의 <매스.콤>은 지난날 학교나 가정에서의 교육기능을 많이 취변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매스.콤>은 그사명의 중대성을

제인식하고 사회교육의 기능을 수행하여 국민들의 사고방식과 태도를 전전한 방향으로 개발하고 국가발전에 공동참여의 정신을 길러야 한다.

기히 조사보고된 바와 같이 대중은 <매스. 콤>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라디오> T. V의 보급율은 전술한 바와 같고 신문이나 통신을 발행하는 언론기관수(70년말현재)를 보면 일반지로서 월간지 43개 일간통신 7개 주간 신문 49개 잡지 5개며 월간지 450개 계간 22개 기타간 46개로 합계 396종이 있고 기관지가 각종 379종이 있다. 그발행부수는 격증일로에 있어 신문만 350만부에 달하고 있으나 총발행부수의 3분의 2를 중앙에 소재하는 8대 종합지사가 차지하고 있어 향토지의 육성이 아쉬운 실정이다.

출판문화에 있어서는 69년 출판금고를 창립하였으며 출판사수는 902사로 70년도 발행도서는 2,809종이다.

도서관의 경우는 69년말현재 3,749개소에서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은 58개소뿐이고 특수시설이 119개소 그 밖에는 대학을 비롯한 각급학교도서관이다. 공공시설의 좌석수는 12,400. 장서수는 925,136권에서 국내서적이 801,620권이며 연간 이용자수는 254만. 64인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극장의 경우 연극연예장소는 178,288천인이 입장하였는데 그 시설수는 739개소이다. 그밖에 경마장. 당구장. 배비골프장. 유흥기장등에 입장한 인원은 9,352천인이나 되며 또 골프장 263천인 독탕과 토이기식장에는 678천인이 입장하였다.

금은 보석등 사치성 장신구등의 경우를 보면 71년 6월현재 전국 금은 보석상수는 1,962개소이며 동 1~6월사이의 판매량은 20억

944백만원에 이르러 월평균 3억 5천여만원을 지출하고 있다는 계산이 된다. 그런데 70년도의 총판매액은 36억 6천 7백만원이었다고 한다. 이 수치는 국세청의 조사이므로 실제로 밑수나 가정을 통해 거래되는 암거래등 비정상적인 거래량까지 합치면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문화적 시설에 있어 인문과학·자연과학·문학·화단·영화·음악·연극 무용·및 <매스·콤>의 언론·출판·방송·종교 문화재등의 광범한 부분의 실태를 전부 일시적으로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임으로 이번조사에서는 그중 <매스·콤>부분의 <라디오> TV등의 보유현황 신문 잡지등의 구독과 취미 오락등 여가생활등의 제한된 관찰만을 시도한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나. 문화적 시설과 태도

1. <라디오> TV의 보급과 태도

(1) 보급상황

<매스·콤>시설의 현저한 보급은 근년에 눈부신바 있다.

<라디오>의 소유상황을 보면 형태면의 여하에 불구하고 총 1,836가구중 1,607가구로 87.5%가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인 서울·부산의 경우는 92.7%, 중소도시는 82.8%이며, 농촌의 경우 66.9%가 보유하고 있음이 밝혀 졌다.

(표 7 참조)

T.V의 보유는 도입된지 일천하고 방송국도 국영의 KBS,민영의 TBC,M.B.C등 18개 중계소가 있을뿐이지만 보급이 급진전하여 대도시에 있어서는 50.0%로 유·무가 반반으로 나타나 있으며, 중소도시에 있어서는 23.5%의 보급율을 시험하고 농촌에 있어서는 부산에 가까운 김해에서는 표본가구 160가구중, 24가구가 TV수상

기를 보유하고 있음이 판명되었다.

만일 TV방송의 중계 시설이 보다 확장된다면 멀지않아 농촌 등
벽지에도 상당한 보급이 전망된다. (표 8 참조)

<표 7>

지역별, 라디오 보유현황

항목별	지역별	총 계		대 도시				중 소 도시				농 촌					
		수	%	계	서울	부산		계	광주	원주	김천	계	김해	금능	광산		
총 수		1,836	100.0	1,116	1,000	748	368	400	1,000	200	100	100	320	1,000	160	80	80
있 다		1,607	87.5	1,034	927	709	325	359	698	181	92	87	214	669	104	60	50
없 다		229	12.5	82	73	39	43	41	102	19	8	13	106	331	56	20	30

<표 8>

지역별 T.V. 보유현황

항목별 지역별	총 계		대 도 시				중 소 도 시					농 촌				
	수	%	계	서울	부산	계	광주	원주	김천	계	김해	금능	광산			
총 수	1,636	100.0	1,116	1,000	748	368	400	1,000	200	100	100	320	1,000	160	80	80
있 다	678	36.9	558	50.0	431	127	94	23.5	42	9	43	26	8.1	24	2	-
없 다	1,158	63.1	558	50.0	317	241	306	76.5	158	91	57	294	91.9	135	78	80

70년 8월 20일 부터 10일간 고영복교수의 지도로 서울물리대
및 이화대학의 사회학과에서 서울의 구마다 1가동을 뽑아 인구비
례로 대상자 1,015. 지방도시는 10개 도시를 선정 도시마다 2개
동 1,088을, 농촌은 제주도를 제외한 각도에서 군→면→동 순서로
737동 도합 2,840개 표본에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라디오>보급율이 서울에서 99.6% 지방도시에서도 99.6%, 농
촌에서 98.8%의 보급율을 실현하였다고 하며 <라디오>를 듣는
시간은 하루 한 두시간 듣는 집과 서너시간 듣는 집이 대체로
30%전후로 많으며 이것은 지역별로는 별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2) 태 도

<라디오>와 T.V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에서 "주로
어느<프로그램>을 즐겨들으며. 그 즐겨 듣는 우선순위대로 1.
2.3으로 기입"토록 하였든바 표9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뉴스>에 대한 시청율이 가장 많은데 이것은 도시이던
농촌이던 다른<프로>에 비교하여 월등하게 많은 지적하고 있어
오늘날 정보사회에의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그 다음은 연속물 즐겨 듣는다는 전체적으로 2위로 점하고
"음악"이 3위 "상식"이 4위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연속물"의 방송극이나 낭독같은 것을 중소도시가 대도시
보다도 농촌보다도 많은 사람이 듣고 있다.

< 표 9 >

직역별, 남녀별, 라디오프로별, 청취우선순위분포

항목별	지역별	총 계		합 계				대 도 시					
		계	%	남		여		계	%	서 울		부 산	
				계	%	계	%			남	여	남	여
계	우선순위	1,607	100.0	1,293	100.0	314	100.0	1,034	100.0	563	146	238	87
뉴 스	1	1,078	67.1	949	73.4	129	41.0	639	61.8	392	63	153	31
	2	294	18.3	218	16.7	76	24.2	227	22.0	112	35	54	26
	3	163	10.1	98	7.6	65	20.7	121	11.7	48	35	18	20
	4	63	3.9	26	2.0	37	11.9	38	3.6	11	7	11	9
	5	9	0.6	2	0.2	7	2.2	9	0.9		6	2	1
연 속 물	1	343	21.4	207	16.0	136	43.3	258	24.9	104	80	51	43
	2	598	37.2	489	37.8	109	34.7	373	36.1	111	49	85	28
	3	355	22.1	317	24.5	38	12.1	211	20.4	125	16	60	10
	4	269	16.7	241	18.7	28	8.9	161	15.6	102	18	35	6
	5	42	2.6	39	3.0	3	1.0	31	3.0	21	3	7	
음 악	1	149	9.3	108	8.4	41	13.1	104	10.1	50	20	24	10
	2	401	24.9	304	23.5	97	30.9	243	23.5	125	42	51	25
	3	618	38.4	505	39.1	113	36.0	415	40.1	226	55	104	30
	4	393	24.5	337	26.0	56	17.8	249	24.1	148	24	51	20
	5	46	2.9	39	3.0	7	2.2	23	2.2	14	5	2	2
상 식	1	33	2.1	25	1.9	8	2.5	28	2.7	13	5	9	1
	2	274	17.1	245	19.0	29	9.2	180	17.4	110	18	45	7
	3	404	25.1	325	25.1	79	25.2	251	24.3	144	32	53	22
	4	820	51.0	641	49.6	179	57.0	534	51.6	276	82	123	53
	5	76	4.7	57	4.4	19	6.1	41	4.0	20	9	8	4
기 타	1	8	0.5	7	0.5	1	0.3	7	0.7	5		1	1
	2	36	2.2	35	2.7	1	0.3	11	1.1	8		2	1
	3	70	4.4	52	4.0	18	5.7	37	3.6	19	9	6	3
	4	54	3.4	41	3.2	13	4.2	47	4.5	24	12	10	1
	5	1,439	89.5	1,158	89.6	281	89.5	932	90.1	507	125	219	81

항목 별	지역 별	중 소 도 시									농 촌							
		계	%	광 주		원 주		김 천		계	%	김 해		금 능		광 산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우선 순위	359	100.0	159	22	84	8	53	33	214	100.0	99	5	57	3	40	10	
뉴 시스	1	272	75.8	136	9	78	5	31	13	167	78.0	82	3	45	1	32	4	
	2	45	12.5	14	4	5	3	14	5	22	10.3	11	1	7		1	2	
	3	19	5.3	7	1	1		7	3	23	10.8	5	1	5	2	7	3	
	4	23	6.4	2	8			1	12	2	0.7	1					1	
	5																	
연 속 물	1	58	16.2	7	9	5	3	17	17	27	12.6	10	2	12	2	1		
	2	142	39.5	48	8	58	5	13	10	83	38.8	30	2	22	1	22	6	
	3	80	22.3	48	4	9		15	4	64	29.9	21	1	22		17	3	
	4	72	20.1	49	1	12		8	2	36	16.8	35					1	
	5	7	1.9	7						4	1.9	4						
음 악	1	24	6.7	14	3			5	2	21	9.8	8				7	6	
	2	101	28.1	42	9	14		20	17	57	26.7	28	2	7	2	17	1	
	3	136	37.9	47	4	46	6	19	12	67	31.3	32	2	16		15	2	
	4	84	23.4	44	6	23	2	8	2	60	28.0	22	1	34	1	1	1	
	5	14	3.9	12		1		1		9	4.2	9						
상 식	1	5	1.4	3	1				1									
	2	50	13.9	35	2	7		5	1	44	20.6	23		20			1	
	3	110	30.6	50	9	27	2	11	11	43	20.1	25		14	1	1	2	
	4	179	49.9	62	8	50	6	36	17	107	50.0	35	4	23	2	36	7	
	5	15	4.2	9	2			1	3	20	9.3	16	1			3		
기 타	1	1	0.3	1														
	2	17	4.7	17						8	3.7	8						
	3	16	4.4	8	2	2		1	4	17	8.0	16	1					
	4	1	0.3	1						8	3.7	5				3		
	5	324	90.3	133	20	82	8	51	30	181	84.6	70	4	57	3	37	10	

전시 고교수 조사에서의 즐겨듣는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을 보면 <뉴스>와 날씨가 어느 곳에서도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에서는 ③외국유행음악 ④연속방송극 ⑤스포츠중계 ⑥클래식음악등의 순서이고 지방도시에서는 ③연속방송극 ④대중가요 ⑤시사해설 ⑥스포츠중계의 순서로, 농촌에서는 ③연속방송극 ④대중가요 ⑤농사기술 ⑥시사해설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었다.

T.V의 보급과 <다이얼>선택에서 보면 응답자중 T.V 수상기가 있는집이 서울이 57% 지방도시 23% 농촌이 0.5%미달이었고 집에서 하루에 <텔레비전>을 켜놓는 시간은 서울과 지방도시가 모두 3시간~5시간 사이가 제일 많다.

서울에서는 TBC, MBC, KBS에 대해 "늘 보거나 또는 자주 본다"는 사람이 각각 48%, 42%, 35%로 나타났고 또 "이따금 보거나 거의 안본다"는 사람은 KBS가 23%, MBC가 16%, TBC가 10%로 나타나 있어 방송의 선택의 순서를 보여주고 있었다.

2. 신문구독과 즐겨 읽는기사

(1) 구독상황

세상 소식을 알게 되는 경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라디오>를 통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신문이 그다음으로 <매스 미디어>의 구실을 하고 있다. 즉 표 10에서 보는바와 같이 전체 응답자의 61.2%가 구독하고 있으며 대도시에서 76.8% 중소도시에서 52.8%로 대다수의 시민이 구독하고 있다. 농촌에 있어서는 5.1%에 불과한 극소수의 특수층만이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형편으로 응답자들의 학력별 구성이나 경제적 수준과 관련시킬때 타당한 실정이라고 보겠지만 신문보급을 지방에 역점을 두어 근대화의 앞장서도록 그 기능을 보다 강화해야 될줄로 생각된다.

신문구독에 있어 여자보다는 남자의 경우의 구독율이 월등하게 높아 사회활동의 주된 관심을 표명하는 결과라고 전시 교교수의 조사의 신문구독율을 보면 서울에서는 93%, 지방도시 80% 농촌에서는 40%가 하나이상의 신문을 구독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번 조사에 선택된 응답자의 경우는 매우 저조한 구독율을 시험하고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된다.

또 생활정도별로 보면 상·중류층의 구독율이 높고 하류층에 있어서는 세사람중 두사람이 읽는 정도이며 이러한 경향도 도시보다는 지방으로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구독율이 대단히 낮아지고 있다.

직업별로는 교육자·공무원·회사원·의사·변호사 언론인등의 자유업·금융업등 사무직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읽고 있으며 상업인이 농업종사자나 노동자에 비하면 월등하게 많은 사람들이 구독하고 있으며 무직자의 경우도 상당수가 신문을 구독하고 있다.

종교인과 무종교인과의 구독율도 종교인들이 월등하게 높고, 교육정도별에 있어서도 대졸이상 고학력층의 대부분이 구독하는 반면 학력이 낮을수록 구독율도 점점 떨어지는 경향에 있었다. (표10참조)

(2) 즐겨 읽는 기사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로 어느면을 관심 있게 읽느냐?" 하는 질문에 읽는 우선순위를 1.2.3으로 지적하게 하였다.

그 결과 "정치면의 기사"를 가장 먼저 읽는다는 사람이 단연 우위를 점하고 대도시주민보다는 중소도시주민의 관심도가 높고 또 농촌지역주민은 그보다도 월등하게 관심도가 높아 주목을 끌고 있다. 개발의식정도가 낮을수록 정치에 관심이 많으며 민주주의의

토착화에 대한 인위적인 노력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한단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즐겨 읽는 기사는 "경제면" "사회면"에 비슷한 순위를
보이고 있다. "경제면"을 즐겨 읽는 이유는 이것은 자기생활에
서도 가계운영이나 기업경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치고 또 현저하
기 때문에 관심이 높은 것이며, 그동안 정부가 경제제일주의 개발전
략에 의한 경제성장의 면모와 소득 배분에 양상에 대한 관심의 집
중이라고 풀이된다.

세째가 "사회면"의 기사를 읽는다는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신문이 오랫동안 밝은면보다는 사회의 어두운 마지막으로
꽤 즐겨 읽는 기사는 "문화면"이다. 소득의 상승 생활수준의 향
상에 함 입어 격변하는 사회 국제정세의 급변 그밖에 정신면의
현대적 특징에의 빠른 적응이 불가능하거나 갈등을 겪을 경우와
기술혁신에 따른 인간성의 상실등 매마른 인간미를 찾고 각박한
세정을 달래는 방편으로 문화면의 접촉을 꾀하는 소치라고 할 수
도 있을 것이며 또는 각종 사고의 발생 등을 주로 게재하기
때문에 시민에게 그리 흥미로운 것은 못 된다고 보아 진다. (표 11 참조)

전시 고교수 조사에서 가장 즐겨 읽는 기사는 서울에서는
①정치기사 ②해외기사 ③사설 ④체육기사 ⑤사회면의 순이고, 지방
도시에서는 ①정치기사 ②사설 ③해외기사 ④연재소설 ⑤체육기사의
순이고, 경제기사가 거의 무시당하고 있는데 반해 정치기사에 대한
접촉율이 많은것을 보면 신문이 정치의식의 형성에 크게 작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것 같다.

지역별 남녀별 신문구독상황

지역별 항목별	총 계		대 도 시		중 소		도 시		농		촌	
	수	%	계 수	%	계 수	%	원 주 김 천	계 수	계 수	%	계 수	%
총 수	1,836	100.0	1,116	100.0	400	100.0	100	320	100.0	160	80	80
남	1,464		592				91				76	62
여	372		156		27		9			13	4	18
구 독	1,125	61.2	607	76.8	211	52.8	35	57	5.1	34	10	13
남	926		493				34			33	10	12
여	199		114		11		1			1	-	1
불 독	711	38.8	141	23.2	189	47.2	65	263	94.9	126	70	67
남	538		99				57			114	66	50
여	17		42		16		8			12	4	17

신문각면별, 애독우선순위별, 지역별, 남녀별 분포

항 목 별		지 역 별		총 계		합 계				대 도 시				중 소 도 시								농 촌								
						남		여		계	%	서 울		부 산		계	%	광 주		원 주		김 천		계	%	김 해		금 능		광 산
		계	%	계	%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계	우 선 순 위	1,125	100.0	926	100.0	199	100.0	857	100.0	493	114	192	58	211	100.0	132	11	34	1	20	13	57	100.0	33	1	10		12	1	
정 치 면	1	605	53.8	545	58.9	60	30.1	449	52.4	291	36	106	16	119	56.4	79	3	26	1	8	2	37	64.9	21	1	3		11	1	
	2	242	21.5	193	20.8	49	24.6	192	22.4	100	27	48	17	38	18.0	23	2	4		6	3	12	21.0	6		5		1		
	3	168	14.9	124	13.4	44	22.1	129	15.1	64	24	26	15	34	16.1	19	3	4		6	2	5	8.8	3		2				
	4	91	8.1	53	5.7	38	19.0	69	8.0	27	20	12	10	19	9.0	11	2			6	3	3	5.3	3						
	5	19	1.7	11	1.2	8	4.2	18	2.1	11	7			1	0.5		1													
경 제 면	1	176	15.6	143	15.4	33	16.6	122	14.2	68	14	30	10	46	21.8	27	3	3		7	6	8	14.0	4		4				
	2	372	33.1	317	34.2	55	27.6	295	34.4	182	29	66	18	63	29.9	35	2	12	1	9	4	14	24.6	10		2		1	1	
	3	394	35.0	323	34.9	71	35.7	289	33.7	155	45	70	19	76	36.0	55	5	12		3	1	29	50.9	15	1	4		9		
	4	166	14.8	132	14.3	34	17.1	134	15.7	79	22	24	9	26	12.3	15	1	7		1	2	6	10.5	4				2		
	5	17	1.5	11	1.2	6	3.0	17	2.0	9	4	2	2																	
사 회 면	1	293	26.0	209	22.6	84	42.2	241	28.1	116	53	47	25	41	19.4	25	3	5		5	3	11	19.3	7		3		1		
	2	389	34.6	330	35.7	59	29.1	265	30.9	162	33	54	16	96	45.5	66	5	17		4	4	28	49.1	14	1	3		10		
	3	362	32.2	316	34.1	46	23.1	282	32.9	180	22	66	14	64	30.3	36	3	11	1	8	5	16	28.1	10		4		1	1	
	4	74	6.6	65	7.0	8	4.0	62	7.3	32	5	23	2	10	4.8	5		1		3	1	2	3.5	2						
	5	7	0.6	5	0.6	2	1.0	7	0.8	3	1	2	1																	
문 화 면	1	51	4.5	29	3.1	22	11.0	46	5.3	19	12	9	6	4	1.9		2				2	1	1.7	1						
	2	116	10.3	81	8.8	35	17.6	97	11.3	45	24	21	7	16	7.6	10	2	1		1	2	3	5.3	3						
	3	176	15.6	143	15.4	33	16.6	136	15.9	84	20	24	8	33	15.6	20		5		3	5	7	12.3	5				2		
	4	742	66.0	639	69.0	103	51.8	549	64.1	329	52	131	37	154	73.0	100	7	26	1	16	4	39	68.4	22	1	8		7	1	
	5	40	3.6	34	3.7	6	3.0	29	3.4	16	6	7		4	1.9	2		2				7	12.3	2				3		
기 타 면	1	1	0.1			1	0.5	1	0.1				1																	
	2	6	0.5	6	0.7			6	0.7	3		3																		
	3	19	1.7	14	1.5	5	2.5	17	2.0	8	3	4	2	2	0.9			2												
	4	55	4.9	39	4.2	76	8.1	47	5.5	28	15	4		1	0.5		1					7	12.3	2		2		3		
	5	1,044	92.8	867	93.6	177	88.9	786	91.7	454	96	181	55	208	98.6	132	10	32	1	20	13	50	87.7	31	1	8		9		1

3. 잡지구독과 태도

대한출판문화협회가 70년 10월 2일부터 7일까지 국립중앙공보관에서 가진 전국도서전시회의 관람자중 4,106인을 상대로 독서여론조사를 실시한바 있는데 남자(3,018인)의 경우 단행본을 6~12권 읽는다는 사람이 28% 6권미만이 24%로 나타났고, 여자(1,086인)도 각각 30% 24%로 비슷한 현상이었는데 이는 한달에 단행본 한권도 읽지 않는 사람이 반수이상임을 의미한다. 이것을 세대별로 보면 30대 이후에는 책을 멀리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특히 여자는 30대 이후는 51%가 6권도 안되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주부로서 가정사에 힘을써 틈이 적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잡지류에 있어서는 단행본과는 달리 여자쪽이 남자보다 훨씬 좋아해 남자보다 2할이 많은 60%가 연 12권가량의 잡지를 본다고 했으며, 이들의 하루 독서시간은 1~2시간이 가장 많아 전체의 40%를 상회하고 있음이 밝혀 졌다.

도서의 구입원은 대부분이 서점으로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입비는 500원~1,000원의 수준으로 80%를 점하고, 30대 이후의 남성 23%가 월부제로 구입하고 있는데 반해 20대는 10%정도에 불과하고, 또는 남자는 주로 “광고를 보고” 책을 사는데 여자의 경우는 “남의 권유”로 읽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근래에 많이 읽는 책으로는 남자의 경우 “광복 20년”, “한국전쟁” 등 <논픽션>류가 판을 치고 있는 반면 여자는 “좁은문”, “테스”, “데미안” 등의 외국문학소설을 훨씬 많이 읽고 있으며, 또한 철학 역사 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등 모든 분야의 책이 남자의 독서범위에는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여자는 독서범위가 단연 문학소설쪽으로 어느세대를 막론하고 반이상을 넘고 있다.

도서구입비를 주요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1인당 1년에 100원 정도이고 미국이 4,320원, 영국이 2,000원 일본이 1,730원뿐이라고 한다.

이번 조사에서 “잡지를 읽느냐?” 읽는다면 ① 정기적으로 구독하느냐? ② 가끔 구독하느냐? 고 질문 하였던바,

잡지를 구독하지 않는 사람이 전체의 44.6%였고, 구독하는 사람은 55.4%로 판명되었다.

구독하는 사람가운데 ①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사람이 39.9%에 불과하고 “가끔, 구독”하는 사람이 60%정도였다.

남녀간에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사람은 거의 비슷하고 가끔구독하는율은 여자 보다 남자가 높은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신문의 경우와 같이 대도시주민이 많이 읽고 있으며, 중소도시는 농촌보다는 많이 읽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주민은 네사람 중 한사람이 읽는 정도로 낮은율을 나타내고 있어, 현재 정부가 추진중에 있는 “마을문고” 설치운동이 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12 참조)

<표 12>

지역별, 남녀별 잠지구독 상황

	총 수		대 도 시		중 소 도 시				농 촌				
	수	%	서울	부산	수	%	광주	인천	계 수	%	김해	금능	광산
총 수	1,836	100.0	748	368	400	100.0	200	100	320	100.0	60	80	80
1. 구 독 제	1,017	55.4 (100.0)	(528)	215	183	55.8 (100.0)	92	48	91	28.4 (100.0)	54	23	14
③ 남	822		420	164	152		78	47	86		53	22	11
② 여	195		108	51	31		14	1	5		1	1	3
1) 정기구독	305	(30.0)	154	83	60	(32.8)	44	11	5	8 (8.8)	4	1	3
① 남	244		125	61	50		37	10	3	8	4	1	3
② 여	61		29	22	10		7	1	2	-	-	-	-
2) 가판구독	712	(70.0)	374	132	123	(67.2)	48	37	38	83 (91.2)	50	22	11
① 남	578		295	103	102		41	37	24	78	49	21	8
② 여	134		79	29	21		7	-	14	5	1	1	3
2. 불 구 독	819	44.6	220	153	217	54.2	108	52	57	229	71.6	57	66
① 남	642		172	10	169		95	44	30	199	94	54	51
② 여	177		48	51	48		13	8	27	30	12	3	15

4. 영화감상과 취미 오락

(1) 영화감상

여가생활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근대의 생활감각에
중요시되는 부분으로 어떤사람은 <레저- >, 어떤사람은 <레크리에이
션>이라고 하여 건전한 인간정신을 배양하고 노동력의 보전 내지
재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여가선용의식의 강화에 따라 이에 관련하는 시설은 다양하
다. 대체로 체력증강을 꾀하는 각종<스포츠>와 교외활동, 교육수
준향상과 생활감정의 순화를 위한 취미활동, 복잡한 생활환경이나 부
조리현상등에서 오는 과로를 풀기 위한 관광여행 또는 집단생활을
통한 <레크리에이션>, <라디오> T.V 의<매스.콤> 문화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것 가운데 우선 “영화감상의 빈도”를 측정해 보았다.

즉 “영화구경을 가느냐?”고 질문하고 ① 자주간다. ② 가끔간
다. ③ 안간다 로 구분하여 그 반응을 보았더니 표 13과 같은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영화구경을 가는 사람은 59.6%인데 그중 “자주간
다”는 사람이 26.7%에 불과하다고 “가끔간다”는 사람이 대부분
이다. 물론 응답자가 가계운영에 중책을 맡은 가구주이니까, 취업이
나 가용으로 많은 시간적 제약이 있었고 또한 비용부담의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남녀를 비교해 보면 남자보다는 여성이 영화구경 빈도가 높고 중
소도시주민이 가장 높고, 대도시주민이 그 다음이며, 농촌의 경우는
훨씬 저조하다. 농촌에 있어서는 영화관 같은 시설의 희소성도 문제
가 되지만 관람비용도 상당한 영향을 줄것으로 생각한다.

전시 고교수 조사에서 보면 서울에서는 1년에 대여섯번, 매달 한번정도, 한달에 두번정도 간다는 사람이 각각 20%~25%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고, 지방도시에서는 한달 두번정도, 간다는 사람이 28% 매달 한번 간다는 사람이 22%, 1년에 대여섯번 간다는 사람이 20%로서 비슷한 율을 보였으며, 농촌에서는 1년에 한, 두번 간다는 사람이 35%, 1년에 대여섯번 간다는 사람이 17%였고 한번도 안간다는 사람이 19%였다고 한다. 그리고 좋아하는 영화의 종류로서는 서울에서 ① 애정영화 ② 사극 ③ 전쟁영화 ④ 서부영화 ⑤ 첩보영화의 순이고 지방도시에서는 ① 사극 ② 애정영화 ③ 전쟁영화 ④ 비극영화 ⑤ 서부영화의 순이고 농촌에서는 ① 사극 ② 애정영화 ③ 전쟁영화 ④ 비극영화 ⑤ <코미디> 영화의 순으로 나타나 있어서 사극, 애정영화 전쟁영화는 각지역에서 환영을 받고 있는 반면에 서울에서는 외국영화가 상당히 받아 들여지고 있고, 농촌과 지방도시에 비해 비극영화를 덜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2) 오락의 기호순위

일반적으로 시정에서 시민들이 즐기고 있는 오락을 미리 여덟가지 열거하고 즐기는것 두개씩을 지적하라고 했다. 열거된 오락은 대중적인 것으로 ① 당구 ② <골프> ③ 음악, 미술등의 감상 ④ 바둑 ⑤ 낚시 ⑥ 등산 ⑦ 탁구 ⑧ 수렵등으로 구분하였다. 표 14에서 보는바와 같이 ① 바둑 ② 등산 ③ 음악 미술 등의 예술감상 ④ 낚시 ⑤ 당구 ⑥ 탁구 ⑦ 골프 ⑧ 수렵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타로는 사행행위에 가까운 것이 많이 지적돼 있었다.

남녀별로 보면 남자는 ① 바둑 ② 등산 ③ 낚시등이 가장 많고 여자는 ① 음악 미술등의 예술감상이 집중적으로 가장 많고 ② 등산 ③ 탁구의 순이다.

영화감상 빈도의 지역별, 분포

	총 수		대 수		도 수		시 수		중 수		소 수		도 수		시 수		농 수		촌 수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총 수	1,836	100.0	1,116	100.0	748	100.0	368	100.0	400	100.0	200	100.0	100	100	100	100	320	100.0	80	100
1) 남	1,464				592		266				173		91		57				76	
2) 여	372				156		102				27		9		43				4	
자 주 간 다	292	15.9	135	12.0	80		65		121	30.2	54		37		30		26	8.1	16	
1) 남	252				65		54				48		37		23				15	
2) 여	40				15		11				6		-		7				1	
가 품 간 다	802	43.7	568	50.9	392		176		164	41.0	98		35		31		70	21.9	12	
1) 남	639				313		131				87		30		16				12	
2) 여	163				79		45				11		5		15				-	
안 간 다	742	40.4	403	36.1	276				115	28.8	48		28		39		224	70.0	52	
1) 남	573				214						38		24		18				49	
2) 여	169				62						10		4		21				3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에서는 ① 바둑 ② 등산 ③ 예술감상
④ 낚시 ⑤ 당구 ⑥ 탁구 ⑦ 골프 ⑧ 수련의 순이며, 중소도시에서는 ① 바둑 ② 예술감상 ③ 등산 ④ 낚시 ⑤ 당구 ⑥ 탁구 ⑦ 골프 ⑧ 수련의 순이고, 농촌에서는 ① 바둑 ② 등산 ③ 낚시 ④ 예술감상 ⑤ 당구 ⑥ 탁구 ⑦ 골프 ⑧ 수련의 순으로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도시이던 농촌이던 가장 즐기는 것은 무엇보다도 “바둑”을 좋아하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표. 14 참조)

(3) 여가생활과 태도

주말이 기타의 여가시간에 무엇을 하며 생활하고 있는가 하여 이들의 취향을 알아 보기 위해 ① 등산(산책) ② 여행 ③ 낚시 ④ 바둑 ⑤ 독서 ⑥ TV나 <라디오>의 시청 ⑦ 운동경기구경 ⑧ 기타로 구분하여 그 반응을 보았다.

그 결과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① TV나 <라디오>의 시청이 34.3%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바둑을 둔다 ③ 등산을 한다. ④ 낚시를 한다 ⑤ 독서를 한다 ⑥ 운동경기구경과 여행이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남녀별 취향은 남자는 ① TV나 <라디오>의 시청 ② 바둑 ③ 낚시 ④ 등산 ⑤ 독서 ⑥ 운동경기구경 ⑦ 여행의 순이고 여자에게 있어서는 TV나 <라디오>의 시청율이 47.6%로 거의 반수를 점하고 있으며, ② 독서가 2위로 15.0%, 3위가 9.1%로 나타나 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에서는 ① TV와 <라디오>시청 ② 바둑 ③ 등산 ④ 독서 ⑤ 낚시 ⑥ 운동경기구경 ⑦ 여행의 순이고 중소도시에서는 ① 바둑 ② 낚시 ③ 등산 ④ 독서 ⑤ 여행 ⑥ 운동경기구경 ⑦ TV나 <라디오>의 시청이며, 농촌에서는 ① TV나 <라디오>시청 ② 낚시 ③ 등산 ④ 바둑 ⑤ 독서 ⑥ 여행 ⑦ 운동경기구경의 순으로 돼있다.

<표 14>

오락 기호순위의 지역별 분포

항목별 지역별	총 계		합 계				대 도 시					
	계	%	남		여		계	%	서 울		부 산	
			계	%	계	%			남	여	남	여
계	3,672	100.0	2,928	100.0	744	100.0	2,232	100.0	1,184	316	452	204
1. 당 구	238	6.4	173	5.9	65	8.7	157	7.0	66	2	38	51
2. 골 프	84	2.3	72	2.5	12	1.6	62	2.8	35	3	16	8
3. 예 술 감 상	507	13.8	316	10.8	191	25.7	345	15.5	129	94	82	40
4. 바 독	802	21.8	742	25.3	60	8.1	426	19.1	293	25	95	13
5. 낚 시	451	12.3	434	14.8	17	2.3	250	11.2	156	6	87	1
6. 등 산	634	17.3	502	17.2	132	17.7	398	17.8	180	52	129	37
7. 탁 구	161	4.3	115	3.9	46	6.2	123	5.5	49	22	41	11
8. 수 령	66	1.8	54	1.8	12	1.6	49	2.2	19	-	26	4
9. 기 타	729	20.0	520	17.8	209	28.1	422	18.9	257	108	18	39

항목별 지역별	중 소 도 시								농 촌							
	계	%	광 주		원 주		김 천		계	%	김 해		금 능		광 산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800	100.0	246	54	182	18	114	86	640	100.0	294	26	152	8	124	36
1. 당 구	64	8.0	35		4		15	10	17	2.6			13	1	2	1
2. 골 프	17	2.1	3		11		2	1	5	0.8	5					
3. 예 술 감 상	128	16.0	37	19	27	1	21	23	34	5.3	4	6	16	3		5
4. 바 독	203	25.4	114	17	41	5	31	5	173	27.0	110	5	38		20	
5. 낚 시	112	14.0	66	3	20	2	16	5	85	13.9	36		39		14	
6. 등 산	121	15.1	40	8	37	1	16	17	115	18.0	24	2	36	3	38	12
7. 탁 구	29	3.6	8	1	5	3	3	9	9	1.4	4		4		1	
8. 수 령	14	1.8	2	3	5			4	3	0.5	2					1
9. 기 타	112	14.0	41	13	30	6	10	12	195	30.5	109	13	6	1	49	17

< 표 15 >

지역별, 남녀별 주말 및 여가활동 분포

항목별 지역별	총계		합 계				대 도 시					
	계	%	남		여		계	%	서 울		부 산	
			계	%	계	%			남	여	남	여
계	1,836	100.0	1,464	100.0	372	100.0	1,116	100.0	592	156	226	102
1. 등산을 한다	216	11.8	182	12.4	34	9.1	125	11.2	70	14	33	8
2. 여행을 한다	70	3.8	60	4.1	10	2.7	44	3.9	27	5	9	3
3. 낚시를 한다	207	11.3	196	13.4	11	3.0	107	9.6	61	2	40	4
4. 바둑을 둔다	250	13.6	236	16.1	14	3.8	134	12.0	85	4	40	5
5. 독서를 한다	175	9.5	119	8.2	56	15.0	115	10.3	56	24	25	10
6. 텔레비존이나 라디오를 시청한다	630	34.3	453	30.9	177	47.6	367	32.9	177	75	65	50
7. 운동경기구경한다	69	3.8	69	4.7			58	5.2	44		14	
8. 기 타	219	11.9	149	10.2	70	18.8	166	14.9	72	32	40	22

항목별 지역별	중 소 도 시								농 촌							
	계	%	광 주		원 주		김 천		계	%	김 해		금 능		광 산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400	100.0	173	27	91	9	57	43	320	100.0	147	13	76	4	62	18
1. 등산을 한다	43	10.8	26	4	8		4	1	48	15.0	1		17		23	7
2. 여행을 한다	12	3.0	7	1	3		1		14	4.4	9	1	4			
3. 낚시를 한다	50	12.5	33	1	10	1	3	2	50	15.6	6	1	37		6	
4. 바둑을 둔다	83	20.8	58	3	10		11	1	33	10.3	21		10	1	1	
5. 독서를 한다	37	9.2	6	4	11	2	9	5	23	7.2	9	7	2	3	1	1
6. 텔레비존이나 라디오를 시청한다	125	1.2	23	6	37	5	27	27	138	43.1	90	4	3		31	10
7. 운동경기구경한다	10	2.5	7		2		1		1	0.3	1					
8. 기 타	40	10.0	13	8	10	1	1	7	13	4.1			3			

특기할 만 한것은 대체로 도비를 막론하고 TV와<라디오>의 시청
율이 높아 가정내에서 휴식하는 상태의 사람이 많다고 할 수 있으
며, 여기에 “바둑”하는 사람, “독서”하는 사람을 합치면 대다수의
사람이 주말이나 기타 여가를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다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TV이나 <라디오>의 방송의 내용이 보다
충실해야하고, 사회교육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줘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서 “여행을 하거나 등산을 가는” 경우 동반자로 가족
이 좋다거나 친구와 더불어 간다거나 혹은 혼자서 간다거나 그런 경
우의 의식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질문하였던바 표 16과 같이

① “가족과 함께 간다”는 사람이 39.3%로 가장 많고 ② “친
구와 함께 간다”는 사람이 28.0%로 그 다음이고 ③ 기타 18.5%
④ “혼자서 간다”는 사람도 14.2%나 된다.

여성의 경우 가족과의 동반이 43.3%로 월등하게 많고, 지역별로
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43.0%로 압도적 다수가 가족동반을 회
망하고 있는데 반해 농촌지역에서는 21.9%뿐이다. 그러나 “친구
와 함께 간다”는 사람은 도시에 비해 농촌이 월등하게 많다.

물론 도시주민은 가족의 단위가 1~2대 즉 핵가족이 많고, 개방
적인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가족동반이 무난한 상황이지만 농촌에서는
아직도 전통적인 대가족제하에서 주민의 희소성 때문에 가족동반이 그
리 흔한 현실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지난 70년도 연말에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를 “가족과 함
께 보내자”는 운동이 전개된바 있었다.

그때 <샐러리맨>부부들이 “휴일보내기”를 알아 보았더니 “집에

서 한다”는 사람이 92%로 그들의 하는일은 ① 낮잠을 잔다.
② 아이들과 논다 ③ TV나 <라디오>를 시청한다. ④ 가사를
조력한다 ⑤ 독서를 한다는 순이었다.

휴일에 반갑지 않은 방문객이 제일 싫다는 사람이 32%, 일때문
에 직장에 나가는 것이 싫다는 사람이 그 다음으로 20%나 되었
다고 한다. 그리고, 외출이 좋다는 사람이 24%나 있었고, 일요일
의 스케줄의 결정권은 ① 남편이 32%, ② 아내가 24%, ③ 아이
들이 20% ④ 다수의 의견을 좇는다는 사람은 8%에 불과 했다.

이런것으로 미루어 남편측은 “오직 폭 쉬고 싶다”는 것이며
부인측에서는 “집안일을 도와 달라”는 의견으로 집약할 수가 있었
다.

< 표 16 >

여행 및 등산시의 동반자별, 지역별, 남녀별 분포

항목별 지역별	총 계		합 계				대 도 시					
	계	%	남		여		계	%	서 울		부 산	
			계	%	계	%			남	여	남	여
계	1,836	100.0	1,464	100.0	372	100.0	1,116	100.0	592	156	226	102
1. 가족과함께간다	722	39.3	561	38.3	161	43.3	480	43.0	260	85	94	41
2. 혼자서 간다	260	14.2	235	16.1	25	6.7	130	11.6	72	3	47	8
3. 친구와 간다	513	28.0	437	29.8	76	20.4	280	25.1	162	31	65	22
4. 기 타	341	18.5	231	15.8	110	29.6	226	20.3	98	37	60	31

항목별 지역별	중 소 도 시								농 촌							
	계	%	광 주 원 주 김 천				계	%	김 해 금 능 광 산				계	%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400	100.0	173	27	91	9	57	43	320	100.0	147	13	76	4	62	18
1. 가족과함께간다	172	43.0	80	9	43	2	19	19	70	21.9	24	2	16		25	3
2. 혼자서 간다	36	9.0	16	4	5		9	2	94	29.4	37	1	35	2	14	5
3. 친구와 간다	119	29.8	53	4	30	1	24	7	114	35.6	64	1	17	1	22	9
4. 기 타	73	18.2	24	10	13	6	5	15	42	13.1	22	9	8	1	1	1

3 항 종교생활과 가정의해

가. 일반적인 개황

현대사회가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의 가치 하락이라고 한다. 비인간화의 현상은 전통적 사회에서 근대화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주체성의 상실, 저항의식의 결핍, 목적 실현의 실패로 대다수 인간이 수단화되고 무력화될 때, 물량적 존재로 전락할 때, 도시, 농촌의 소득격차, 빈부간의 격차등의 동적인 상황속에서 유발되고 촉진되기도 한다.

자아의 상실과 인간의 상품화, 신으로부터의 격리 현상으로 현대인은 비인간화에의 과정으로 치닫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 가치 체계는 전도 현상을 빚어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의 양단과 분리, 고질화된 부정 부패, 정치적 불안등이 겹쳐 이와같은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흔히들 진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현상은 대인간 관계에서의 악순환을 되풀이 하여 현대인의 정신상태를 더욱 더 혼란하게 만든다. 말하고 “인간은 바야흐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는 제2의 원죄속으로 떨어져 가고 있다”고 지적하는 이도 있고 “탐욕, 증오, 무지등 세가지 불선근속에 현대인은 파묻혀 있다”고 하는 이도 있고 “현대인은 사회에 대한 기본적 확신, 적절한 경쟁의식, 불안 극복의 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진단한 사람도 있다.

이러한 현대의 정신적 상황속에서 종교가 받아야 할 기능은 기대되는 바 크다고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나 이와같은 인간정신의 불건강상태를 치유하기에는 종교자신이 지니고 있는 모순점이 너무나 많아서 제대로의 기능을 다할 수 없는 지경에 있다고 개

탄한다.

한국 종교의 현황을 보면 민간신앙, 고유종교, 외래교, 신흥종교(사교포함)가 뒤섞여 있으며, 종교의 이러한 다양성은 국민의 정신적 통일을 저해해 왔으며, 그뿐만 아니라 교파의 분열현상, 형식주의, 전근대화, <샤머니즘>화, 사교화, 타락화, 성직자와 일반신주와의 격리현상등은 일반교인과 비교인들의 눈에 종교가 회색 빛갈로 보이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가 과연 구속과 사회통합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고, 인간의 비뚤어진 정신상태를 바로 잡을 수 있는냐 하는것은 의문시되고 있다.

현실적 여건이 아무리 어렵고 한계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종교는 현실을 더욱 뚜렷이 파악하고 그속에 파고 들어가 방부제의 역할을 쉬지 않고 계속해 나가야 될 것이다.

우리나라 종교인구가 전인구의 10분의 1을 맴돌고 있다는 통계를 볼때 종교가 국민의 정신생활을 지배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68년도의 “한국인의 가치관” 조사 대상 8,426명중 종교인은 4,894명으로 58%를 점하고 있으나 “질문사항”부처님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사회나 국가 또는 이웃을 위해 더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데 “그렇다”고 종교의 역할을 긍정한 사람은 2,946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5%에 불과하여 주목을 끌었다. 그리고 종교를 신앙하는 이유를 물었던바, “자기가 참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는다는 사람이 26.6%로 수위를 점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떠나 마음의 평안과 위안을 받기 위해서” 믿는 사람이

26%로 2위, “집안이 무병하고 잘되어 나가기 위해서”가 16.6%로 3위였다.

이상과 같이 “자기가 참된 사람이 되기 위해 믿는다”는 사람이외는 대체로 미신, 육신 등의 저급한 신앙이나 유사종교와 같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 종교가 적극적으로 인간의 완성과 사회에 기여하는 신념으로서의 종교라기 보다 어지러운 현실을 떠나 마음의 평안만을 구하는 현실 도피의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유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제도에 있어서의 관혼상제등의 가정의례 생활은 미풍양속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난 인륜대사라고 하여 마치 그것이 도덕의 전통적인 표시인듯한 관습으로 가정 경제에 너무 큰 부담을 주어왔다.

그러나 오래된 관습을 하루 아침에 고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지난 69년 3월 5일 “가정의례준칙”을 선포하고 의례생활을 간소화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국립보건원이 조사한 “장의실태”의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인 평균 장례비는 79,800 원으로 연간 사망자 30 만명의 장례에 국민총생산의 1%에 해당하는 240 억원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혼례, 제례 회갑연등의 비용을 합친다면 국민경제에 별로 보람을 주지 않는 의례비는 천문학적 수자가 될 것이다.

가정의례준칙이 선포된지 벌써 2년이 지났지만 그 보급이 얼마나 되었으며, 또 어떻게 받아 들여지고 있는지를 알아 보았다.

나. 종교생활

전술한 바와 같이 이번조사에 응한 대상자중 종교를 가진 사람은 928 인으로 전체의 55.4%에 불과 하였다. 이들의 종교생활에 대한 태도를 보면 표17과 같이 “집회가 있을때마다 거의

나간다”는 사람은 19.6%에 불과 하였으며, 또 “안간다” 혹은 “기타”로 신앙은 가지고 있으나 실생활에서 유야 무야한 사람이 무려 29.2%에 달하고 있어 주목을 끌었다.

“가끔 나간다”는 사람이 27.0%, “중요행사때만 나간다”는 사람이 24.2%로 적극적인 신앙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신앙과 늘 유대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신앙활동이 남정보다는 여성이 훨씬 더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집회에 참석하는 빈도에서 중소도시주민이 보다 열심히 참석하고 있다. ① 집회가 있을때마다 거의 나간다 26.4% ② 가끔 나간다 21.9% ③ 중요행사때만 나간다 26.4% 등을 합치면 전체의 74.7%가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비율은 대도시와 농촌의 경우가 비슷하나 농촌에서 ① 집회마다 나가는율이 9.8%로 낮은데 반해 ② 중요 행사때만 나간다는 사람이 34.4%나 되고 있다. (표 17 참조)

이와 같은 적극적인 신앙생활의 태도는 68년 조사에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긍정한 사람의 35%에 불과한 예와 관련지워 볼때 타당한 상황이라고 보여 진다. 그리고 종교를 신봉하는 이유에 있어서도 종교가 지닌 사명감보다는 현실 도피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현대인은 종교를 “과거의 유물”로 생각하는것이 상식화되고 보편화되고 있다. 제래의 종교가 인간의 신격화라든지 실제적인것 보다 이상적인것만을 추구한 것등은 현대인이 종교와 떨어진 이유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종교인들은 인간화(Humanization)라는 문제에 관심을 모아야 한다. 오늘날과 같이 다원화사회, 기계문명의 틈바귀속에서 인간본연의 자세를 찾으려는 꾸준한 노력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3. 종교생활과 가정의례

가. 일반적인 개황

현대사회가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의 가치 하락이라고 한다. 비인간화의 현상은 전통적 사회에서 근대화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주체성의 상실, 저항의식의 결핍, 목적 실현의 실패로 대다수 인간이 수단화되고 무력화될 때, 물량적 존재로 전락할 때, 도시, 농촌의 소득격차, 빈부간의 격차등의 동적인 상황속에서 유발되고 촉진되기도 한다.

자아의 상실과 인간의 상품화, 신으로부터의 격리 현상으로 현대인은 비인간화에의 과정으로 치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 가치 체계는 전도 현상을 빚어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의 양단과 분리, 고질화된 부정 부패, 정치적 불안등이 겹쳐 이와같은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흔히들 진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현상은 대인간 관계에서의 악순환을 되풀이 하여 현대인의 정신상태를 더욱 더 혼란하게 만든다. 말하고 “인간은 바야흐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는 제2의 원죄속으로 떨어져 가고 있다”고 지적하는 이도 있고 “탐욕, 증오, 무지등 세가지 불선근속에 현대인은 파묻혀 있다”고 하는 이도 있고 “현대인은 사회에 대한 기본적 확신, 적절한 경쟁의식, 불안 극복의 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진단한 사람도 있다.

이러한 현대의 정신적 상황속에서 종교가 받아야 할 기능은 기대되는 바 크다고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나 이와같은 인간정신의 불건강상태를 치유하기에는 종교자신이 지니고 있는 요순점이 너무나 많아서 제대로의 기능을 다할 수 없는 지경에 있다고 개

탄한다.

한국 종교의 현황을 보면 민간신앙, 고유종교, 외래교, 신흥종교(사교포함)가 뒤섞여 있으며, 종교의 이러한 다양성은 국민의 정신적 통일을 저해해 왔으며, 그뿐만 아니라 교파의 분열현상, 형식주의, 전근대화, <샤마니즘>화, 사교화, 타락화, 성직자와 일반신주와의 격리현상등은 일반교인과 비교인들의 눈에 종교가 회색 빛갈로 보이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가 과연 구속과 사회통합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고, 인간의 비뚤어진 정신상태를 바로 잡을 수 있느냐 하는것은 의문시되고 있다.

현실적 여건이 아무리 어렵고 한계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종교는 현실을 더욱 뚜렷이 파악하고 그속에 파고 들어가 방부제의 역할을 쉬지 않고 계속해 나가야 될 것이다.

우리나라 종교인구가 전인구의 10분의 1을 뺄고 있다는 통계를 볼때 종교가 국민의 정신생활을 지배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68년도의 “한국인의 가치관” 조사 대상 8,426 명중 종교인은 4,894 명으로 58 %를 점하고 있으나 “질문사항” 부처님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사회나 국가 또는 이웃을 위해 더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하는데 “그렇다”고 종교의 역할을 긍정한 사람은 2,946 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5 %에 불과하여 주목을 끌었다. 그리고 종교를 신앙하는 이유를 물었던 바, “자기가 참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는다는 사람이 26.6 %로 수위를 점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떠나 마음의 평안과 위안을 받기 위해서” 믿는 사람이

26.6%로 2위, “집안이 무병하고 잘되어 나가기 위해서”가 16.6%로 3위였다.

이상과 같이 “자기가 참된 사람이 되기 위해 믿는다”는 사람이외는 대체로 미신, 육신 등의 저급한 신앙이나 유사종교와 같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 종교가 적극적으로 인간의 완성과 사회에 기여하는 신념으로서의 종교라기 보다 어지러운 현실을 떠나 마음의 평안만을 구하는 현실 도피의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유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제도에 있어서의 관혼상제등의 가정의례 생활은 미풍양속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난 인륜대사라고 하여 마치 그것이 도덕의 전통적인 표시인듯한 관습으로 가정 경제에 너무 큰 부담을 주어왔다.

그러나 오래된 관습을 하루 아침에 고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지난 69년 3월 5일 “가정의례준칙”을 선포하고 의례생활을 간소화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국립보건원이 조사한 “장의실태”의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인당 평균 장례비는 79,800원으로 연간 사망자 30만명의 장례에 국민총생산의 1%에 해당하는 240억원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혼례, 제례 회갑연등의 비용을 합친다면 국민경제에 별로 보람을 주지 않는 의례비는 천문학적 수지가 될 것이다.

가정의례준칙이 선포된지 벌써 2년이 지났지만 그 보급이 얼마나 되었으며, 또 어떻게 받아 들여지고 있는지를 알아 보았다.

나. 종교생활

전술한 바와 같이 이번조사에 응한 배상자중 종교를 가진 사람은 928인으로 전체의 55.4%에 불과 하였다. 이들의 종교생활에 대한 태도를 보면 표17과 같이 “집회가 있을때만다 거의

나간다”는 사람은 19.6%에 불과 하였으며, 또 “안간다” 혹은 “기타”로 신앙은 가지고 있으나 실생활에서 유야 무야한 사람이 무려 29.2%에 달하고 있어 주목을 끌었다.

“가끔 나간다”는 사람이 27.0%, “중요행사때만 나간다”는 사람이 24.2%로 적극적인 신앙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신앙과 할 유대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신앙활동이 남정보다는 여성이 훨씬 더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집회에 참석하는 빈도에서 중소도시주민이 보다 열심히 참석하고 있다. ① 집회가 있을때마다 거의 나간다 26.4% ② 가끔 나간다 21.9% ③ 중요행사때만 나간다 26.4%등을 합치면 전체의 74.7%가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비율은 대도시와 농촌의 경우가 비슷하나 농촌에서 ① 집회마다 나가는율이 9.8%로 낮은데 반해 ② 중요 행사때만 나간다는 사람이 34.4%나 되고 있다. (표 17 참조)

이와 같은 적극적인 신앙생활의 태도는 68년 조사에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긍정한 사람의 35%에 불과한 예와 관련지워 볼때 타당한 상황이라고 보여 진다. 그리고 종교를 신봉하는 이유에 있어서도 종교가 지닌 사명감보다는 현실 도피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현대인은 종교를 “과거의 유물”로 생각하는것이 상식화되고 보편화되고 있다. 제래의 종교가 인간의 신격화라든지 실제적인것 보다 이상적인것만을 추구한 것등은 현대인이 종교와 멀어진 이유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종교인들은 인간화(Humanization)라는 문제에 관심을 모아야 한다. 오늘날과 같이 다원화사회, 기계문명의 틈바귀속에서 인간본연의 자세를 찾으려는 꾸준한 노력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표 17>

지역별 남녀별 종교인의 종교집회참석 빈도분포

지역별 항목별	총 계		합 계				대 도 시					
	계	%	남		여		계	%	서울		부산	
			계	%	계	%			남	여	남	여
계	928	100.0	717	100.0	211	100.0	587	100.0	295	77	155	60
1. 집회가있을때 마다거의나간다	182	19.6	133	18.5	49	23.2	119	20.3	61	20	25	13
2. 가끔나간다	251	27.0	206	28.7	45	21.3	170	29.0	99	9	43	19
3. 중요행사때만 나간다	225	24.2	173	24.2	52	24.6	122	20.7	64	12	32	14
4. 안 간 다	195	21.1	158	22.0	37	17.6	132	22.5	63	24	39	6
5. 기 타	75	8.1	47	6.6	28	13.3	44	7.5	8	12	16	8

지역별 항목별	중 소 도 시								농 촌							
	계	%	광주		원주		김천		계	%	김해		금능		광산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178	100.0	52	14	41	5	39	27	163	100.0	52	11	51	4	32	13
1. 집회가있을때 마다거의나간다	47	26.4	18	9	5	4	10	1	16	9.8	13	2	1			
2. 가끔나간다	39	21.9	12	3	13		7	4	42	25.8	13	6	10	2	9	2
3. 중요행사때만 나간다	47	26.4	15	1	7		12	12	56	34.4	3	1	23	2	17	10
4. 안 간 다	26	14.6	5		8		7	6	37	22.7	17		15		4	1
5. 기 타	19	10.7	2	1	8	1	3	4	12	7.3	6	2	2		2	

다 . 가정의례 생활

정부가 69년에 제정한 가정의례준칙이 보급된지 약 2년
반이 경과되었으나 그 자체를 모른다는 사람이 아직도 18.4%나
있다 . 특히 여성의 경우는 남성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
으며 , 대도시의 주민이 중소도시의 주민보다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것으로 나타나 있다 . (표 18 참조)

< 표 18 >

가정의례준칙의 보급 지역별 , 남녀별 분포

지역별 항목별	총 수		대 도시				중 소 도시				농 촌					
	수	%	계		서 울	부 산	계		광 산	원 주	김 천	계		김 해	금 능	광 산
			수	%			수	%				수	%			
총	1,836	100.0	1,116	100.0	748	368	400	100.0	200	100	100	320	100.0	160	80	80
1) 남	1,464		858		592	266	321		173	91	57	285		147	76	62
2) 여	372		258		156	102	79		27	9	43	35		13	4	18
안	1,499	81.6	908	81.4	622	286	347	86.8	177	85	85	244	76.3	102	66	76
1) 남	1,233		725		506	219	285		160	77	48	223		99	64	60
2) 여	266		183		116	67	62		17	8	37	21		3	2	16
모 른 다	377	18.4	208	18.6	126	82	53	13.2	23	15	15	76	23.7	58	14	4
1) 남	231		133		86	47	36		13	14	9			48	12	2
2) 여	106		75		40	35	17		10	1	6			10	2	2

가정의례준칙의 제정 실시를 알고 있는 사람 1,499인중에서도, 실천 여부에 대해서는 표 19와 같이 극히 저조하여 “정한대로 실천한다”는 11.6%에 불과하고, “그대로 하지는 않으나 간소화한다”는 사람은 72.1%로 나타나고 있어 매우 다행스러운 현실이라고 보아진다.

그동안 정부나 민간단체에서 종래의 관혼상제등에 지나친 폐단에 대하여 이해와 설득을 꾸준히 계속해 온 결과가 주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상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습을 탈피하기 어려운 농촌지역에서 가정의례생활에 있어서 간소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는 것은 더욱 더 놀라운 일이다. 여기에 조금더 의례생활의 간소화 운동을 장려한다면 보다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간소화한다고 해서 자기현실을 무시하고 지나쳐서 인생까지 무시되어서는 안될것이다. 옛말에도 “稱家之 有無”라는 말이 있듯이 자기의 현실적인 생활의 정도를 감안하여 치루어 갈줄 알아야 한다.

<표 19>

가정의례준칙 알고있는자의 실천상황 분포

지역별 항목별	총 계		합 계				내 도 시					
	계	%	남		여		계	%	서울부 산			
			계	%	계	%			남	여	남	여
계	1,499	100.0	1,233	100.0	266	100.0	908	100.0	506	116	219	67
1. 정한대로 실천한다.	174	11.6	146	11.8	28	10.5	113	12.4	59	12	36	6
2. 그대로 하지는 않으나 간소화한다.	1,082	72.1	896	72.7	186	69.9	652	71.8	375	78	151	48
3. 잘물라서 못지킨다.	21	1.4	12	1.0	9	3.4	17	1.9	7	8	1	1
4. 우리관습대로 한다.	185	12.3	156	12.6	29	10.9	97	10.7	57	12	21	7
5. 전연관심밖의 일이다.	37	2.4	23	1.9	14	5.3	29	3.2	8	6	10	5

지역별 항목별	중 소 도 시								농 촌							
	계	%	황 주		원 주		김 천		계	%	김 해		금 능		광 산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347	100.0	160	17	77	8	43	37	244	100.0	99	3	64	2	6	16
1. 정한대로 실천한다.	50	1.4	17	5	17		7	4	11	4.5	3		6	1	1	
2. 그대로 하지는 않으나 간소화한다.	234	67.4	108	8	54	7	27	30	196	80.3	73	3	53	1	4	11
3. 잘물라서 못지킨다.	1	0.3	1						3	1.3	1		2			
4. 우리관습대로 한다.	58	16.7	34	4	5		12	3	30	12.3	22		3		2	3
5. 전연관심밖의 일이다.	4	1.2			1	1	2		4	1.6					2	2

라. 제사관

제사는 조상 숭고사상의 상징으로서 우리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끼쳐 왔다. 그러나 오늘날 근대화에 따라 이 조상 숭배사상도 많이 변화하게 되었고 따라서 제사의 양식도 많이 간소화되었다.

이러한 제사 자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 보았다.

그 결과 ①“제사도 지내고 성묘도 한다”는 사람이 52.8%로 과반수를 상회하고 있으며, ②“제사만 지낸다”는 사람도 22.1%나 되며, ③“성묘만 지낸다”는 반응도 7.4%나 있었고, ④제사나 성묘등 “둘다 지키지 않는다”는 사람이 15.3%나 되어 제례를 상관치 않는층의 사람도 상당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표 20 참조)

총래의 우리의 관습대로 제사도 지내고 성묘도 하는 전통적인 생활을 답습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도시주민보다는 중소도시주민이 훨씬 더 많고, 또 더욱 많이 남아 있는곳은 농촌지역으로 무려 71.9%나 된다.

68년도 조사결과에 보면 ①“제사도 지내고 성묘도 가야 한다”는 사람이 40.9%, ②“간단한 추념식만 갖는 것이 좋다”는 사람이 39.7%나 있었다.

< 표 20 >

제례 실시 방법별, 지역별, 남녀별 분포

항 목 별	지 역 별		총 계				합 계				대 도 시			
			총 계		남		여				대 도		시	
			계	%	계	%	계	%	계	%	남	여	남	여
계			1,836	100.0	1,464	100.0	372	100.0	1,116	100.0	592	156	226	102
1. 제사도지내고 성묘도한다			969	52.8	797	54.4	172	46.2	501	44.9	268	56	129	48
2. 제사만지낸다			406	22.1	310	21.2	96	25.8	266	23.8	132	40	64	30
3. 성묘만지낸다			135	7.4	108	7.4	27	7.3	93	8.4	51	10	22	10
4. 둘다지키지 않는다			281	15.3	223	15.2	58	15.6	219	19.7	129	40	41	9
5. 기 타			45	2.5	26	1.8	19	5.1	37	3.1	12	10	10	5

항 목 별	지 역 별		중 소 도 시								농 촌							
			총 계		광 주		원 주		김 천		총 계		김 해		금 능		광 산	
			계	%	남	여	남	여	남	여	계	%	남	여	남	여	남	여
계			400	100.0	173	27	91	9	57	43	320	100.0	147	13	76	4	62	18
1. 제사도지내고 성묘도한다			238	59.4	122	16	48	4	22	26	230	71.9	117	10	39		52	12
2. 제사만지낸다			87	21.8	29	7	23		17	11	53	16.6	3		32	2	10	6
3. 성묘만지낸다			28	7.0	7		2		15	4	14	4.4	9	3	2			
4. 둘다지키지 않는다			43	10.8	14	2	17	5	3	2	19	5.9	18		1			
5. 기 타			4	1.0	1	2	1				4	1.2			2	2		

4 항 금전사용과 태도

가. 일반적인 개황

오늘날 우리 한국의 정신적 상황은 . 세계적인 조류의 영향을 받아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공통적인 가치관의 특색인 관능적 쾌락을 숭상하는 경향이 현저하다 . 지난날 금욕주의가 전파되고 관능적 쾌락을 앞세우지 못하다가 빈번한 전쟁등 근래에 밀려든 자유화의 물결은 마침내 현대의 쾌락주의를 낳게하여 “이성적 존재” 내지 “정신적 존재”라고 믿었던 인간의 위치에 큰 변동을 이르게했으며, <르네상스>이후의 “개인주의”가 현실적인 사회생활에서 실천적으로 반영되었을때 그 본래의 이념 속에 깃들었던 공정과 배타의 정신은 그들에 묻히고 이기주의적 사고방식 내지 행동양식으로 변질시켰던 것이다 .

관능적 쾌락을 누리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것은 재물이다 . 쾌락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재물을 추구함에 있어서 무제한한 자유경쟁이 가색한곳에 이기주의의 풍토가 조성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닐 수 없다 . 이러한 이기주의적 사고방식은 사람들의 행동을 관능적 쾌락의 추구에 부채질 하였다 .

쾌락주의와 이기주의의 결합은 황금만능주의적 풍토를 초래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재물을 탐내지 않고 안빈락도하던 전통적 가치관과는 상반된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에 갈등을 겪게 하였다 .

따라서 쾌락주의자에게는 “돈”이 거의 절대적인 의미를 갖게 되고 이 “돈”을 에워싼 경쟁은 무자비한 양상을 띄게 되었으며, “돈”을 벌기 위해서 사용한 수단이나 과정은 문제삼지 않고 다만 결과에 있어서 “돈”만 많이 얻으면 훌륭한 인간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기풍이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발견되고

있다 .

그러나 관능적 쾌락보다는 인격의 수양을 존중하고 나 한 개인보다도 나의 친족과 친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금전보다도 의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믿는 전통적 관념도 상당히 강한 인상을 그리고 남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당위적 관념으로 남아 있는 것이며, 실천적 행동의 능력으로서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같이 우리의 당위적 관념과 행동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경제력이 빈곤한 반면에 인구의 밀도가 높고, 동족끼리의 생존경쟁도 치열한 풍토에서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기주의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의 지배로 본의를 배반하고 부정 및 부패와 타협하기 쉽다.

우리는 오늘의 사회현실속에 여러가지 불건전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불건전한 현상의 일부분이 관능적 쾌락 또는 “돈”을 으뜸으로 여기고 이를 이기적으로 추구하는 일반적인 풍조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근래의 태도조사에 의하면 사업을 하기 보다 편안히 살겠다면지 혹은 투자하거나 예금하기 보다는 안전한 토지, 주택, 보석 같은 것에 투자하려는 태도가 강한것을 알수 있었다.

즉 고려대 홍승적교수의 “경제발전과 가치관의 문제 발전론 서설”(P.98)에 의하면 “기대하지 않던 돈 100만원이 생겼을때 어느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① 금이나 토지같은 것을 산다. ② 은행에 저축한다. ③ 자선사업을 한다. ④ 대부하여 주고 이자를 받는다. ⑤ 영리사업을 한다. ⑥ 기타로 구분하여 지적하게 하였던바 다음표와 같은 경향으로 파악되

었다고 한다.

물론 현행 금융제도의 모순이나 사회안정의 여부, 같은 갖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을 것이며, 동시에 시민의 모험성향이나 합리성의 결여도 문제가 되고 있을 것이다.

금 전 사 용 관

사형별 인구총	총 수	금, 토지 산 다	대 부 한 다	은행에 저축한다	영 리 사 업	자 선 사 업	기 타	무응답
농 (민)	100.0 %	43.75	2.27	14.77	9.66	29.55	0.00	0.00
기 업 인	100.0 %	5.36	0.38	4.21	39.08	47.89	1.53	1.53
교 수	100.0 %	20.41	1.02	15.56	18.37	41.07	2.30	1.28

나. 저축의 목적

가계에 있어서는 나라 전체의 살림에 있어서는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국민이 알뜰하게 저축을하고 그것을 생산적인 사업에 투자하도록 사용하는 일이다.

이번 조사에서 지난달 수입된 돈을 가계를 위하여 어떻게 쓰셨는지 주요비목을 열거한 다음 저축 여부를 도출하여 이를 다시 저축하는 목적으로 집약시켰다.

즉 “저축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힌다면 ① 병질이나 예기치 못한 화재에 대비하기 위하여 ② 자녀들의 교육비 마련을 위하여 ③ 자녀들의 결혼비용을 위하여 ④ 주택이나 토지를 장만하기 위하여

여 ⑤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⑥ 기타로 구분하여 그 반응을 보았다.

우선순위(Ⅰ)에 있어서는 ① 자녀들의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한다는 반응이 39.6% ② 질병이나 예기치 못하는 화재에 대비한다는 반응이 33.5% ③ 주택이나 토지를 마련한다는 반응이 16.1% ④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한다는 반응 5.8% ⑤ 자녀들의 결혼비용을 마련한다는 반응은 4.2%로 나타났다.

우선순위(Ⅱ)에 있어서도 비율의 분포는 약간 다르지만 순위별로 보면 우선순위(Ⅰ)과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우선순위(Ⅲ)에 있어서는 ① 자녀들의 결혼비용의 준비가 29.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준비이고, ③, 주택이나 토지를 장만한다... ④ 질병이나, 불여의 화재에, 대비한다는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때 대체로 가구주가 저축하는 목적에서 ① 자녀들의 교육비가 큰문제로 부각되는 바 오늘날 교육의 양적 확대와 고학력주의에 따른 학부형들의 중요한 걱정거리는 자녀들을 훌륭하게 기르고 잘 교육시킨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향을 남녀별로 비교하면 남자의 경우 “자녀의 교육비”가 1위인데 반해 여자에 있어서는 “질병이나 불여의재해”에 대한 대비가 가장 큰관심사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 중소도시는 “자녀의 교육비”가 우선하고 농촌에 있어서는 “질병과 불여의 재해 대비”가 우선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표21 참조)

70년 6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월 5만원이상의 중간소득층 표본300인을 대상으로 저축성향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저축을

하지 않는자가 무려 45.6%나 되었고 그이유로 ① 저소득으로 인하여 저축을 못한다는 사람이 89.7%나 되었으며, ② 높은 소비 때문에 혹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저축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10.3%나 되었다. 그리고 매월 저축을 하기는해도 소득액의 10%정도에 불과하다는 사람이 대부분 이었고,

그들의 저축하는 방법으로는 ① 예금한다는 사람이 73.8% ② 계를 한다는 18.5% ③ 부동산 투자가 4.6%로 나타나고 있었다 한다.

월수입 5만원이상이면 도시근로자 가구 전도시 평균 소득액 32,120원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소득인데 반해 저축하는율이 너무 낮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8년도 조사에서는 “만약 생각하지도 않았던 돈 100만원이 생겼다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① “자선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30.9%로 가장 많았고 ② “은행에 저축한다”는 사람이 23.8%, ③ “영리사업을 한다”는 의견이 19.9%의 비율을 보였다.

돈이 100만원 밖에 안된다는 제한때문에 의견 반영에 무리가 따르기는 하였지만 비교적 건전한 사고방식이라고 풀이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저축”과 “영리사업”은 결과적으로 어떤 기업에의 투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진다.

<표 21>

지 역 별 남 녀 별 저 축 의

우 선 순 위	지 역 별 항 목 별	총 계		합 계				대 도		
		계	%	남		여		계	%	서 남
				계	%	계	%			
	계	1,836	100.0	1,464	100.0	372	100.0	1,116	100.0	592
1.	1. 질병이나에 기치 않은 재해 에 대비하기 위하여	615	33.5	476	32.5	139	37.4	363	32.5	176
	2. 자녀들의 교육비 마련을 위하여	728	39.6	607	41.5	121	32.5	498	44.6	286
1.	3. 자녀들의 결혼비용을 위하여	77	4.2	51	3.5	26	7.0	43	3.9	13
	4. 주택이나 토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297	16.1	241	16.4	56	15.0	137	12.3	75
	5.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107	5.8	80	5.5	23	6.2	60	5.4	34
	6. 기 타	16	0.8	9	0.6	7	1.9	15	1.3	8
	1. 질병이나에 기치 않은 재해 에 대비하기 위하여	518	28.2	445	30.4	73	19.6	353	31.6	223
	2. 자녀들의 교육비 마련을 위하여	690	37.6	538	36.8	152	40.9	385	34.5	182
2.	3. 자녀들의 결혼비용을 위하여	202	11.0	152	10.4	50	13.4	128	11.5	51
	4. 주택이나 토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290	15.8	220	15.0	70	18.8	174	15.6	90
	5.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132	7.2	106	7.2	26	7.0	74	6.6	46
	6. 기 타	4	0.2	3	0.2	1	0.3	2	0.2	
	1. 질병이나에 기치 않은 재해 에 대비하기 위하여	354	19.3	281	19.2	73	19.6	191	17.1	108
	2. 자녀들의 교육비 마련을 위하여	172	9.4	137	9.4	35	9.4	98	8.8	53
3.	3. 자녀들의 결혼비용을 위하여	541	29.5	417	28.5	124	33.3	315	28.2	130
	4. 주택이나 토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372	20.2	317	21.6	55	14.8	262	23.5	169
	5.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375	20.4	297	20.3	78	21.0	236	21.1	124
	6. 기 타	22	1.2	15	1.0	7	1.9	14	1.3	8

목적별 우선순위 분포

시			중 소 도 시 읍								농 촌							
울 부 산			계	%	광 주		원 주		김 천		계	%	김 해		금 능		광 산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56	225	102	400	100.0	173	27	91	9	57	43	320	100.0	147	13	76	4	62	18
52	89	46	110	27.5	31	9	34	7	18	11	142	44.4	98	7	24	2	6	5
55	121	36	154	38.5	81	3	24	1	23	22	76	23.7	10	1	31		31	3
11	13	6	19	4.8	5	4	5	1	4		15	4.7	2	1	3		6	3
26	27	9	83	20.8	39	5	21		9	9	77	24.1	37	4	16	1	17	2
8	15	3	33	8.2	17	5	7		2	1	10	3.1			2	1	2	5
4	1	2	1	0.2	1							0.0						
34	75	21	125	31.3	69	7	24	1	18	6	40	12.5			15	1	21	3
55	94	54	125	31.3	58	6	31	6	13	11	180	56.2	112	10	34	3	14	7
26	43	8	46	11.5	19	5	10	1	6	5	28	8.8	11	1	3		9	4
29	39	16	75	18.7	19	5	16		18	17	41	12.8	7		21		10	3
11	14	3	27	6.7	6	4	10	1	2	4	31	9.7	17	2	3		8	1
1	1		2	0.5	2							0.0						
31	36	16	99	24.8	54	10	20	1	8	6	64	20.0	7	1	18		30	8
18	23	4	46	11.5	15	3	14		10	4	28	8.8	12	2	5	1	5	3
39	96	50	74	18.5	35	6	8	5	9	11	152	47.5	103	7	30	2	6	4
25	54	14	76	19.0	40	4	13	1	11	7	34	10.6	2	1	11		17	3
37	57	18	97	24.2	25	3	34	2	18	15	42	13.1	23	2	12	1	4	
6			8	2.0	4	1	2		1									

다. 물품구입 태도

(1) 물품을 구입하는 장소

“일용품등 물품을 살때 어디서 사십니까?” 질문하고

- ① 큰시장에서 직접 구입한다. ② 백화점이나 연쇄점에서 산다.
③ 동네나 집에서 가까운곳에서 산다. ④ 외판원이나 선전원에게 산다 로 구분하여 그 반응을 보았다.

표 22에서 보는바와 같이 대다수인 62.2%가 큰시장에서 직접 구입한다고 했고 그다음은 동네나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산다는 사람이 27.4%이다. 백화점이나 연쇄점에서 산다는 사람은 8.7%에 불과 하였으며, 더우기 외판원이나 선전원에게 산다는 사람은 1.3%라는 극히 적은 반응을 보였다.

물품을 구입장소에 있어서는 남녀가 다같이 큰시장 구입이 1위이고 동네나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의 구입이 2위이다.

지역별로 보아도 큰차이는 없으며 다만 대도시주민들이 백화점이나 연쇄점을 이용하는 율이 다소 높을 뿐이요, 별다른 반응을 발견할 수 없었다.

물품 구입의 방법을 통해 본 태도에 있어서는 표 23에서 볼 수 있듯이 ① 현금을 주고 산다는 사람이 88.3%로 절대 다수이고 월부별 구입이나 외상으로 구입하는 경우는 거의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 22>

물품구입태도(1) 장소

지역별 항목별	총 계	계 %	합				대				도				시			
			남		여		계	%	남	여	계	%	남	여	남	여	남	여
			계	%	계	%												
계	1,836	100.0	1,464	100.0	372	100.0	1,116	100.0	592	156	226	102						
1. 큰시장에서직 접구입한다	1,142	62.2	908	62.0	234	62.9	667	59.8	319	91	180	77						
2. 백화점이나연쇄 점에서산다	159	8.7	133	9.1	26	7.0	115	10.3	84	15	13	3						
3. 동네나집가까운 곳에서산다	503	27.4	405	27.7	98	26.3	315	28.2	179	46	69	21						
4. 외판원이나선전 원에게산다	24	1.3	13	0.9	11	3.0	12	1.1	6	2	3	1						
5. 기 타	8	0.4	5	0.3	3	0.8	7	0.6	4	2	1							

지역별 항목별	중 소 도 시								농 촌							
	계	%	광 주		원 주		김 천		계	%	김 해		금 능		광 산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400	100.0	173	27	91	9	57	43	320	100.0	147	13	76	4	62	18
1. 큰시장에서직 접구입한다	262	65.5	104	14	83		35	26	213	56.5	67	5	58	3	62	18
2. 백화점이나연쇄 점에서산다	32	8.0	17	3	2		6	4	12	3.7	8	1	3			
3. 동네나집가까운 곳에서산다	94	23.5	50	8	6	2	15	13	94	29.4	72	7	14	1		
4. 외판원이나선전 원에게산다	11	2.7	2	2			6	1	1	0.3			1			
5. 기 타	1	0.3					1									

<표 23>

물품구입태도(2) 방법별 분포

지역별 방법별	총 수		대 도 시				중 소 도 시				농 촌					
	수	%	계		서 부		계		광 원 김			계		김 해	금 능	광 산
			수	%	수	%	수	%	주	주	천	수	%			
총 수	1,836	100.0	1,116	100.0	748	368	400	100.0	200	100	100	320	100.0	160	80	80
1) 남	1,464				592	266			173	91	57			147	76	62
2) 녀	372				156	102			27	9	43			13	4	18
현 금	1,621	88.3	1,016	91.0	685	331	313	78.3	143	97	72	292	91.3	135	77	80
1) 남	1,299				540	239			129	89	44			123	73	62
2) 녀	322				145	92			14	9	28			12	4	18
월 부	105	5.7	54	4.8	33	21	49	12.3	32	2	15	2	0.6	-	2	-
1) 남	80				26	16			27	2	7			-	2	-
2) 녀	25				7	5			5	-	8			-	-	-
외 상	103	5.6	42	3.8	26	-	36	9.0	23	-	13	25	7.8	24	1	-
1) 남	80				22	-			17	-	6			23	1	-
2) 녀	23				4	-			6	-	7			1	-	-
기 타	7	0.4	4	0.4	4	-	2	0.5	2	-	-	1	0.3	1	-	-
1) 남	5		4		4	-			-	-	-			1	-	-
2) 녀	2		-		-	-			2	-	-			-	-	-

5항 자녀교육의 목적

가. 일반적인 개황

산업화의 진행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지적 수준을 새 교육의 도입과 더불어 국민적인 규모로 대중의 지적 수준까지도 향상을 가져왔다. 각급학교의 진학율은 크게 신장되고 학생수도 팽목할 만큼 증가하였다.

이러한 높은 교육수준은 취업의 기회포착과 또 한편 기업가의 학력편중의 반영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의 양적 확대에도 원인의 하나이다.

또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의 확보가 점차 교육기관의 사명으로 이행되어 오는 것은 산업화의 보편적 측면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대기업 — 명문대학 — 명문고교 — 을 지향하게 하여 교육의 중시와 진학에 박차를 가하게 하여 자녀들의 교육투자를 증대 시켜 부형들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의 하나로 대두시키고 있다. 이와같이 학교는 미래의 생활안정, 사회적 지위의 확보, 창래의 소비기회의 부여에 있어서 첫째로 그리고 결정적인 요소로 되어가고 있다.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붕괴로 생겨난 핵가족화 경향은 부부에게 가정내 생활의 지배자로 또 부부간의 애정에 의한 생활의 터전으로, 여성들의 역할이 증대하였으며, 부부중심의 생활에 장애를 주지 않을 정도의 자녀의 산아제한으로 평균 자녀수의 감소를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가정내의 자녀의 희소성을 높이고 한사람 한사람의 자녀에 대한 양친의 관심은 높아만 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 자녀의 유아기의 양육은 그대로 장래의 대학 진학을 상상케 되고, 교육비 부담이라는 상대적 빈곤감이 불안으로 작

용하고 있다.

교육과 양육을 위한 중시는 가계의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이 또한 사실이다.

68년도에 실시한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교육이념에 대하여 조사한바 현재지향 즉 “과거의 어떤 전통을 도중하되 현실을 위주로 생활케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견해가 60.9%, 미래지향 즉 “과거의 전통을 탈피하고 새로운것을 스스로 발견케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29.0%, 그리고 과거지향, 즉 “과거의 전통을 존중하고 되도록이면 선조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견해가 6.2%였다.

이와같이 과거의 어떤 전통을 살리면서도 현실에 충실을 기할 수 있는 교육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과거의 전통을 탈피하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것을 찾는 개조와 변혁을 원치 않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타개할 수 있는 현재생활에 적합한 교육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이러한 뜻에서 현재의 교육이 실생활에 부합되지 않아 상당한 교육은 받았지만 쓸모 없는 면이 많아서 현재지향적인 교육을 원하고 있는지? 혹은 미래보다는 현재에 보다 애착을 느끼는 한국인의 성격에서 오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에 항상 무난히 적응해 나가려면 창의적이며 진취적인 면이 있어야 한다. 또한 현실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 들이고 소화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이 필요함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한사람의 인간이 사회에 나가서 무엇인가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려면 우리나라에서는 국민학교 6년간과 중학교의 교육 3년간을

받아 졸업하지 않으면 안된다. 부모들의 의무이며 자녀들의 권리로서 그 보급에 있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교육국이 되어 이것은 확실히 다행한 일이다.

생활경제속에서 교육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면 많은 양육비와 함께 교육비부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제기획원이 조사보고한 바에 의하면 도시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에 있어서 전도시(1971.1 ~ 3)의 경우 교육비가 8.5%로 2,790원으로 나타나 있으며, 서울의 경우는 3,520원에 8.7%를 점하고 있고, 농가에 있어서는 1970년 12월에 2,178원으로 전가계지출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같이 교육의 투자가 크고 또한 자녀의 장래에 대한 기대는 추상적이지만 대단히 크다.

이때 사대·박준희교수의 “서울시민의 자녀교육 태도고”에서 보면 1970년 10월부터 70년 6월에 걸쳐 서울에 거주하는 자녀를 가진 시민 1,700명을 대상으로 부모들이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고자 하는지, 근본적인 태도와 교육관을 관찰한 바 다음과 같이 많은 시민이 뚜렷한 교육관이 없었다고 한다.

즉, 도시인의 교육 목적 의식은 ① 항상 부딪치는 환경에 적응하는 힘을 기른다 14%, ② 쓸모있는 사람을 기른다 12.6%, ③ 출세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아준다 12.6%, ④ 개성을 마음껏 발휘해 준다 12.5%, ⑤ 좋은 경험을 통해 행복한 생활을 하게 한다 9.2%의 순으로 나타났다.

“항상”과 “쓸모 있는”에의 많은 분포는 추상적인 사고방식에 기울어지고 있는 한국의 가치관을 반영한 것이며, “출세” “개성”은 적극적인 경향보다, 다소 그 비율이 높아 도시인의 사고방

195 10월 1.2
의식이 근대적이고 합리적임을 보여 준것이다.

다음 이상의 교육목적 의식을 어떤 의미로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은 “모든 변화에 잘 맞추어 나가는 힘”을 의미한 다에 42.9%로 가장 많은 답변을 했는데 이와같은 의식은 도시 인으로서 시대와 사회적인 적응에 의미를 인정하고자 하는 태도의 일면이다.

“출세”는 “사회적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답변 한 사람이 43.3%로 “출세”란 결국 사회적으로 잘 적응해서 사회의 물결을 뚫고 나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잠재되어 있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또 “좋은 직업과 사회적 지위를 얻는 방법”이라는 구체적 표 현에 동의한 사람도 많았으며, “관리가 되는것”이라고 답변한 사 람이 불과 0.2%밖에 되지 않아 주목을 끌고 있다.

“개성”에 대해서는 “개인의 모든 소질을 기른다”로 비교적 현대화된 생각을 표현하고 있었다.

교육방법적 태도는 ① “자발적으로 학습하도록 지도한다” ② “실험 또는 실습을 많이 시키는것이 좋다” ③ “자녀의 흥 미를 중요시한다”의 순으로 비교적 시대적 사회적 조류에 적응하 려는 태도를 입증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연령층별로 보면 20대의 대부분이 “항상 부딪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시대와 사회의 조류에 호흡을 같이하는 젊은 세대임을 나타내고 50대는 “나라를 발전시킬 인재를 기른다”에 14.5%의 반응을 보여 그들이 성장할 무렵의 시대상과 사회상, 그리고 교육의 사조 를 반영하고 있었다.

나. 자녀의 교육관

이번 조사에서 자녀 교육목적별 분포를 살펴보기 위하여 설문에서 “귀하 자녀들이 어떤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면서 교육시키십니까?” 하고, 이를 다시 ① 지혜롭고, 창의력 있는 사람, ② 재산과 돈이 많은 사람, ③ 명예나 지위가 높은 사람, ④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의 4개항으로 분류하여 조사를 해본 결과 전체적으로 첫째로 “지혜롭고 창의력있는 자를 원하는 자가 40.8%로 가장높았고 둘째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을 원하는 자가 29.7%, 이고 세째로 “명예와 지위가 있는 사람”을 원하는 자가 16.5%, 마지막으로 “재산과 돈이 많은 사람”을 원하는 자가 13.0%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로서 한국인은 대체적으로 유교적, 전통적인 사고에서 영향을 받아서, 인지 매우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방향으로 자녀의 교육에 이념을 두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실리적이고 이기적인 사고가 대체로 지배하고 남자보다는 여자가 도시인보다는 농촌인이 더 높다.

이를 남녀별 응답을 분류하여보면 ①항의 경우 남자가 40.1%, 여자가 43.6%이고 ②항은 남자는 12.8% 여자는 13.7%로 나타나며 ③항은 남자가 18.3% 여자는 9.4%, ④항에서는 남자가 28.8% 여자는 33.3%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대체적으로 남자보다 여자는 가정에 충실하고 경제적, 창의력인 면에 교육관이 높게 작용하고 있으며, 입신이나 지위를 원하는 편은 남자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지역적인 면으로 관찰하기 위하여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을 분류하여 보면, 도시쪽은 재산과 명예나 지위를 요구하는 것 보다는 지적인 면과 가정적인 면에 더욱 바람직한 인간상을 원하고 있으며

농촌으로 갈수록 도시보다 재물과 지위같은 것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 상황을 다음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도시, 중소도시는 전체의 순위의 변화가 없으나, 농촌에서는 재산과 돈이 있는 항목이 대도시 7.4%, 중소도시의 12.2%의 3~5배에 가까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농촌인들이 가난한 현실적인 여건때문이 아닌가 싶다.

<표 24>

지역별 자녀교육 목적별 분포

항목별 \ 지역별	대 도시		중 소 도시		농 촌	
		(%)		(%)		(%)
계	1,116	100.0	400	100.0	320	100.0
1. 지혜롭고 창의력 있는 사람	530	47.5	152	38.0	67	21.0
2. 재산과돈이 있는 사람	83	7.4	49	12.2	106	33.1
3. 명예나 지위가 있는 사람	149	13.4	87	21.8	67	20.9
4.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	354	31.7	112	28.0	80	25.0

또한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을 원하는 비율은 대도시가 31.7%, 중소도시 28.0%, 농촌이 25.0%로 대도시가 높음을 나타내고 있어 도시일 수록 핵가족화 또는 이기적인 경향

이 농후함에 따라, 전통적 사고방식이 점점 퇴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역현상이 아닌가 싶다.

또한 지혜롭고 창의력 있는 자를 원하는 비율은 대도시는 상당한 높은 비율로 47.5 %이고 중소도시는 38.0 % 농촌은 21 %로 도시인들이 건전하고 합리적인 방향을 요구하는 경향이 두들어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명예나 지위를 원하는 대도시 13.4 %, 중소도시 21.8 % 농촌이 20.9 %로 대도시보다는 지방의 중소도시, 농촌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 주고 있음은 각개인의 잠재의식속에 전통적 사고방식이 남아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같은 분석에서, 응답자의 경향은 현실적인 부모의 불만족, 환경적, 또는 경제적인 면의 부조리한 여건을 자녀들에게 성취해보리라 하는 희망이 내면에 많이 작용을 하였으리라 여겨지며, 물질적인 면보다는 이상적인 면에 반응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25 참조>

이들을 다시 교육정도별로 보면 중등교육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의 대부분이 ① “지혜롭고 창의력 있는 사람”을 원하는 비율이 높다. 즉 중졸이 41.3 % 고졸이 46.2 %, 대졸이상인 53.2 %를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지역에 구애됨이 없이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②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을 원하는 비율은 불취학자의 경우가 제일 높고 (37.1 %) 특히 대도시주민이 47.7 % 중소도시 34.6 %, 농촌이 33.3 %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학력의 고하에 불구하고 대체로 높은 반응을 보이는 상태이다.

자녀의 교육목적별, 지역별, 남녀별 분포

지 역 별 목 적 별	총 수			수 대			도 시			중 소			도 시			농			촌		
	수	%	계	수	%	계	수	%	계	수	%	계	수	%	계	수	%	계	수	%	계
총 수	1,855	100.0	1,116	100.0	748	368	400	100.0	200	100	100	100	100	100	100	320	100.0	160	80	80	80
1) 남	1,464				592	266			173	91	57							147	76	62	62
2) 여	372				156	102			27	9	43							13	4	18	18
1. 지혜롭고 창의력있는 사람	749	40.8	530	47.5	367	163	152	38.0	79	38	35	67	21.0	18	35	14					
1) 남	587				281	121			70	36	17							17	33	12	12
2) 여	162				86	42			9	2	18							1	2	2	2
2. 재산과 돈이 많은 사람	238	13.0	83	7.4	52	31	49	12.2	17	9	23	106	33.1	50	23	33					
1) 남	187				42	23			14	6	11							44	23	24	24
2) 여	51				10	8			3	3	12							6	-	9	9
3. 명예와 지위가 높은 사람	303	16.5	149	13.4	95	54	87	21.8	40	25	22	67	20.9	23	20	24					
1) 남	268				85	43			36	25	15							23	18	23	23
2) 여	35				10	11			4	-	7							-	2	1	1
4.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	546	29.7	354	31.7	234	120	112	28.0	64	28	20	80	25.0	69	2	9					
1) 남	422				184	79			53	24	14							63	2	3	3
2) 여	124				50	41			11	4	6							6	-	6	6

③ “재산과 돈 많은 사람”은 도시주민일수록 욕구가 낮고 농촌 주민이 훨씬 높으며, 이거 역시 학력이 높을 수록 반응이 없고 농촌에 있어서 국졸이 37.7%, 불취학이 42.4%로 돈에 대한 욕구도가 매우 높은것으로 반영되고 있다. <표 26 참조>

<표 26>

지역별 교육정도별 자녀교육목적별 분포

항 목 별	지 역 별	총 계		대 도 시		중소도시		농 촌	
	계	447	100.0%	366	100.0%	65	100.0%	16	100.0%
대 졸 이 상	1. 지혜롭고 창의력있는 사람	238	53.2	194	53.0	39	60.0	5	31.3
	2. 재산과돈이 많은 사람	15	3.4	13	3.6	1	1.5	1	6.2
	3. 명예나 지위가 높은 사람	77	17.2	58	15.8	15	23.1	4	25.0
	4.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	117	26.2	101	27.6	10	15.4	6	37.5
계		515	100.0	370	100.0	99	100.0	46	100.0
고 졸	1. 지혜롭고 창의력있는 사람	238	46.2	180	48.6	40	40.4	18	39.1
	2. 재산과돈이 많은 사람	35	6.8	23	6.2	5	5.1	7	15.2
	3. 명예나 지위가 높은 사람	77	15.0	44	11.9	22	22.2	11	23.9
	4.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	165	32.0	123	33.3	32	32.3	10	21.8

항 목 별		지 역 별		총 계		대 도 시		중 소 도 시		농 촌	
	계	315	%	187	%	83	%	45	%		
중 졸	1. 지혜롭고 창의력 있는 사람	130	41.3	94	50.3	26	31.3	10	22.3		
	2. 재산과 돈이 많은 사람	38	12.1	17	9.1	8	9.7	13	28.9		
	3. 명예나 지위가 높은 사람	54	17.1	23	12.3	20	24.1	11	24.4		
	4.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	93	29.5	53	28.3	29	34.9	11	24.4		
국 졸	계	392	100.0	151	100.0	127	100.0	114	100.0		
	1. 지혜롭고 창의력 있는 사람	115	29.3	47	31.1	42	33.1	26	22.8		
	2. 재산과 돈이 많은 사람	99	25.3	27	17.9	29	22.8	43	37.7		
	3. 명예나 지위가 높은 사람	69	17.6	20	13.2	24	18.9	25	21.9		
	4.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	109	27.8	57	37.8	32	25.2	20	17.6		
불 취 학	계	167	100.0	42	100.0	26	100.0	99	100.0		
	1. 지혜롭고 창의력 있는 사람	28	16.8	15	35.7	5	19.2	8	8.1		
	2. 재산과 돈이 많은 사람	51	30.5	3	7.1	6	23.1	42	42.4		
	3. 명예나 지위가 높은 사람	26	15.6	4	9.5	6	23.1	16	16.2		
	4.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	62	37.1	20	47.7	9	34.6	33	33.3		

직업별로 관찰해 보면 ① “지혜롭고 창의력 있는 사람”에 대한 욕구도는 자유업자가 58.3%로 가장 높고 그다음이 교육자, 공무원, 회사원이 54.9%, 그다음은 금융업이 50%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②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을 원하는 율은 금융업, 무직, 공업, 노동자, 상업, 농업, 자유업, 교육자, 공무원, 회사원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재산과 돈” “명예와 지위” 같은데는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나, 중소도시나 농촌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 분포에서도 대도시의 경우는 “지혜롭고 창의력 있는 사람”에 가장 많은 희망이 집중돼 있고 또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에 반응이 많아 매우 합리적이고 건전한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다 하겠으며, 중소도시의 경우에서도 대도시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농촌에서는 “재산과 돈” “명예나 지위”에 대한 욕구도가 대단히 높은것으로 반영되고 있어 주목을 끌었다.

이와같이 시대 변천에 적응하려는 움직임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며 또한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대되는 바 크다고 아나할 수 없을 것이다. (표 27 참조)

< 표 27 >

지역별 직업별 자녀교육목적별 분포

항 목 별	지 역 별		총 계		대 도 시		중 소 도 시		농 촌	
	계	%	총	%	대	%	중	%	농	%
	계		235	100.0	10	100.0	27	100.0	198	100.0
농	1. 지혜롭고 창의력 있는 사람		50	21.3	4	40.0	10	37.0	36	18.2
	2. 재산과 돈이 있는 사람		70	29.8	1	10.0	2	7.4	67	33.8
어	3. 명예나 지위가 높은 사람		60	25.5	2	20.0	11	40.7	47	23.7
업	4.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		55	23.4	3	30.0	4	14.9	48	24.3
	계		442	100.0	290	100.0	124	100.0	28	100.0
상	1. 지혜롭고 창의력 있는 사람		180	40.7	130	44.8	39	31.5	11	39.3
	2. 재산과 돈이 있는 사람		46	10.4	22	7.6	18	14.5	6	21.4
	3. 명예나 지위가 높은 사람		65	14.7	38	13.1	22	17.7	5	17.9
업	4.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		151	34.2	100	34.5	45	36.3	6	21.4
교	계		450	100.0	335	100.0	90	100.0	25	100.0
육	1. 지혜롭고 창의력 있는 사람		247	54.9	192	57.3	43	47.8	12	48.0
자	2. 재산과 돈이 있는 사람		28	6.2	20	6.0	5	5.6	3	12.0
·	3. 명예나 지위가 높은 사람		79	17.6	50	14.9	21	23.3	8	32.0
공	4.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		96	21.3	73	21.8	21	23.3	2	8.0
무										
원										
·										
회										
사										
설										

항 목 별	지 역 별		총 계		대 도 시		중 소 도 시		농 촌	
	계		107	100.0%	79	100.0%	28	100.0%		100.0%
공 업	1. 지혜롭고 창의력있는사람		42	39.3	33	41.8	9	32.1		
	2. 재산과돈이있는사람		7	6.5	3	3.8	4	14.3		
	3. 명예나지위가높은사람		18	16.8	14	17.7	4	14.3		
	4. 부모에게효도하고가정에 충실한사람		40	37.4	29	36.7	11	39.3		
자 유 업	계		48	100.0	40	100.0	6	100.0	2	100.0
	1. 지혜롭고 창의력있는사람		28	58.3	27	67.5	1	16.7		
	2. 재산과돈이있는사람		3	6.3	1	2.5				
	3. 명예나지위가높은사람		6	12.5	3	7.5	3	50.0		
	4. 부모에게효도하고가정에 충실한사람		11	22.9	9	22.5	2	33.3		
금 용 업	계		10	100.0	10	100.0	-	100.0	-	100.0
	1. 지혜롭고 창의력있는사람		5	50.0	5	50.0	-			
	2. 재산과돈이있는사람		-				-			
	3. 명예나지위가높은사람		1	10.0	1	10.0				
	4. 부모에게효도하고가정에 충실한사람		4	40.0	4	40.0				

항 목 별		지 역 별		총 계		대 도 시		중 소 도시		농 촌	
구 분	내 용	인 수	비 율 (%)	인 수	비 율 (%)	인 수	비 율 (%)	인 수	비 율 (%)	인 수	비 율 (%)
동 자	계	101	100.0	34	100.0	37	100.0	30	100.0		
	1. 지 혜 롭고 창 의 력 있는 사람	21	20.8	8	23.5	9	24.3	4	13.3		
	2. 재 산 과 돈 이 있는 사람	28	27.7	5	14.7	8	21.6	15	50.0		
	3. 명 예 나 지 위 가 높은 사람	17	16.8	4	11.8	11	29.7	2	6.7		
	4. 부 모 에 게 효 도 하고 가 정 에 충 실 한 사람	35	34.7	17	50.0	9	24.4	9	30.0		
직 무	계	264	100.0	189	100.0	43	100.0	32	100.0		
	1. 지 혜 롭고 창 의 력 있는 사람	101	38.3	78	41.3	19	44.2	4	12.5		
	2. 재 산 과 돈 이 있는 사람	38	14.4	16	8.5	10	23.2	12	37.5		
	3. 명 예 나 지 위 가 높은 사람	26	9.8	15	7.9	7	16.3	4	12.5		
	4. 부 모 에 게 효 도 하고 가 정 에 충 실 한 사람	99	37.5	80	42.3	7	16.3	12	37.5		
기 타	계	179	100.0	129	100.0	45	100.0	5	100.0		
	1. 지 혜 롭고 창 의 력 있는 사람	75	41.9	53	41.1	22	48.9	-	-		
	2. 재 산 과 돈 이 있는 사람	18	10.1	15	11.6	2	4.4	1	20.0		
	3. 명 예 나 지 위 가 높은 사람	31	17.3	22	17.1	8	17.8	1	20.0		
	4. 부 모 에 게 효 도 하고 가 정 에 충 실 한 사람	55	30.7	39	30.2	13	28.9	3	60.0		

6 항 이상적인 직업

가. 일반적인 개황

최근의 현저한 기술의 발달과 이에 수반한 경제발전에 따라서 직업이 분화하여 다양한 직업별구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업분화의 변천에 있어 현저한 특징으로 농업종사자의 비중이 저하하고, 노무적 직무에 있어서의 직접으로 생산과 제작에 관계하는 부문의 종사자보다는 보전 유지등의 간접적 부문에 있어서의 종사자의 비율이 증대하고 있으며 사무적 직무 혹은 <화이트, 칼라>적 직무의 현저한 증대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직업이 이와같이 고도의 지식, 기능을 요구하는 것이 증대되는 경향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전문직종사자의 현저한 증대이다.

또 직업종사자의 지위의 변화를 본다면 업주, 고용자, 가족종사자의 세 개로 분류할 수 있다.

직업의 전문적화에 있어서 첫째 기업과 행정조직 등 많은 고도의 지식 기능을 갖고 <라인>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스탈>적 직원의 증대와 둘째, 기업지도자의 직무가 조직의 거대화에 따라 변화하여 단순히 자본의 소유자로서의 자격에 대신하여 관리자로서의 자격이 강화되어 그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조직에 대하여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판단력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경향을 들 수 있다. 세째로 제일선 노동자의 직무의 성격의 변화인데 종래와 같이 상위자로 부터의 명령에 따라 타율적으로 주어지는 위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작업에 있어서 개선을 자주적으로 이루어지는 면이 많아져서 노동자의 직무가 조직내에 있어서의 Career(경력)로서의 의미를 강화시키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부녀자들의 직업의 변천으로 산업혁명이 가족과 직업을

분리시켜 생활비용의 일부를 분담시키게 하였다. 최근의 경제발전과 이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과 인간의 평균수명의 연장은 이러한 부녀자들의 직업진출의 경향에 큰 변화를 가져 왔다. 물론 이들은 사무적인 직업 또는 많은 훈련이 따르지 않는 기계조작업무 등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들의 수익은 가계의 적자보전의 역할도 하지만 가구나 전화제품 등 문화적 시설의 충실이나 자녀들의 교육비 등에 충당하는 상태이다.

대개의 노동자들은 현재의 사회에서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장래에는 어떠한 사회를 전망하게 되겠는가 하는 계층귀속의식과 사회발전 내지 사회체제관에 대하여 막연하지만 진실한 배려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들이 동경하는 <비전>, 바라고 있는 사회의 <이미지>는 어떤 것이며 현실적인 생활속에서 무엇을 삶의 보람으로 생각하며 생활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리나라는 시급한 당면과제의 하나로 경제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많은 식자들의 일치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이룩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알맞는 가치관에 따라서 경제활동에 종사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정신자세는 근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닌 관념을 적지 않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관찰이다. 마침내 “제 2 경제”의 논의가 생기고, 사회쟁화의 소리도 생겨났던 것이다.

경제문제에 관련해서 어떠한 직업 또는 어떤 직장을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직업 또는 직장 가운데는 돈이 많이 생기는 것도 있고 명예가 많이 따르는

것도 있으며 또 일하는 가운데 일 그 자체에 보람을 느끼는 것도 있다. 이들 가운데서 어느것을 가장 바람직한 직장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것은 비단 그 사람의 경제적 가치관을 나타낼 뿐 아니라 그의 인생관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68년의 “한국인의 가치관” 조사에서 “다음 직장중 어느것이 가장 훌륭한(이상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① 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업.

② 안정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직업.

③ 자기의 소질과 흥미에 맞는 직업.

④ 타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

⑤ 아랫사람을 많이 거느리는 직업.

⑥ 다른사람의 존경을 많이 받는 직업.

⑦ 기타.

로 분류하여 지적하게 하였다. 그 결과 “안정된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직업”에 대한 반응이 40.1%, “자기의 소질과 흥미에 맞는 직업”에 대한 반응이 37.6%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들이 매우 건전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었다.

남녀별에 있어 남자의 경우 “보수가 많은 직업”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 “남의 존경을 받는 직업”등을 이상적이라고 보는 반응이 여자보다 5.7% 강하여 남성들의 투기 내지 모험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에 여성들의 안정된 조용한 삶을 희구하는 경향이 일반적으로 농후하다고 볼 수 있다.

연령별에 있어서는 “안정된 미래”를 염원하는 중년층에 비해 젊은층의 경우는 안정보다 무한한 가능성을 추구하는 진취적인 태도를 보이는 한편 “자기의 소질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가장

바람직하게 여기고 있어 합리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서 직업선택에 관한 취업관조사에 “돈보다 명예로운 자리를 택하겠다”가 49⁴%, “영예스럽지 않아도 돈이 많은 자리를 택하겠다”는 반응이 43⁷%였다.

직업에 대한 귀천이 없음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사고방식이 합리화되면 당연히 실이없는 명예는 덜 평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명예를 찾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반응이다.

70년 12월 5일부터, 14일까지 경향신문사 과학부에서 전국을 수도권, 지방도시 3개시, 농촌도시 5개시, 농촌지역 5개군하의 737개동 총 2,840개를 대상으로 “한국 젊은이의 가치관 및 의식구조”를 조사한바에 의하면 직업은 철저하게 현실적임을 주증하고 있다.

질문에 응한 사람중 48⁸%는 “자기능력과 적성에 맞으면 아무 직업이나 좋다고 했고, “안정된 직업”이 19⁵%,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이 18⁵%이고 “돈벌이가 좋은 직업”을 바라는이는 6³%로 4위를 점하고 있었다. “남으로 부터 존경받는 직업”이 그 다음이고, 최하위가 “남에게 도움을 주는 직업”으로 돼 있다.

물론 직업관의 이런경향은 매우 추가적이긴 하지만 개인주의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상적인 직업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능력과 적성임을 강조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경제적 빈곤이 도사리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젊은이들의 직업관이 돈벌이 보다는 개성과 창의적인 것을 찾는다는 사실은 꺾진보적인 판단이라고 보아진다.

최근에 여성들의 지위는 크게 향상되었으나 여성에 대한 구래의 전통적인 태도가 상존함을 알 수 있다. 여자가 직업을 갖는데 대

한 인식에 있어서의 찬성이 43⁴%, 반대가 25⁴%, 아무래도
좋다가 31²%였다.

나. 이상적인 직업

현대의 다양한 각종 직업가운데 어떤것이 가장 이상적이
냐 하는것은 국민 개개인이 지닌 가치관의 여하에 따라 많이 달라
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조사에서는 이상적인 직업을 크게 네개의 유
형을 정해 놓고 그 반응을 보았다. 즉 ① 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업 ② 안정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직업 ③ 자기
의 소질과 흥미에 맞는 직업 ④ 아랫 사람을 많이 거느리는 직
업으로 분류하였던바 표 28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때 ① “안정된 미래를 바라 볼 수 있는 직업”
에 대하여 51¹%로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다. 이는 격변하
는 사회에 대한 안정을 회구하는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이들의 연령계층을 보면 대개 41세이상의 가구주로서 이들은 가
계를 유지 운영해야할 위치에 있고, 가구원의 부양의무의 이행과
관련된 사고방식으로 당연한 귀결이라고 볼 수 있다. ② 둘째는
“자기의 소질과 흥미에 맞는 직업”이 28⁹%로 젊은세대의 계
층이 이에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③ 세째는 “보수를 많
이 받을수 있는 직업에 16⁴%이고, ④ “아랫사람을 많이 거
느리는 직업”에는 아주 적은 2⁷%의 반응을 나타내고, 이들 대다
수가 41세이상의 계층에서 많이볼 수 있고 또한 농촌지역 주민에
게 이러한 경향을 두드러지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으로 우리 한국사람들의 직업에 관해서 매우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시적으로 보수가

많은 직업보다는 안정되고 또 자기의 소질과 흥미에 적합한 직업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것은 생산적이며 합리적인 사고방식이다.

“안정된 미래”를 희구하는 경향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약하고 “자기의 소질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갖는데는 여성의 경우보다 남성이 압도적으로 강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별 특성으로는 대도시주민이 “안정된 미래”와 “소질과 흥미에 적합한 직업에의 지향이 가장 왕성하고, 중소도시가 그 다음이며, 농촌지역에서는 아직도 “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업”을 이상시하는 경향이 33.7%로 현저하게 금전과 관련짓고 있어 빈곤에의 탈피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이상적인 직업의 학력별 견해는 대졸이상의 경우는 미래의 안정과 소질을 살리고 흥미에 맞는 직업에의 경향이 현저하고 고졸이상은 소질과 흥미보다는 안정된 미래를 희구하는 경향이 현저하며, 대조적이라고 볼 수 있다. (표 29 참조)

<표 28> 이상적 직업에 관한 의견 지역별 분포

지역별 항목별	총 계		합 계				대 도 시					
	계	%	남		여		계	%	서울		부산	
			계	%	계	%			남	여	남	여
계	1,836	100.0	1,464	100.0	372	100.0	1,116	100.0	592	156	226	102
1. 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업	301	16.4	248	16.9	53	14.2	115	10.3	71	12	23	9
2. 안정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직업	938	51.1	720	49.2	218	58.6	611	54.7	302	98	146	65
3. 자기의 소질과 흥미에 맞는 직업	531	28.9	442	30.2	89	23.9	353	31.6	205	42	83	23
4. 아랫사람을 많이 기쁘게 하는 직업	50	2.7	43	2.9	7	1.9	24	2.2	14	2	6	2
5. 기타	16	0.9	11	0.8	5	1.4	13	1.2		2	8	3

지역 별 항목 별	중 소 도 시								농 촌							
	계	%	광 주		원 주		김 천		계	%	김 채		금 능		광 산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400	100.0	173	27	91	9	57	43	320	100.0	147	13	76	4	62	18
1. 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업	78	19.5	35	6	10	1	14	12	108	33.7	41	4	30	1	24	8
2. 안정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직업	181	45.2	76	8	40	7	27	23	146	45.6	65	6	37	2	27	9
3. 자기 의소질과 흥미에 맞는 직업	125	31.3	52	12	40	1	14	6	53	16.6	31	3	8	1	9	1
4. 아랫사람을 많이 거느리는 직업	14	3.5	10	1	1			2	12	3.8	10				2	
5. 기타	2	0.5					2		1	0.3			1			

<표 29>

지역별 교육정도별 직업관 분포

항 목 별	지 역 별		총 계		대 도 시		중 소 도 시		농 촌	
				(%)		(%)		(%)		(%)
대	계		447	100.0	366	100.0	65	100.0	16	100.0
1.	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업		35	7.8	26	7.1	7	10.8	2	12.5
2.	안정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직업		206	46.1	176	48.1	24	36.9	6	37.5
3.	자기의 소질과 흥미에 맞는 직업		193	43.2	152	41.5	33	50.8	8	50.0
4.	아랫사람을 많이 거느리는 직업		10	2.2	9	2.5	1	1.5		
5.	기 타		3	0.7	3	0.8				
중	계		515	100.0	370	100.0	99	100.0	46	100.0
1.	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업		49	9.5	26	7.0	14	14.1	9	19.6
2.	안정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직업		280	54.4	207	55.9	47	47.5	26	56.5
3.	자기의 소질과 흥미에 맞는 직업		171	33.2	128	34.6	34	34.3	9	19.6
4.	아랫사람을 많이 거느리는 직업		12	2.3	6	1.6	4	4.1	2	4.3
5.	기 타		3	0.6	3	0.9				
소	계		315	100.0	187	100.0	83	100.0	45	100.0
1.	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업		38	12.1	19	10.2	10	12.0	9	20.0
2.	안정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직업		201	63.8	131	70.1	44	53.0	26	57.8
3.	자기의 소질과 흥미에 맞는 직업		67	21.3	34	18.2	26	31.3	7	15.5
4.	아랫사람을 많이 거느리는 직업		8	2.5	3	1.5	2	2.4	3	6.7
5.	기 타		1	0.3			1	1.3		

항 목 별	지 역 별	총 계		대도시		중소도시		농 촌	
		392	(%) 100.0	151	(%) 100.0	127	(%) 100.0	114	(%) 100.0
국 가 적 업	1. 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업	130	33.2	41	27.2	39	30.7	50	43.8
	2. 안정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직업	171	43.6	70	46.4	56	44.1	45	39.5
	3. 자기의 소질과 흥미에 맞는 직업	77	19.6	32	21.2	27	21.3	18	15.8
	4. 아랫사람을 많이 거느리는 직업	7	1.8	2	1.3	5	3.9		
	5. 기 타	11	2.8	6	3.9			1	0.9
지 방 적 업	1. 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업	49	29.3	3	7.1	8	30.8	38	38.4
	2. 안정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직업	82	49.1	29	69.0	10	38.5	43	43.4
	3. 자기의 소질과 흥미에 맞는 직업	23	13.8	7	16.7	5	19.2	11	11.1
	4. 아랫사람을 많이 거느리는 직업	10	6.0	1	2.4	2	7.7	7	7.1
	5. 기 타	3	1.8	2	4.8	1	3.8		

이들이 직업별 의견을 보면, “안정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집중율이, 금융업이 60%, 공업이 57⁹%, 자유업이 56³%, 상업이 54⁵%, 기타가 53¹% 교육자와 공무원 및 회사원이 51⁸%, 무직자가 49⁶%, 노동자 44⁶%, 농업이 41⁷%의 순으로 나타나 있다.

3위까지는 현재의 직업이 주는 안정성에 대한 안정감에서 오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고, 그외는 현재의 직업에 대한 불안 또는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안정에의 욕구의 반응이라고 풀이할 수 있겠다.

이러한 “안정”에의 욕구도는 대도시의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강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며 농촌이나 중, 소도시 주민들에게는 다소 약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늘날 대도시에 있어서의 기업이나 직장의 이동율이 높고 변화가 많은 현실을 자주 직감한다는 사실이 더욱 더 “안정”에 대한 욕구는 강할 수 밖에 없을것으로 생각된다. (표 30 참조)

<표 30>

이상적 직업별, 지역별 의견분포

항 목 별		지 역 별		총 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		(%)		(%)		(%)
농 어 업	계			235	100.0	10	100.0	27	100.0	198	100.0
	1. 보수를 많이 받을수 있는직업			77	32.8	1	10.0	5	18.5	71	35.9
	2. 안정된미래를바라볼수있는직업			98	41.7	6	60.0	10	37.0	82	41.4
	3. 자기의소질과취미에맞는직업			48	20.4	3	30.0	10	37.0	35	17.7
	4. 아랫사람을많이거느리는직업			11	4.7			2	7.5	9	4.5
	5. 기 타			1	0.4					1	0.5
상 업	계			442	100.0	290	100.0	124	100.0	28	100.0
	1. 보수를 많이 받을수 있는직업			67	15.2	41	14.1	31	25.0	5	17.9
	2. 안정된미래를바라볼수있는직업			241	54.5	175	60.3	52	41.9	16	57.1
	3. 자기의소질과취미에맞는직업			115	26.0	76	26.2	33	26.6	6	21.4
	4. 아랫사람을많이거느리는직업			15	3.4	7	2.4	7	5.6	1	3.6
	5. 기 타			4	0.9	3	1.0	1	0.9		

항 목 별		지 역 별		총 계		대도시		중소도시		농 촌	
	계	450	(%) 100.0	335	(%) 100.0	90	(%) 100.0	25	(%) 100.0		
교육자	1. 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업	41	9.1	25	7.5	12	13.3	4	16.0		
	2. 안정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직업	233	51.8	173	51.6	45	50.0	15	60.0		
공무원	3. 자기의 소질과 취미에 맞는 직업	164	36.4	127	37.9	32	35.6	5	20.0		
	4. 아랫사람을 많이 거느리는 직업	9	2.0	7	2.1	1	1.1	1	4.0		
회사원	5. 기 타	3	0.7	3	0.9						
	계	107	(%) 100.0	79	(%) 100.0	28	(%) 100.0	-	(%) 100.0		
공 업	1. 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업	11	10.3	8	10.1	3	10.7				
	2. 안정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직업	62	57.9	47	59.5	15	53.6				
	3. 자기의 소질과 취미에 맞는 직업	32	29.9	23	29.1	9	32.1				
	4. 아랫사람을 많이 거느리는 직업	2	1.9	1	1.3	1	3.6				
	5. 기 타										
	계	48	(%) 100.0	40	(%) 100.0	6	(%) 100.0	2	(%) 100.0		
자유업	1. 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업	5	10.4	3	7.5	1	16.7	1	50.0		
	2. 안정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직업	27	56.3	23	57.5	3	50.0	1	50.0		
	3. 자기의 소질과 취미에 맞는 직업	15	31.3	13	32.5	2	33.3				
	4. 아랫사람을 많이 거느리는 직업	1	2.0	1	2.5						
	5. 기 타										
	계	10	(%) 100.0	10	(%) 100.0						
금융업	1. 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업										
	2. 안정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직업	6	60.0	6	60.0						
	3. 자기의 소질과 취미에 맞는 직업	4	40.0	4	40.0						
	4. 아랫사람을 많이 거느리는 직업										
	5. 기 타										

항 목 별		지 역 별		총 계		대 도시		중 소 도시		농 촌	
	계	101	100.0	34	100.0	37	100.0	30	100.0		
노동자	1. 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업	32	31.7	7	20.6	11	29.7	14	46.7		
	2. 안정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직업	45	44.6	16	47.1	15	40.5	14	46.7		
	3. 자기의 소질과 취미에 맞는 직업	21	20.8	11	32.3	9	24.4	1	3.3		
	4. 아랫사람을 많이 거느리는 직업	2	2.0			1	2.7	1	3.3		
	5. 기 타	1	0.9			1	2.7				
무 직	계	264	100.0	189	100.0	43	100.0	32	100.0		
	1. 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업	48	18.2	23	12.2	12	27.9	13	40.6		
	2. 안정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직업	131	49.6	99	52.4	16	37.2	16	50.0		
	3. 자기의 소질과 취미에 맞는 직업	70	26.5	54	28.6	13	30.2	3	9.4		
	4. 아랫사람을 많이 거느리는 직업	8	3.0	6	3.2	2	4.7				
	5. 기 타	7	2.7	7	3.6						
기 타	계	179	100.0	129	100.0	45	100.0	5	100.0		
	1. 보수를 많이 거느리는 직업	20	11.2	17	13.2	3	6.7				
	2. 안정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직업	95	53.1	68	52.7	25	55.6	2	40.0		
	3. 자기의 소질과 취미에 맞는 직업	62	34.6	42	32.6	17	37.7	3	60.0		
	4. 아랫사람을 많이 거느리는 직업	2	1.1	2	1.5						
	5. 기 타										

의
3
회

7 항 사회실패와 발전전망

가. 일반적인 개황

전세계적으로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대중화현상은 산업조직이나 사회조직의 구조에 대해서만 아니라 구성원 각개인의 의식과 행동에 까지 문제되고 있다.

또한 산업화의 진전은 소비재의 대량생산과 소득수준의 향상 급여가활동의 변모등을 가져오고 있으며 특히 기술혁신은 노동의 구성, 노동의 질, 노동조직, 노동조건등 인간의 문제영역 전반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그 변화에 대하여 한편에는 밝은 면도 있지만 반대로 어두운 면도 있어 인간이란 측면의 문제로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기계나 설비에의 예측의 증대, 개성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감소, 정신적 긴장의 증대, 사실상의 노동강화, 고독감과 소외의식의 증대, 인간관계의 긴장, 애사정신의 후퇴, 끊임 없는 인원 정리의 불안 등 이러한 결과로 부터 생기는 종업원의 불평 불만과 <레지스탕스>의 증대와 같은 광범한 문제가 있다.

산업의 근대화는 개개의 노동자의 구체적인 노동에 포함되 기능문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어, 노동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은 노동시장에 제공해야 할 수단에 이르러서는 숙련 노동의 문제에 변질을 다시 합리화 기계화의 진전, 기술혁신의 팽은 숙련노동을 기능의 고도화 전문화의 문제와 기능의 단순화, 양화의 문제에도 분극화시키고 말았다. 그러나 한편에는 고도의 지식 수준을 배경으로 하는 전문적 기능의 행사에 기인하는 판정 노동과 또 한편에서는 평판한 반복적인 단순한 육체적 노동이라는

형태가 대조적인 형으로 일반화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개개의 노동자들의 업무에의 애착, 업무에의 보람과 같은 감각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업무에의 태도는 극히 복잡하고 미묘하다. 어떤 자는 취업에의 보람을 일 자체에 구하는 이도 있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얻어지는 자급에 구하기도 하고 또 기업내에서 점하는 지위에서 구하는 이도 있고 또 기업자체가 누리고 있는 사회적 평가 그것에서 구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형성되는 취업의식 노동관도 극히 미묘하고 여가문제를 제기한 사회적 배경과 함께 한층 더 복잡한 양상을 노정하고 있다.

감각적 차원에 있어서의 취업의식의 태도는 취업에의 만족감과 인간관계, 사회발전에의 <매카니즘>과 더불어 장래의 <비전>에 대한 생활의식에 반영된다.

중세사회에서는 출세, 사회적 지위등이 신분여하에 따라 달랐고, 또 직업도 세습화되어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었다. 그러나 사회가 근대화함에 따라 만민 평등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가 되었다. 그러므로 근대화된 사회와 민주주의 사회는 원칙적으로 능력있고 성실하게 노력한다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인 것이다. 또한 그러한 사회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된 사회이며 공정히 모든 일이 처리되는 사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사회는 누구든지 능력있는 사람이 정직하게 열심히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인 것이지만 제일 그렇지 못한 전근대적인 요인이 있다면 이는 국민의 총력을 국가발전에 경주시키는데 있어 유감스러운 일이며, 또 민주주의에 어긋남과 동시에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의 하나라고 아니할 수 없다.

나. 사회신뢰와 발전전망관

이번조사에서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능력있는 사람이 정직하게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고 질문하고 ① 있다. ② 좀 어렵다. ③ 대단히 어렵다. ④ 모르겠다 로 구분하여 그 반응을 보았다.

표 31에서 보는바와 같이 ① “성공할 수 있다”는 반응이 54.4%로 긍정하고 있고 ② “좀 어렵다” 31.7% ③ 대단히 어렵다 5.3%로 부정적인 반응도 상당수 나타나 있다.

긍정적인 태도는 여성의 경우보다 남성이 약간 높은데 반해 여성들이 부정적 반응에서 남성보다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고 지역별로는 긍정적인 반응이 농촌지역이 65.0%로 가장 높고 중소도시가 57.0%로 그다음이고 대도시가 50.4%로 가장 낮았다.

부정적인 태도는 대도시가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가 그다음 농촌지역에서는 거의 없는 정도이고 다만 회의적인 태도가 상당수 있으나 도시지역의 주민보다는 그래도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역시 도시사회에서의 경쟁의 치열, 불신풍조, 또는 인구의 이동의 빈번, 익명성으로 인한 상대방의 이해부족등으로 인간관계의 긴장도가 높은 때문인 것으로 풀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촌락 공동사회식의 잔영이 농촌지역일수록 잔존하고 유대감이 그런대로 상당히 작용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 표 31 >

사회신평관과 발전전망 지역별, 남녀별 분포

지 역 별 항 목 별	총 계		합 계				대 도 시					
	계	%	남		여		계	%	서 울		부 산	
			계	%	계	%			남	여	남	여
계	1,836	100.0	1,464	100.0	372	100.0	1,116	100.0	592	156	226	102
1. 있 다	998	54.4	810	55.3	188	50.5	562	50.4	301	71	136	54
2. 좀 어렵다	582	31.7	448	30.6	134	36.0	385	34.5	192	64	93	36
3. 대단히 어렵다	97	5.3	18	5.3	19	5.1	84	7.5	48	12	18	6
4. 모르겠다	147	8.0	117	8.0	30	8.1	75	6.7	44	9	16	6
5. 기 타	12	0.6	11	0.8	1	0.3	10	0.9	7		3	

지 역 별 항 목 별		중 소 도 시								농 촌							
		계 %		광 주		원 주		김 천		계 %		김 해		금 능		광 산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400	100.0	173	27	91	9	57	43	320	100.0	147	13	76	4	62	18
1. 있 다		228	57.0	71	6	70	7	44	30	208	65.0	94	6	47	1	47	13
2. 좀 어렵다		120	30.0	74	12	11	2	9	12	77	24.1	35	4	22	2	12	2
3. 대단히 어렵다		12	3.0	8	1	3				1	0.3	1					
4. 모르겠다		39	9.8	19	8	7		4	1	33	10.3	17	2	7	1	3	3
5. 기 타		1	0.2							1	0.3	1					

이들의 교육정도별 의견을 보면 대체로 학력이 낮은 사람, 또는 농촌주민이나 중소도시 주민들에게서 “능력있고 성실하게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의견이 강하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졸이 58⁴%, 중졸이 58¹%, 불취학이 56⁹%, 고졸이 55¹%, 대졸이상 46³%의 순위로 나타나 있다.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에서는 불취학이 54⁸%, 고졸이 54¹%, 중졸이 52⁴%, 국졸이 49⁶%, 대졸이상 45⁴%의 순이고 중소도시에서는 중졸이 60²%, 국졸이 58³%, 불취학이 57⁷%, 고졸이 56⁶%, 대졸이상 50⁸%의 순이며 농촌에 있어서는 중졸이 77⁸%, 국졸이 70²%, 고졸이 60⁹%, 불취학이 57⁶%, 대졸이상 50%의 순으로 나타나 있다.

“능력과 성실”에 대한 성공에의 긍정적인 태도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약한 반응을 나타내는데는 여러가지로 의문을 던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해방직후 고등교육기관이 난립하였고 또 교육이 부실한데다가

“학력만 가지면 어떻게 되겠지?”하는 막연한 피교육자들의 사고방식의 결과, 실사회에서의 경쟁의 치열이나 과도기적인 사회의 부조리에서 갖게된 회의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대졸이상 “좀 어렵다”는 반응도 비교적으로 높고 “대단히 어렵다”는 반응도 다른 계층에 비해 강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표 32 참조)

<표 32>

교육정도별 성공에 관한 견해분포

항 목 별	지 역 별	총 계		대 도시		중 소 도시		농 촌	
		계	(%) 100.0	366	(%) 100.0	65	(%) 100.0	16	(%) 100.0
대 졸 이 상	1. 있 다	207	46.3	166	45.4	33	50.8	8	50.0
	2. 좀 어렵다	181	40.5	146	39.9	27	41.5	8	50.0
	3. 대단히 어렵다	35	7.8	33	9.0	2	3.1		
	4. 모르겠다	22	4.9	19	5.2	3	4.6		
	5. 기 타	2	0.5	2	0.5				
	계	447	(%) 100.0	366	(%) 100.0	65	(%) 100.0	16	(%) 100.0
고 졸	1. 있 다	284	55.1	200	54.1	56	56.6	28	60.9
	2. 좀 어렵다	165	32.0	120	32.4	30	30.3	15	32.6
	3. 대단히 어렵다	26	5.0	22	5.9	4	4.0		
	4. 모르겠다	36	7.0	24	6.5	9	9.1	3	6.5
	5. 기 타	4	0.9	4	1.1				
	계	515	(%) 100.0	370	(%) 100.0	99	(%) 100.0	46	(%) 100.0
중 졸	1. 있 다	183	58.1	98	52.4	50	60.2	35	77.8
	2. 좀 어렵다	97	30.8	65	34.8	22	26.5	10	22.2
	3. 대단히 어렵다	8	2.5	8	4.3				
	4. 모르겠다	23	7.3	13	7.0	10	12.0		
	5. 기 타	4	1.3	3	1.5	1	1.3		
	계	315	(%) 100.0	187	(%) 100.0	83	(%) 100.0	45	(%) 100.0

항 목 별 지 역 별		총 계		대 도 시		중 소 도 시		농 촌	
	계	392	100.0	151	100.0	127	100.0	114	100.0
국	1. 있 다	229	58.4	75	49.6	74	58.3	80	70.2
	2. 좀 어렵다	96	24.5	42	27.8	34	26.8	20	17.5
	3. 대단히 어렵다	24	6.1	17	11.3	6	4.7	1	0.9
	4. 모르겠다	43	11.0	17	11.3	13	10.2	13	11.4
	5. 기 타								
국	계	167	100.0	42	100.0	26	100.0	99	100.0
	1. 있 다	95	56.9	23	54.8	15	57.7	57	57.6
	2. 좀 어렵다	43	25.7	12	28.6	7	26.9	24	24.2
	3. 대단히 어렵다	4	2.4	4	9.3				
	4. 모르겠다	23	13.8	2	4.8	4	15.4	17	17.1
	5. 기 타	2	1.2	1	2.5			1	1.1

68년의 “한국인의 가치관” 조사에 나타난 사회실태관을 보면 과히 좋은편이 못되었다. 우리사회에서 능력있고 성실히 일만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견해는 38.9%에 불과했다. 고령자 성직자, 일부의 신자, 농민들이 이의견을 지지하고 있으나 젊은층, 학생, 교사, 공무원, 사무원, 군 경등은 과반수가 “좀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면 대단히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면에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전근대적인 혈상 지상,

파벌 정실 등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사회라고 볼 수 있으며, 그것이 부정과 정실의 사회악을 조성하고 있다고 하겠다.

만일 이러한 현상이 남아 있는한 근대화도 민주화도 요원하다고 할 수 있겠고 또한 그러한 사회환경하에서는 전력을 다하여 성실히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그는 경제개발, 더 나아가서, 국가건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것이며, 사회질서의 유지, 승공자세의 확립 등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것이므로 조속히 시정안이 요구된다고 보아진다.

직업별로 보아도 단순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나 농업, 상업, 공업등의 과반수이상의 절대다수가 “능력있는 사람이 정직하게 열심히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학력이 높아야 하는 직업, 전문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긍정적 반응이 약하게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도 대도시주민보다는 농촌주민들이 월등하게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아울러 “좀 어렵다”는 회의적이지만 부정하지 않는 율도 도시주민들 보다는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 33 참조)

전술한바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누구든지 능력있는 사람이 정직하게 열심히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 이번 조사에서 두드러치게 나타나 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와같이 국민 모두가 “불신사조”를 깨끗이 씻어 버리고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모든일이 공정하게 처리될때 우리의 앞날은 희망적이고 발전적이며, 바람직한 만민평등의 근대사회를 빨리 이룩하게 될 것이다.

<표 33> 지역별 직업별 성공에 관한 의견분포

항 목 별		지 역 별		총 계		대 도 시		중 소 도시		농 촌	
	계	235	(%) 100.0	10	(%) 100.0	27	(%) 100.0	198	(%) 100.0		
농 업	1. 있 다	155	66.0	5	50.0	19	70.4	131	66.2		
	2. 좀 어렵다	49	20.8	2	20.0			47	23.7		
	3. 대단히 어렵다	4	1.7	2	20.0	1	3.7	11	0.5		
	4. 모르겠다	26	11.1			7	25.9	19	9.6		
	5. 기 타	1	0.4	1	10.0						
상 업	계	442	(%) 100.0	290	(%) 100.0	124	(%) 100.0	28	(%) 100.0		
	1. 있 다	253	57.2	160	55.2	74	59.7	19	67.8		
	2. 좀 어렵다	132	29.9	92	31.7	32	25.8	8	28.6		
	3. 대단히 어렵다	21	4.8	15	5.2	6	4.8				
	4. 모르겠다	34	7.7	21	7.2	12	9.7	1	3.6		
업	5. 기 타	2	0.4	2	0.7						
교육자	계	450	(%) 100.0	335	(%) 100.0	90	(%) 100.0	25	(%) 100.0		
	1. 있 다	218	48.4	154	46.0	46	51.1	18	72.0		
	2. 좀 어렵다	179	39.8	134	40.0	39	43.3	6	24.0		
	3. 대단히 어렵다	31	6.9	30	8.9	1	1.1				
	4. 모르겠다	19	4.2	15	4.5	3	3.4	1	4.0		
회사원	5. 있 다	3	0.7	2	0.6	1	1.1				

항 목 별	지 역 별	총 계		대 도 시		중 소 도 시		농 촌	
		계	(%)		(%)		(%)		(%)
공 업	계	107	100.0	79	100.0	28	100.0		
	1. 있 다	56	52.3	40	50.6	16	57.1		
	2. 좀 어렵다	33	30.8	25	31.7	8	28.6		
	3. 대단히 어렵다	2	1.9	2	2.5				
	4. 모르겠다	15	14.0	11	13.9	4	14.3		
	5. 기 타	1	1.0	1	1.3				
자유업	계	48	100.0	40	100.0	6	100.0	2	100.0
	1. 있 다	24	50.0	21	52.5	2	33.3	1	50.0
	2. 좀 어렵다	18	37.5	13	32.5	4	66.7	1	50.0
	3. 대단히 어렵다	6	12.5	6	15.0				
	4. 모르겠다								
	5. 기 타								
금융업	계	10	100.0	10	100.0				
	1. 있 다	3	30.0	3	30.0				
	2. 좀 어렵다	4	40.0	4	40.0				
	3. 백단히 어렵다	2	20.0	2	20.0				
	4. 모르겠다	1	10.0	1	10.0				
	5. 기 타								

내
6
회

항 목 별		지 역 별		총 계		대 도 시		중 소 도 시		농 촌	
노동자	계	101	100.0%	34	100.0%	37	100.0%	30	100.0%		
	1. 있 다	59	58.4	19	55.9	25	67.6	15	50.0		
	2. 좀 어렵다	26	25.7	8	23.5	9	24.3	9	30.0		
	3. 대단히 어렵다	5	5.0	5	14.8						
	4. 모르겠다	10	9.9	1	2.9	3	8.1	6	20.0		
	5. 기 타	1	1.0	1	2.9						
무 직	계	264	100.0%	189	100.0%	43	100.0%	32	100.0%		
	1. 있 다	142	53.8	102	54.0	19	44.2	21	65.6		
	2. 좀 어렵다	74	28.0	56	29.6	14	32.5	4	12.5		
	3. 대단히 어렵다	14	5.3	11	5.8	3	7.0				
	4. 모르겠다	31	11.8	18	9.5	7	16.3	6	18.8		
	5. 기 타	3	1.1	2	1.1			1	3.1		
기 타	계	179	100.0%	129	100.0%	45	100.0%	5	100.0%		
	1. 있 다	88	49.2	58	45.0	27	60.0	3	60.0		
	2. 좀 어렵다	67	37.4	51	39.5	14	31.1	2	40.0		
	3. 대단히 어렵다	12	6.7	11	8.5	1	2.2				
	4. 모르겠다	11	6.1	8	6.2	3	6.7				
	5. 기 타	1	0.6	1	0.8						

8 항 생활의 만족도

가. 일반적인 개황

전술한 바와 같이 산업화에 따라 소득수준이 향상되는 반면에 생활에 대한 불안, 불만도 적지 않게 된다.

누구나 보다 나은 생활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제 보다는 오늘, 오늘 보다는 내일, 또 올해 보다는 내년에 하고 미래를 향해 생산의 향상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 전제로 삼는것은 무엇이나 하면 그것은 경제생활일 것이다. 물론 우리들의 생활은 경제이외에 정신생활의 만족이라던가 그밖에 여러가지 측면에서 보는 생활향상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 근처에 있는 것은 무엇 보다도 경제문제라는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소위 “가계의 운영”일 뿐이지 모든것을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들의 생활은 근래에 급격하게 변화하였으며 또 변화하고 있다. 즉 생활의 심리적 변화로서 최근에 명확하게 볼 수 있는것은 가치관의 도약이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처세관이라던가 인생해석이라는 인간으로서의 사상과 감각, 다시 그 근원이될 그 무엇의 진전에 따라 크게 전환하고 있다.

현대는 욕구불만(frustration)이 통용어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은 욕구불만이 모든 사람의 경험하는 바라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가치평가의 기준은 욕구를 충족하느냐 못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욕구를 만족시키는 사물은 가치가 높고, 만족시킬 수 없는것은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만족도가 높으면 가치가 높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느냐 하는 사고방식으로 된다는 것이다. 욕망을 이루는 요소로서는 동질화작용에

의한 “일반적의식”에 따른 안심감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는 개성화로 부터 우월을 구하여 “elite 의식”에 따른 만족감이 있다.

“풍요한 삶”이라는 말이 있고 밝다던가 균형이라던가 하는 목표에 대신할 수 있는 풍요의 추구가 자주 논의되고 있다.

경제의 고도성장이 반드시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 하고 의문이 널리 제기되고 이와 관련해서 선진제국은 GNP 지표의 경제적 측정기준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GNP와 병행하는 “복지 및 후생” 지표나 혹은 그러한 개념을 찾아 내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에 새로이 나타난 것만도 예를 들면 NNW (순국민복지), GNS (국민총만족), GNW (국민총복지), GNC (국민총상황) 등이 있다. 이들의 개념의 설명은 그만 두고 이를테면 국민의 대다수가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느냐의 여부는 반드시 그나라의 물질문명과 일치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아뭏든 GNP 성장만을 추구하는 정책에 반대하여 고차원의 개념과 지표를 찾으려는 시도는 한마디로 “삶의 보람”을 찾자는 것으로 요약되어 선진공업국일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가치관의 전도와 무제한 원시의 향수는 크나큰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생활의 물리적 변화를 들 수 있다. 생활자료는 제공되는 의식주의 재료<서비스>를 비롯하여 소비의 행동방식이 크게 변해가고 있다.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소비경향이 구미화했다느니 규격화됐다느니 하며 또 그것의 실현은 도시가 앞장 서 있고 산업화에 따라 인구의 도시집중이 일어나고 생활의 기준을 도시에 구하게 되어 도시화현상이 생겨났다.

생활물재와 생활의식과 더불어 생활의 간소화 편리화는 구체적으로 급격한 신생활방식을 전개하기에 이르렀고 또 생활의 합리화에서 다시 생활수준의 향상은 생활의 고급화로 발전하여 점점 <스케일>이 커지고 있다.

끝으로 생활의 사회적 변화로서 ① 가족구성인 핵가족화 ② 소득의 격차 ③ 인구의 도시집중 ④ 인건비의 상승 ⑤ 사회경제(경제기구, 산업구조, 취업구조, 경제기능의 일절을 포함하는)의 동향 ⑥ 노동시간의 장, 단 ⑦ 생활환경의 개선 ⑧ 사회적 통념의 변화 ⑨ 교육의 보급과 고도화등을 들 수 있다. 그뿐 아니라 과학지식, 경제지식의 전문적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생활인의 발언권이 강화되고 생활공학, 생활경영, 생활혁신의 원동력으로 화하고 있다. 생활이 변용함에 대처한다는 것은 중대한 생활태도이다. 이에 대한 적응문제는 다른항에서 논할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장래에 대한 <비전>을 현실적인 생활속에서의 보람과 삶의 가치등은 본래 개성적인 가진것으로 십인십색 매우 다양한 것이며 가정본위이던 직무본위던 아니면 취미와 오락본위던 생활에 대한 만족(또는 불만족)은 미래에의 인간활동의 원천이 되며 재생산을 위한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생활에 대한 태도와 전망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미리 단념하는 일을 성취할 수 없다. 따라서 한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나 또는 한 개인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발전의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낙관이 앞서야 하고 또한 개인이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과 전망이 앞서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에 대하여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취지로 국민들의 현재 생활에 대한

한 만족 여부와 실제적으로 나아졌는지 변화가 없는지를 알아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것으로 전망하고 있는지를 관찰해 보았다.

(1) 생활의 만족도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으로 국민소득이 상승되고 따라서 국민들의 생활수준도 크게 향상되었다. 표 34에서 보는바와 같이 ① “만족하다”는 반응이 50.2%, 여기에 “대단히 만족하다”는 2.6%와 합치면 과반수를 훨씬 넘는 사람들이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② “불만스럽다” 39.1%와 “대단히 불만스럽다” 3.2%로 42.3%나 되는 사람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실생활이 이전보다 “못하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크게 향상되었지만 상대적인 빈곤감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지역간, 계층간의 소득 내지 생활의 격차와 일부 물지각한 계층의 사치 낭비 풍조의 탓이라고 풀이된다.

남성보다는 여성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주민의 만족도가 중소도시주민보다는 높고 농촌주민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63.8%)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촌은 그간 농촌 근대화를 위한 농어민 소득증대사업이 주효했고 또 각종 사회시설의 확장이 그들의 생활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풀이 된다.

앞으로 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계속 유지중에 있으므로 점점 국민들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4 참조)

<표 34>

현재생활의 만족도 지역별, 남녀별 분포

항목별 지역별	총 계		합 계				대 도 시					
	계	%	남	%	여	%	계	%	서남	울여	부남	산여
계	1,836	100.0	1,464	100.0	372	100.0	1,116	100.0	592	156	226	102
1. 대단히 만족하다	48	2.6	38	2.6	10	2.7	33	3.0	15	3	9	6
2. 만족하다	922	50.2	745	50.9	177	47.6	534	47.8	291	75	130	38
3. 불만스럽다	718	39.1	564	38.5	154	41.4	422	37.8	217	61	96	48
4. 대단히불만스럽다	58	3.2	44	3.0	14	3.8	50	4.5	24	6	15	5
5.기 타	80	4.9	73	5.0	17	4.5	77	6.9	45	11	16	5

항목별	지역별	중 소 도 시								농 촌									
		계	%	광 주		원 주		김 천		계	%	김 해		충 금		충 북		광 산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400	100.0	173	27	91	9	57	43	320	100.0	147	13	76	4	62	18		
1. 대단히만족하다		7	1.8			3		3		8	2.5	2		3		3			
2. 만족하다		192	48.0	61	6	57	5	36	27	196	61.3	62	5	50	3	58	18		
3. 불만스럽다		183	45.8	106	19	23	4	18	13	133	5.8	80	8	23	1	1			
4. 대단히 불만스럽다		5	1.2	2	1			2		3	0.9	3							
5. 기타		13	3.2	4	1	8													

(2) 생활의 비교

현재의 생활이 작년과 비교해서 얼마나 향상되었으며 어떻게 변화 하였는가를 알아 보았다 .

표 35에서 보는바와 같이 “나아졌다”는반응을 전체적으로는 28.9%이고 “변함없이 그대로다”하는 사람이 50.1%로 이들은 작년과 비교하면 향상된 편에 속하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 이와 반대로 “나빠졌다”는 사람은 19.5%에 불과 하여 대체로 국민들의 생활이 해마다 향상되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작년과의 생활 비교에 있어성도 남성의 경우 보다 여성들이 “나빠졌다”는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 있고 , 지역별로는 대도시 21.9% , 중소도시 21.8% 농촌은 8.1%가 나빠졌다고 대답 하고 있다 .

전향과 같이 도시주민의 생활보다는 농촌지역주민들의 생활의 눈에 띄이게 향상된 사실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

농촌에서는 “나빠졌다”는 사람이 44.1% , “변함 없이 그대로다”는 사람이 47.8%로 압도적인 다수가 향상되어 가고 있음을 시인하고 있다 .

< 표 35 >

현재생활을 작년과 비교 지역별, 남녀별, 분포

항목별 지역별	총 계		합 계				대 도 시					
	계	%	남		여		계	%	서 울 부 산			
			계	%	계	%			남	여	남	여
계	1,836	100.0	1,464	100.0	372	100.0	1,116	100.0	592	156	226	102
1. 나아졌다	530	28.9	437	29.9	93	25.0	289	25.9	142	49	79	19
2. 변함없이그대로다	920	50.1	731	49.9	189	50.8	561	50.3	328	74	108	51
3. 나빠졌다	358	19.5	274	18.7	84	22.6	245	21.9	108	30	76	31
4. 기 타	28	1.5	22	1.5	6	1.6	21	1.9	14	3	3	1

지역별 항목별	계	중 소 도 시								농 촌							
		%	광 주		원 주		김 천		계	%	김 해		금 능		광 산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400	100.0	173	27	91	9	57	43	320	100.0	147	13	76	4	62	18	
1. 나아졌다	100	25.0	33	3	32	1	20	11	141	44.1	53	3	27		51	7	
2. 변함없이그대로다	206	51.5	185	11	50	7	29	24	153	47.8	12	9	49	3	10	10	
3. 나빠졌다	87	21.8	54	11	5	1	8	8	26	8.1	22	1		1	1	1	
4. 기 타	7	1.7	1	2	4												

국민의식동향조사표

보건사회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75-6245.75-9478)

주 지	사 역	조사부명	조사부명 (법)명	가 번 호	조사년월일	197년월일	인	조사원성명	③
-----	-----	------	--------------	-------	-------	--------	---	-------	---

우리는 조국 근대화와 민족 중흥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사회변동을 겪으면서 새로운 가치관을 확립하지 못하고 갈등과 혼란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일정한 방향의식을 갖게 되고 또 우리 개인의 정신생활의 질서를 회복하려면 새로운
정신기반의 확립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가치체계를 확립하려면 무엇보다도 국민의 의식동
향을 정확히 알아야 하므로 이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사에 협조하여 주시는 분들께 다음 질문에 응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기본 속성 1. 성별 (1) 남 (2) 여 2. 혼인관계 (1) 미혼 (2) 유배우 (3) 이혼 (4) 사별 (5) 기타 3. 연령 (1) 20세 이하 (2) 21세~30세 (3) 31세~40세 (4) 41세~50세 (5) 51세~60세 (6) 61세~70세 (7) 71세 이상 4. 교육 정도 (1) 대학졸업이상 (2) 고졸 (3) 중졸 (4) 국졸 (5) 불취학 5. 종교 (1) 유교 (2) 불교 (3) 천주교 (4) 기독교 (5) 천주교 (6) 무종교 (7) 기타 6. 생활정도(자기주위의 생활환경에 비교하여) (1) 상 (2) 중 (3) 하 7. 직 업 (1) 농·어업 (2) 상업 (3) 교육자·공무원·회사원 (4) 공업 (5) 자유업(의사, 변호사, 언론인·등) (6) 금융업 (7) 노동자 (8) 무직 (9) 기타(명칭을 쓰시오) B. 집의 사람 1. 귀하의 태에서는 신문물 구족하십니까? (1) 구족한다 (2) 구족하지 않는다 (가) 구족하진다면 어떤 신문물 보십니까? (예를 들면는 순서대로) 1.2.3.으로 기입하십시오 (1) 일차 중앙지 (2) 일간지 방지 (3) 주 간 지 (4) 전 문 지 (5) 기 다 (나) 주로 어느편을 편성했 게 읽으십니까? (순서대로1.2.3.으로 기입하십시오) (1) 정치면 (2) 경제면 (3) 사회면 (4) 문화면 (5) 기타면 2. 귀하는 잡지류 읽으십니까? (1) 정기적으로 구독한다 (2) 가끔 구독한다 (3) 구독하지 않는다 3. 권태하는 텔레비전이 있으십니까? (1) 있다 (2) 없다 4. 귀하의 태에는 라디오가 있으니까? (1) 있다 (2) 없다	(가) 읽으시다면 주로 어느 프로 그램을 즐겨 들으 십니까? (들거시는 문서대로1. 2. 3. 으로 기입하십시오) (1) 뉴 스 (2) 연속물(방송극, 난독등) (3) 음악프로그램 (4) 상식 (5) 기타 5. 귀하는 영화구경을 가 십니까? (별 회) (1) 자주간다 (년 회) (2) 가끔간다 (3) 안 간 다 6. 귀하는 다음과 같은 오락종 수를 즐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난 말춤해 주십시오) (1) 당구 (2) 플로 (3) 예술감상(음악, 미술등) (4) 바둑 (5) 낚시 (6) 등산(산책) (7) 탁구 (8) 수영 (9) 기타(명칭을 쓰시오) () 7. 귀하는 주말 또는 여가를 주로 어떻게 보내십니까? (1) 등산 (산책)을 한다 (2) 여행을 한다 (3) 낚시를 한다 (4) 바둑을 둔다 (5) 독서를 한다 (6)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시청한다 (7) 운동구경을 한다 (8) 기타 (명칭을 쓰시오) (가) 귀하는 여행이나 등산을 하진 때는? (1) 가족과 함께 간다 (2) 혼자서 간다 (3) 친구와 함께 간다 (4) 기타 8. 귀하는 종교를 가지고 계신다면 모임에는 (종교가 있다고 하신분만 기입 하시오) (1) 집회가 있을 때 마다 가까이 나간다 (2) 가끔 나간다 (3) 중요 행사 때만 나간다 (4) 안간다 (5) 기 다 9. 귀하는 정부에서 마련한 "가정의배움치"를 알고 계십니까? (1) 알고 있다 (2) 모르고 있다 (가) 알고 계십니까? (1) 정한대로 실천한다 (2) 그대로 하지 않으나 간소화 하고 있다 (3) 잘 몰라서 못 지킨다 (4) 우리관습대로 한다 (5) 전연 관습학의 일이다 (나) 귀하는 제사를 지내거나 성묘를 가십니까? (1) 제사도 지내고 성묘도 간다 (2) 제사만 지낸다 (3) 성묘만 간다 (4) 둘다 지키지 않는다 (5) 기타	10. 귀하는 지난달에 수입된 돈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원 (1) 식료품비 원 (2) 주거 비 원 (3) 광 열 비 원 (4) 피 복 비 원 (5) 교 육 비 원 (6) 장 비 (보건의료 교통통신, 오락비등) 원 (7) 저 축 11. 귀하는 저축을 하시는 목적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예를1.2.3.으로 기입 하시오) (1) 질병이나 예기치 못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2) 자녀들의 교육비마련 을 위하여 (3) 자녀들의 결혼비용을 위하여 (4) 주택이나 토지를 장 만 하기 위하여 (5)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6) 기타(구체적으로 기 입 하십니까?) () 12. 귀하는 물건(민용품 등) 을 사질 때 주로 어디서 사십니까? (1) 큰시점에서 직접 구 입한다 (2) 백화점이나 인쇄점 에서 산다 (3) 동네나 집에서 가까 운 곳에서 산다 (4) 의뢰원이나 선전원에 게 산다 (5) 기 다 13. 귀하는 물건을 사질 때 주 로 어떤 방법으로 사십니 까? (1) 현금을 주고 산다 (2) 월부(또는 일부)제로 산다 (3) 외상으로 산다 (4) 기 타 14. 귀하는 자녀들이 장차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을 바다면 서 교육시키십니까? (1) 지혜롭고 창의력있는 사람 (2) 재산과 돈이 많은 사람 (3) 명예와 지위가 높은 사람 (4) 부모에게 효도 하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 15. 귀하는 이사회적 책임이 무 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업 (2) 안정된 미래를 바라 볼 수 있는 직업 (3) 자기의 소질과 용기 에 맞는 직업 (4) 이 세 사람을 많이 기쁘게 하는 직업 (5) 기 다	16.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정적하게 일심히 노력만 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십 니까? (1) 있 다 (2) 좀 어렵다 (3) 대단히 어렵다 (4) 모르겠다 (5) 기 타 17. 귀하는 요즘의 생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1) 대단히 만족한다 (2) 만족한다 (3) 분만 스럽다 (4) 대단히 분만 스럽다 (5) 기 타 18. 귀하의 생활이 작년과 배 교하면 생활 형편이 어떠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나아졌다 (2) 변함없이 그대로다 (3) 나빠졌다 (4) 기 타 19. 귀하의 생활 형편이 앞으 로 어떠 하리라고 생각하 십니까? (1) 좋아질 것 같다 (2) 변함없이 그대로 일 것이다 (3) 나빠질 것 같다 (4) 기 다
--	--	---	---

69년 한해 동안을 문교부가 전국적으로 전형적인 재래모습을 보존하고 있는 어촌, 산촌, 농촌, 소도시 그리고 대도시에서 걸쳐 “생활문화실태” 표본조사한 가운데 보면 “현재의 생활이 4,5년전에 비해 얼마나 나아졌느냐?”의 질문에는 ① 어촌의 58%, ② 산촌의 54%, ③ 대도시의 48% ④ 소도시의 34%, ⑤ 농촌의 28%가 “그저 그렇다”거나 “더 어려워졌다”는 반응을 보인바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지난 62년부터 실시해온 경제개발계획이 상당한 시간을 경과한 오늘에 이르러 점차 그 좋은 결실을 지현하여, 이번조사에 있어서 크게 향상된 면모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풀이 된다.

(3) 생활의 앞날의 전망

전향에서, 관찰한바와 같이 점점 향상되고 있는 생활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될것으로 전망하고 또 기대하고 있는지를 알아 보았더니 표 36에서 보는 바와 같다.

즉 ① “좋아질것 같다”는 사람이 60.5%로 압도적인 다수가 자기 생활 형편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② 변함 없이 그대로 일 것이다”는 반응은 27.3%로 향상을 기대하지 못한다는 견해이다. ③ “나빠질것 같다”는 사람은 8.6%로 극히 저조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 표 36 >

앞날의 생활전망 지역별, 남녀별, 분포

항목별	지역별	총 계		합 계				대 도 시					
		계	%	남		여		계	%	서울		부산	
				계	%	계	%			남	여	남	여
총 수		1,836	100.0	1,464	100.0	372	100.0	1,116	100.0	592	156	226	102
1. 좋아질것 같다		1,112	60.5	914	62.4	198	53.2	633	56.9	343	96	147	47
2. 변함없이 그대로 일 것이다		501	27.3	380	26.0	121	32.5	322	28.8	160	45	80	37
3. 나빠질것 같다		157	8.6	121	8.3	36	9.7	101	9.0	57	7	26	11
4. 기 타		66	3.6	49	3.3	17	4.6	60	5.3	32	8	13	7

항목별	지역별	중 소 도 시								농 촌							
		계	%	광 주		원 주		김 천		계	%	김 해		금 능		광 산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총 수		400	100.0	173	27	91	9	57	43	320	100.0	147	13	76	4	62	18
1. 좋아질것 같다		223	55.7	82	5	75	5	34	22	256	80.0	127	6	46	3	60	14
2. 변함없이 그대로 일 것이다		116	29.0	58	8	13	3	17	17	68	19.7	20	6	30	1	2	4
3. 나빠질것 같다		55	13.8	30	12	2	1	6	4	1	0.3	1					
4. 기 타		6	1.5	3	2	1											

이들을 교육정도별로 보면 대졸 이상이 63.1%로 절대 다수가 “좋아질 것 같다”고 앞날의 생활을 전망 하듯이 대체로 희망적인 적극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나빠질 것 같다”고 미래의 생활을 어둡게 전망하는 율은 아주 저조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즉 6.9%~10.5%의 반응이며, 특히 농촌 주민들에게는 “나빠질 것”이라는 반응은 전연 볼 수가 없었으며 “변함 없이 그대로 일 것이다”하는 회의적인 태도도 극히 저조하며, 불취학자들의 경우 28.3%로 약간 높은 반응을 나타 냈을 뿐이다. 이와 같이 밝은 내일의 생활을 전망할 때 거기에는 용기와 발전에의 발걸음은 더욱 드높아질 것이다. (표 37 참조)

<표 37>

교육정도별 미래생활에 대한 전망 분포

항목별	지역별	총 계		대.도.시		중 소 도시		농 촌	
			(%)		(%)		(%)		(%)
대.졸.이.상	계	447	100.0	366	100.0	65	100.0	16	100.0
	1. 좋아질 것 같다	282	63.1	227	62.0	41	63.1	14	87.5
	2. 변함없이 그대로 일 것이다	112	25.1	95	26.0	15	23.1	2	12.5
	3. 나빠질 것 같다	31	6.9	25	6.8	6	9.2		
	4. 기 타	22	4.9	19	5.2	3	4.6		
고.졸	계	575	100.0	370	100.0	99	100.0	46	100.0
	1. 좋아질 것 같다	312	60.6	221	59.7	51	51.5	40	87.0
	2. 변할 것 없애고 그대로 일 것이다	140	27.2	101	27.3	33	33.3	6	13.0
	3. 나빠질 것 같다	41	8.0	27	7.3	14	14.1		
	4. 기 타	22	4.2	21	5.7	1	1.1		

지역별		총 계		대 도시		중소도시		농 촌	
항목별	제	3 15	(%) 100.0	187	(%) 100.0	83	(%) 100.0	45	(%) 100.0
중 술	1. 좋아질 것 같다	195	61.9	102	54.5	51	61.4	42	93.3
	2. 변할 것 없이 그대로 일 것이다	76	24.1	52	27.8	21	25.3	3	6.7
	3. 나빠질 것이다	33	10.5	23	12.3	10	12.0		
	4. 기타	11	3.5	10	5.4	1	1.3		
계		392	(%) 100.0	151	(%) 100.0	127	(%) 100.0	114	(%) 100.0
국 졸	1. 좋아질 것이다	223	56.9	67	44.4	67	52.8	89	78.1
	2. 변할 것 없이 그대로 일 것이다	124	31.6	58	38.4	42	33.1	24	21.1
	3. 나빠질 것이다	38	9.7	19	12.6	18	14.1	1	0.8
	4. 기타	7	1.8	7	4.6				
계		167	(%) 100.0	42	(%) 100.0	26	(%) 100.0	99	(%) 100.0
불 취 학	1. 좋아질 것 같다	100	59.9	16	38.1	13	50.0	71	71.7
	2. 변할 것 없이 그대로 일 것이다	49	29.3	16	38.1	5	19.2	28	28.3
	3. 나빠질 것이다	14	8.4	7	16.7	7	26.9		
	4. 기타	4	2.4	3	7.1	1	3.9		

미래생활에 대한 전망을 직업별로 보면 ① 농업의 77.0%, 자유업의 70.8%, 금융업의 70.0%, 공업의 60.7%, 상업의 60.0%, 노동자의 58.4%, 교육자와 공무원 및 회사원의 57.8%의 순으로 “좋아질 것이다.” 하는 적극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② “변함 없이 그대로 일 것이다.” 하는 회의적인 태도에 있어서

는 노동자의 31.2%, 교육자와 공무원 및 회사원의 30.0% 공업의 29.0%, 상업의 24.9%, 자유업의 22.9% 농업의 20.9% 금융업의 20.0%의 순으로 나타나 있다.

③ “나빠질것 같다는 태도는 아주 낮은 반응이지만 상업의 10.8%의 반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노동자의 9.8%, 교육자와 공무원 및 회사원이 8.2%로 세째로 높았다.

이들의 지역별 분포에 있어서는 ① 농업의 경우 농촌의 80.8% 대도시의 70.0%, 중소도시의 51.9%가 “좋아질 것이다.”로 전망하고 있다. ② 상업의 경우는 농촌의 78.6%, 대도시의 60.3% 중소도시의 54.8%의 순으로, ③ 노동자의 경우 농촌의 76.7% 중소도시의 62.2%, 대도시의 38.2%의 순으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표 38 참조)

<표 38 >

직업별 미래생활에 대한 전망 분포

항목별	지역별	총 계		대 도시		중 소 도시		농 촌	
			(%)		(%)		(%)		(%)
	계	235	100.0	10	100.0	27	100.0	198	100.0
농 어 업	1. 좋아질것 같다	181	77.0	7	70.0	14	51.9	160	80.8
	2. 변함없이그대로일것이다	49	20.9			11	40.7	38	19.2
	3. 나빠질것 같다	3	1.3	1	10.0	2	7.4		
	4. 기 타	2	0.8	2	20.0				
	계	442	100.0	290	100.0	124	100.0	28	100.0
상 업	1. 좋아질것 같다	265	60.0	175	60.3	68	54.8	22	78.6
	2. 변함없이그대로일것이다	110	24.9	73	25.2	31	25.0	6	21.4
	3. 나빠질것 같다	48	10.8	26	9.0	22	17.7		
	4. 기 타	19	4.3	16	5.5	3	2.5		

항목별	지역별	총 계		대 도시		중소 도시		농 촌	
		계	(%)	계	(%)	계	(%)	계	(%)
		450	100.0	335	100.0	90	100.0	△25	100.0
교 공 회 육 무 사 자 원 원	1. 좋아질 것 같다	260	57.8	184	54.9	52	57.8	25	
	2. 변함없이 그대로 일 것이다	135	30.0	106	31.6	27	30.0	1	
	3. 나빠질 것 같다	37	8.2	28	8.4	9	10.0		
	4. 기 타	19	4.2	17	5.1	2	2.2		
공 업	계	107	100.0	79		28		-	
	1. 좋아질 것 같다	65	60.7	44	55.7	21	75.0		
	2. 변함없이 그대로 일 것이다	31	29.0	24	30.4	7	25.0		
	3. 나빠질 것 같다	5	4.7	5	6.3				
자 유 업	4. 기 타	6	5.6	6	7.6				
	계	48	100.0	40	100.0	6	100.0	2	100.0
	1. 좋아질 것 같다	34	70.8	29	72.5	3	50.0	2	100.0
	2. 변함없이 그대로 일 것이다	11	22.9	8	20.0	3	50.0		
금 용 업	3. 나빠질 것이다	2	4.2	2	5.0				
	4. 기 타	1	2.1	1	2.5				
	계	10		10		-		-	
	1. 좋아질 것 같다	7	70.0	7	70.0				
금 용 업	2. 변함없이 그대로 일 것이다	2	20.0	2	20.0				
	3. 나빠질 것이다								
	4. 기 타	1	10.0	1	10.0				

항목별	지역별	총 계		대 도시		중소도시		농 촌	
	계	101	100.0	34	100.0	37	100.0	30	100.0
노동자	1. 좋아질것 같다	59	58.4	13	38.2	23	62.2	23	76.7
	2. 변함없이 그대로 일것이다	32	31.7	14	41.2	11	29.7	7	23.1
	3. 나빠질것 같다	10	9.9	7	20.6	3	8.1		
	4. 기 타								
무직	계	264	100.0	189	100.0	43	100.0	32	100.0
	1. 좋아질것 같다	134	50.8	98	51.9	14	32.6	22	68.8
	2. 변함없이 그대로 일것이다	85	32.2	62	32.8	14	32.6	9	28.1
	3. 나빠질것 같다	35	13.2	19	10.0	15	34.8	1	3.1
	4. 기 타	10	3.8	10	5.3				
기타	계	179		129		45		5	
	1. 좋아질것 같다	107	59.8	76	58.9	28	62.2	3	60.0
	2. 변함없이 그대로 일것이다	47	26.3	33	25.6	12	26.7	2	40.0
	3. 나빠질것 같다	17	9.5	13	10.1	4	8.9		
	4. 기 타	8	4.4	7	5.4	1	2.2		

이토록 절대 다수의 국민이 희망적인 반응을 나타낸 원인에는 우리 국민의 끈질긴 생활력과 낙관적인 민족성장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며, 가까이서 두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사실과 현재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농촌 근대화”작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여하튼 우리의 장래를 이토록 밝게 희망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며, 조국의 통일과 민족중흥의 길을 더욱 힘차게 우렁차게 이룩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다.

제 3 절 요약 전의

자. 요약

이번 조사에서 대체로 우리 국민의 의식성향은 비교적 합리적이고 건전한 사고방식으로 지향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무한한 발전을 전망하고 있음이 밝혀 졌는바 이를 각항별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문화적인 생활

① 정보사회화의 영향으로 <라디오>를 67%~93%가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이 정보원으로 삼고 있었다.

② 신문은 대도시주민의 77%, 중소도시주민이 53%,를 구독하고 있었으나 농촌주민은 5%에 불과 하였다.

③ 여가생활에 있어서는 주로 영화감상, 바둑, 등산, 낚시등이 대중적인 것으로 나타나 있고, 특히 휴일에는 가정에서 쉬고 있는 경향이다.

2. 신교생활과 가정의례

① 신교생활 ;종교를 가진 사람은 전체조사자의 55.4%이며, 신교활동은 매우 저조하였다.

② 가정의례 준칙의 보급율은 82%,이고 이들의 실천도는 저조하나 “간소화”에는 72%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③ 제사는 53%가 “제사도 지내고 성묘”도 하고 있었으며

재래의 관습이 농촌에는 그대로(72%) 준행되고 있는 경향이다.

3. 금전 사용과 태도

① 저축목적에서 보면 자녀들의 교육비, 질병과 불려의 재해 등에 대비가 73%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② 물품구입의 태도에서 보면 큰시장에서 현금으로 직접 구입하는 것이 각각 62%와 88%로 나타나 있고 아직은 월부 또는 일부등의 할부제 구입은 극히 적었다.

4. 자녀의 교육관

“지혜롭고 창의력 있는 자”, 41%,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정에 충실한 자”, 30%, “명예와 지위가 높은 자”, 17%, “재산과 돈이 많은 자”, 13%로 반응을 보이고 있어 매우 건전한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명예와 지위”, “재산과 돈”을 원하는 자가 54%로 빈곤에의 탈피를 가장 심각하게 추구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5. 이상적인 직업

“안정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직업”이 51%, “자기소질과 흥미에 맞는 직업”이 29%, 로 매우 합리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보수”와 “아랫사람을 거느리는데”에는 큰 미련을 두고 있지 않음이 밝혀 졌다.

6. 사회신뢰와 발전전망

사회신뢰관에서 “능력있는 사람이 정직하게 노력하면 성공한다는”는데 54%가 긍정적이며, 농촌에서는 65%가 긍정하고 있어 무한한 장래에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7. 생활의 만족도

① 현재생활을 “만족하다”는 반응이 53%인데 농촌주민은 64%의 높은 현상을 나타내고 작년과 비교해서 “나아졌다”, “그

대로이다.”가 각각 29%, 50%로 매우 향상된것을 입증하고 앞날의 발전에 대해서는 61%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나빠질것 같다.”는 사람은 8.6%에 불과했다.

여하튼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가 우리의 장래를 이토록 밝게 전망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현상임을 알수 있었다.

나. 전의

1.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사회변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국민의 의식동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현실을 직시할 수 있고 또 대다수 국민의 소망에 부응할 수 있는 정신면의 근대화 작업은 국민총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이러한 의식조사 연구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2. 국민의 의식동향 조사 연구의 진용을 확대 강화하여 사제의 다수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조사비용의 충분한 확보로 조사내용의 충실성을 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일부에서는 사회의 혼란을 우려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지만 실제 조사결과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매우 고무적인 사실을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 사 연 구 기 관 및 연 구 자

보 건 사 회 부

사회보장심 의위원회

연구책임자 : 손 창 탈

연구참여자 : 이 만 구

※ 参考文献 目錄

1. 한국인의 價値觀 (社會保障審義委員會)
2. 意識構造上으로 본 韓國人 (尹泰林 著)
3. 한국 통계 월보 (경제기획원, 1971. 8 월호)
4. 社會開發의 基本構想 (保健社會部 編)
5. 國稅統計年報 (1971 年) (國稅庁 發行)
6. 범죄백서 (1970 年) (大檢察庁 發行)
7. 행정백서 (1971 年) (大韓民國政府 發行)
8. 産業社會學 (松島靜雄, 岡本秀昭 編)
9. 新しい 生活經濟學 (美濃部亮吉外 2 人 共著)
10. 價値意識의 理論 (見田宗介 著)
11. 産業社會學 (萬成博, 杉政孝 編)
12. 逋信統計年報 (1970) (逋信部)
13. 大學生의 價値觀
14. 挑 戰

